



코스피(6일)	3127.08 (+6.25P)	코스닥	968.63 (-1.14P)
환율(달러당 원화)	1119.60 (+8.10원)	금리(국고채 3년물)	1.181% (-0.021%p)

'3%룰' 위력 확인, 재계 투기자본 경계령

이른바 '3%룰'이 올해부터 시행됨에 따라 정기 주주총회 시즌에서 위력을 확인할 수 있을지 재계의 관심이 집중됐다. 결과는 재계에 희망과 우려를 동시에 안겼다. 총수의 영향력을 재확인한 곳이 많았지만, 3%룰이 효력을 발휘하며 최대주주 뜻에 반하는 인물이 이사회에 진입한 기업도 있었다.

▶관련기사 3면

6일 재계에 따르면 개정된 상법에 포함된 3%룰은 최소 1명 이상의 감사위원을 이사와 분리 선출하고, 이때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각각 3%로 제한한 규정이다.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주주의 영향력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 소위 '거수기'로 묘사되는 기업 이사회 운영을 혁신하고 대주주 중심의 경영을 견제하기 위해 마련된 장치다.

'한국타이어' 형제간 주총 대결 19% 지분 장남, 43% 차남 이겨 최대주주 꺾은 '3%룰' 첫 사례
올 주총 영향력 크진 않았지만 투기자본의 공격 가능성 '여전'

이전까지는 최대주주 뜻에 따라 이사진이 꾸려졌지만, 의결권이 3%로 제한되며 상황이 달라졌다. 소액주주나 기관투자자의 결정에 따라 결과가 충분히 뒤집힐 수 있어서다.

실제로 3%룰은 한국타이어의 지주회사인 한국엔컴퍼니 주총에서 위력을 발휘했

다. 이 회사의 최대주주는 지분 42.9%를 보유한 조현범 사장이다. 조 사장은 주총에서 그의 형 조현식 부회장과 감사위원 선임을 놓고 표 대결을 펼쳤다.

조 부회장 지분은 19.32%에 그치지만, 표 대결에서 승리를 거뒀다. 조 사장과 사측이 추천한 김혜경 이화여대 교수 선임안은 부결됐고, 조 부회장이 주주제안으로 추천한 이한상 고려대 교수 선임안은 가결됐다. 양측 모두 의결권이 3%로 제한된 상황에서 22%에 달하는 소액주주가 조 부회장 손을 들어주며 승패가 갈랐다.

반면, '조카의 난'이 벌어진 금호석유화학에서는 3%룰이 효력을 발휘하지 못했다. 이 회사 주총에서도 감사위원 선임을 두고 박찬구 회장과 그의 조카 박철완 전 상무가 표 대결을 펼쳤다. 박 회장은 지분

6.69%, 박 상무는 이보다 많은 10%를 갖고 있다.

결과는 박 회장의 승리였다. 박 회장과 사측에서 추천한 황이석 사외이사 선임안이 주총에서 69.3%의 지지를 얻어 박 전 상무의 주주제안을 제쳤다. 양측 모두가 의결권을 3%만 행사했지만, 박 회장이 총수의 영향력을 바탕으로 우호지분을 끌어 모아 승리를 거둘 수 있었다.

경영권 공격의 수단이 될 수 있다며 3%룰 시행에 반대하던 재계는 한국엔컴퍼니와 금호석유의 주총 결과에 주목하고 있다. 재계 전반에 3%룰이 영향력을 발휘하진 않았지만, 투기자본의 공격 가능성이 여전한 만큼 이번 사례를 자세히 살펴볼 것이다.

유창욱 기자 woogi@

車 반도체 대란에 협력사들 '초비상'

부품사 절반 "수급 차질"

차량용 반도체 부족 사태의 여파가 부품 협력사에게까지 번졌다. 완성차 생산에 차질이 발생하자 협력사 절반가량이 부품 생산을 줄였고, 운영 자금 마련에도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조사됐다.

자동차산업연합회는 6일 '제14회 자동차산업발전포럼'을 개최하고 1~3차 협력업체 53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에 따르면 부품사 48.1%가 차량용 반도체 수급 차질에 영향을 받고 있다고 답했다. 영향을 받은 업체의 36%는 부품 생산이 절반 이내로 감소했다.

생산량 감소에 따른 자금 조달 문제도 나타나고 있다. 부품사 20%는 상반기 내에 자금조달이 필요하다고 답했고, 1개월 이내에 필요하다고 한 업체도 있었다.

설문에 답한 부품업체도 차량용 반도체 수급 차질의 영향이 하반기까지 지속할 것으로 내다봤다. 내년까지도 여파가 남아 있을 것이라고 답한 업체도 16%에 달했다.

부품업체는 금융지원 규모 확대(39.0%), 금융지원 기준 완화(39.0%), 처리기간 단축(14.6%) 등 정부의 금융지원책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창욱 기자 woogi@



서울시장 선거 '결전의 날'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6일 서울 서대문구 홍제역 앞에서 집중유세를 하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왼쪽 사진).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같은 날 서울 노원구 상계백병원 앞 사거리에서 유세를 하고 있다. ▶관련기사 6면 신태현 기자 holjjak@



온투법 시행 앞두고 기약없는 'P2P금융 1호'

지난해 말부터 6곳 등록 신청 금감원 심사 지연...업계 '긴장' 8월까지 등록 못하면 문닫아야

각종 횡령·사기 사고로 부정적 이미지가 누적된 P2P금융(개인 간 금융거래) 시장 규모가 급속도로 쪼그라들고 있다. 금융당국이 제시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온투법)이 규정한 까다로운 등록 조건 탓에 폐업과 영영정지가 잇따르면서 제도권으로의 편입조차 쉽지 않은 모양새다. 8월까지 정식 등록을 마쳐야 P2P 업체의 정상 영업이 가능하지만, 초기 신청 업체들의 등록이 이달에서야 마무리되면서 P2P 금융 산업의 존폐를 장담할 수 없게 됐다.

▶관련기사 4면

P2P금융은 개인 투자자와 차입자가 은행 등 금융기관을 통하지 않고 온라인 플랫폼에서 직접 돈을 빌려 주고, 빌려 쓰는 혁신금융의 모델이다. 그러나 P2P 업체들이 은행처럼 제도권 금융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감독할 법적 근거가 없었다. 때문에 대출 부실 리스크는 투자자가 떠안아

P2P금융 주요 사건 사고

회사명	투자자 수 (명)	피해 금액 (원)	내용
헤라펀딩	2000	130억	2018년 5월 부도
핀투	2800	216억	대표 해외 도피
아나리츠	6000	1000억	사기 및 횡령
블루문펀드	4000	570억	대표 해외 도피
팝펀딩	2만3000	380억	대표 사기 혐의 구속
코리아펀딩	1000	300억	

야 하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됐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현재 6개 P2P금융 업체로부터 등록 신청서를 받아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 6곳의 심사를 진행 중이며, 4월 중에는 완료한다는 방침"이라며 "아직까지 심사 중 탈락한 곳은 없다"고 말했다.

P2P금융을 제도권 금융으로 편입시키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온투법)이 1년의 유예 기간을 끝내고 8월 말 본격 시행된다. 온투법이 시행되면 P2P 업체는 준법감시인 선임, 전산시설 등 물적설비 구비 등의 요건을 갖추고 금융당국에 등록해야 한다. 등록 업체는 그동안 발생했던 높은 연체율

등의 문제로 인해 투자한도 축소, 자금 분리 강화 등의 엄격한 규제를 받는다. 등록 유예기간 내 등록하지 못하는 업체들은 영업을 할 수 없으며, 미등록 상태에서 영업을 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온투법 시행 이후 당초 제도권 진입 1호 업체는 지난해 하반기경 결정될 것으로 전망됐으나, 지난해 12월 3개 업체가 등록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정식 업체의 탄생은 결국 해를 넘겼다. 금감원은 금융위의 위탁을 받아 신청 서류와 대주주 적격요건 등을 검토해 신청 접수 2개월 안에 등록 여부를 발표해야 하는 만큼 올해 2월에는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이마저도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심사가 길어지는 데는 자동분산투자 서비스가 온투법을 위반하는지에 대한 금융위의 판단이 내려지지 않았다는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자동분산투자 서비스는 고객이 미리 설정해 둔 조건이나 성향에 맞게 예치금을 업체가 자동으로 분산 투자해 주는 것이지만, 금융당국은 투자자가 투자금의 경로를 알 수 없다는 점에서 온투법과 부합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

김유진 기자 eugene@

국가부채 1985조, GDP 첫 추월

작년 242조 ↑ 재정 수지 악화

지난해 국가부채가 2000조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금총당부채와 국공채가 큰 폭으로 늘어났다. 기획재정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0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가 의결됐다고 밝혔다.

국가부채는 전년보다 241조6000억 원 증가한 1985조3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국가부채가 국내총생산(GDP·지난해 1924조 원) 규모를 웃돈 것은 사상 처음이다. 연금총당부채와 국공채가 각각 100조5000억 원, 111조6000억 원 늘었다. 김선길 기재부 회계결산과장은 "통상적으로 연금총당부채가 증가하는 가장 큰 요인이 할인을 하락 효과 때문인데, 작년에도 할인을 하락 효과로 거의 80조 원대 이상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국가채무는 819조2000억 원으로 전년보다 120조2000억 원 늘었다. GDP 대비로는 42.6%다. 인구 1인당 국가채무는 1635만 원으로 전년보다 226만 원 늘었다.

총세출(일반·특별회계)은 453조8000억 원으로 전년보다 56조6000억 원 증가했다. 집행률은 98.1%로 2007년 이후 최고치, 불용률은 1.4%로 최저치를 기록했

다. 총세입은 465조5000억 원으로 63조5000억 원 늘었다. 이 중 국세수입은 285조5000억 원으로 7조9000억 원 줄었다. 기업 영업실적 부진에 따른 법인세 감소가 주된 원인이다.

예산초과 세입과 쓰고남은 재정을 합한 세계잉여금은 추경 대비 9조4000억 원 발생했다. 기재부는 일반회계 세계잉여금 5조7193억 원을 지방재정 확충, 국가채무 상환 등에 활용하고 일부는 올해 세입예산에 편입할 예정이다.

재정수지는 큰 폭으로 악화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으로 재정지출은 늘었지만, 국세수입이 줄어서다. 통합재정수지는 적자 폭이 전년 59조2000억 원에서 71조2000억 원으로,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수지를 뺀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57조5000억 원에서 112조 원으로 확대됐다. GDP 대비로는 각각 -4.4%, -6.1%다. 이렇듯 기재부 재정건전성 과장은 "국제통화기금(IMF) 전망에 따르면, 선진국은 GDP 대비 13.3% 정도의 큰 폭의 재정적자가 전망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3.1% 적자로 굉장히 양호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세종=김지영 기자 jye@

<테이크아웃>

캔에 커피? '착한 포장재' 바람

100% 생분해 포장재 개발 유통가, 플라스틱 감축 박차

유통가 제품들이 '착한 포장재'로 갈아 입고 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플라스틱 폐기물이 급증하고 기후위기 문제가 대두되면서 산업계에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바람이 거세게 불자 유통·식품 업계는 착한 포장지와 용기로 교체하기 위해 제지사와 협력하고 자체적으로 개발에 나서는 등 친환경 경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스타벅스커피코리아는 일회용 컵 전면 사용 중단 등을 포함해 2025년까지 지속가능성 중장기 전략인 'Better Together: 가치있는 같이' 프로젝트를 6일 발표했다. 이를 통해 스타벅스는 전국 매장에서



일회용 컵을 대신할 '리유저블 컵'을 점진적으로 도입해 일회용 컵 사용률 0%에 도전한다. 올 하반기 중 시범 매장을 선정해 일정 금액의 보증금이 있는 리유저블 컵을 고객에게 제공하며, 사용 후 컵을 무인 반납기에 반납하면 보증금이 반환되는 형태로 운영할 예정이다.

'친환경'이라는 공감대 아래 식품·부티 업계가 제지·화학업계와 손을 잡는 사례도

등장했다. 아모레퍼시픽은 최근 한솔제지와 손잡고 지속가능한 친환경 포장재 및 원료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신소재를 적용해 100% 생분해되는 친환경 포장재와 용기를 개발하겠다는 구상이다. 롯데제과도 한솔제지와 손잡고 카카오 열대 성분이 함유된 친환경 종이 포장재 '카카오 판지'를 공동개발했다.

CJ제일제당은 화이트바이오 사업 부문에서 자체 개발한 생분해 소재 'PHA', 'PLA'를 활용한 식품 포장재를 도입했다. 이를 통해 플라스틱 사용을 연간 약 50톤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던킨은 배달·포장하는 경우에 한해 커피 용기를 알루미늄 캔으로 만든 '던캔'을 도입했다. 재활용 가능한 알루미늄 소재로 제작됐으며 운반이 쉽고 위생적이다.

김혜지 기자 heyji@

본지, 미얀마 현지 청년 2명 이메일 인터뷰



미얀마 최대 도시 양곤에서 4일 시위대가 색칠한 부활절 달걀을 쥐고 세 손가락 경례를 하며 군사 쿠데타에 대한 저항 의지를 표출하고 있다. 양곤/AP연합뉴스

"밖에 나가면 총쏘고 때리고 체포 밤엔 군경 쳐들어와 '총살' 협박"

시위 나섰다 위협 온가족 이주 "한국, 지속적 관심 가져달라"

"오늘은 우리 죽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아직 죽지 않아요. Fighting!"

지난 5년간의 나날은 오랜 기간 독재 아래에서 자유를 몰랐던 미얀마 국민에게 꿈만 같은 시간이었다. 하지만 그 꿈은 산산조각이 났다. 올해 2월 1일 예상치 못했던 쿠데타가 발발했고, 상황은 급변했다. 이투데이는 현지에서 있는 20대 미얀마 청년 두명과 이메일로 이메일 인터뷰를 진행, 현지 상황을 직접 들어봤다. 신변 보호를 위해 이들의 이름은 A와 K로 대체하기로 했다.

23세 대학원생 K와 21세 대학생 A는 올해 초까지만 하더라도 이러한 상황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고 한다. K는 "2월 1일부터 갑자기 인터넷과 전화가 끊기면서 점점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났다"고 설명했다. A 역시 "(쿠데타 발발 전까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이 나오고, 대학도 다시 다닐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고 밝혔다.

군사정권 재집권 이후 이들의 일상은 완전히 뒤집혔다. 집 밖으로 외출도 마음대로 못할 정도로 상황이 심각하다고 이들은 전했다. A는 "낮에도 마음 편히 다닐 수 없고, 밤에도 군인들이 와서 '누가 냄비를 치냐'면서 머리를 썩버리겠다고 협박했다"고 덧붙였다. K도 "지금 밖에 나가지만 하면 총을 쏘고, 때리고, 잡아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K의 경우에는 공무원인 부모가 쿠데타에 반대해 시민불복종(CDM) 운동에 참여했다가 신변에 위협을 느껴 온 가족이 원래 살던 곳에서 떠나야 했다.

두 사람은 한국에 대해 응원과 지지에 감사를 표하면서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했다. A는 "한국에서 지금 많이 응원해 주고 있는 것을 알고 있다.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말했다. K 역시 "미얀마가 민주주의를 되찾을 수 있도록 함께 해주길 부탁한다"고 호소했다.

한편 미얀마 인권단체인 정치범지원연합(AAPP)에 따르면 미얀마에서 쿠데타 발발 이후 5일까지 570명이 희생됐고, 2728명이 구금된 것으로 집계됐다. 변효선 기자 hsbyun@

'실거래가 넘은 공시가' 가족·지인 거래 가능성

시세보다 5억 이상 낮게 팔려 국토부 "불법거래 단정 못해"

서울 서초구가 5일 아파트 실거래가보다 높은 공시가격 책정 사례를 발표하면서 진위 여부를 두고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특히 서초동 S아파트(전용면적 80㎡·24층)는 지난해 실거래 가격이 12억6000만원으로 주변 시세 대비 지나치게 낮아 가족 등 특수 관계인 사이의 거래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다만, 국토교통부는 해당 사례를 조사하지 않아 실제 그 가격에 거래됐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서울 서초구는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반영률) 100% 이상 사례'로 서초동 S아파트를 꼽았다. 이 아파트는 지난해 단 한 건만 거래됐다. 6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에 따르면 S아파트 전용 80㎡형은 지난해 10월 12억6000만원(24층)

에 팔렸다. 올해는 1~2월 총 네 건이 거래됐는데, 모두 17억~18억4000만원에 손바꿈했다. 현재 이 아파트 매매 호가는 18억5000만~19억 원 선에 형성됐다. 2017년 당시 분양가는 최고 10억8000만원이었다.

S아파트 단지 내 S공인 관계자는 "문제의 아파트 거래 금액은 분양가에서 웃돈이 2억 원 정도 붙은 것으로, 당시 저렴하게 팔려 특수 관계 또는 준비속 거래가 아니겠느냐 하는 추측이 있었는데 확인된 건 없다"고 말했다.

이날 국토부 관계자 역시 "개별 거래 사례를 구체적으로 조사하지 않는다"며 "다만 낮은 가격으로 거래됐다고 곧 불법거래라고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서초구청 관계자는 "이번에 발표한 사례는 지난 거래나 분양권 거래 등 특수한 거래는 빼고 일반거래에 한해서 4000여 건을 조사했다"고 설명했다.

서초구청이 제시한 일부 사례는 일반

적인 '불공정' 공시가격 산정 케이스로 보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다른 사례로 제시된 잠원동 S아파트는 재건축 추진 단지로 현재 이주 절차를 밟고 있다. 이 때문에 지난해 6월 전용 117㎡형이 17억3300만원에 매매된 이후 지금까지 실거래된 사례는 한 건도 없었다. 현재 호가는 24억 원 수준으로 실거래가와 6억 원 이상 차이가 발생해 공시가격(18억7100만 원)과 비교하기가 쉽지 않다.

또 제주도가 제시한 B아파트의 경우, 동일 단지 내 같은 동의 공시가격 상승률이 다른 이유는 라인별로 면적이 달랐기 때문으로 파악됐다. 제주도는 "2호 라인 집들은 작년보다 11~11.5% 내렸지만, 4호 라인은 6.8~7.4% 올랐다"고 밝혔다. 이에 국토부는 "4호 라인은 33평형으로 지난해 시세가 올랐지만, 2호 라인은 52평형에 시세가 떨어졌다"고 설명했다.

정용욱 기자 dragon@

THE HYUNDAI SEOUL

SOUND OF THE FUTURE

더현대서울

현대백화점이 가장 진화된
미래형 플래그십 스토어를
여의도에 선보입니다



혁신적 공간 설계
대규모 실내 정원 사운즈 포레스트



글로벌 콘텐츠 큐레이션
12미터 높이의 인공폭포 워터폴 가든



미래형 테크놀로지
AWS(아마존웹서비스)기술 기반 무인 매장 연커먼스토어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면 더 빠르고 편리합니다

- * 여의도 환승센터에서 도보 5분
- * 지하철 5, 9호선 여의도역 3번 출구 연결
- * 지하철 5호선 여의나루역 1번 출구에서 도보 5분



새 룰에 힘 빠진 지분율, 결국 '개미군단'이 캐스팅보트

'경영권 분쟁' 주총 승자는

한국엔컴퍼니와 금호석유화학의 정기주주총회에 모두 '3% 룰'이 적용됐지만, 전자는 회사 측 제안, 후자는 주주 제안이 채택되며 결과가 갈렸다. 당시 상황을 분석해 보면 지분율 차이, 인물, 제삼자 권고 등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풀이된다.

우선 지배주주로서는 회사에 대한 지분이 클수록 3%룰이 적용됐을 때의 불확실성이 커진다.

한국엔컴퍼니 지배주주 조현범 사장과 조현식 부회장 측의 총지분율과, 금호석유화학 지배주주 박찬구 회장 측과 박철완 전 상무의 지분율 합은 각각 73.87%, 45.81%였다. 구체적으로 한국엔컴퍼니 특수관계인 지분은 조현범 사장이 42.9%, 조현식 부회장 등 3남매가 30.97% 등인데 3% 룰을 적용하면 각각 3%, 6.83%로 줄어든다. 금호석유화학의 경우 박찬구 회장 측 14.84%, 박철완 전 상무 10%에서 각각 6.98%, 3%로 감소한다.

한국엔컴퍼니와 금호석유화학 지배주주의 지분율이 1.6배가량 차이가 나지만, 3% 룰이 적용된 이후에는 비슷해진 것이다.

그 결과 금호석유화학 지배주주보다 한국엔컴퍼니 지배주주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줄어들고, 기타 주주나 개미들의 표가 더욱 중요해졌다. 한국엔컴퍼니의 소액주주 지분율은 22%, 금호석유화학의 경우 50% 수준이었다.

재계 관계자는 "결과가 갈리긴 했지만 룰 적용으로 두 회사 지배주주의 우위가 뒤집

금호석유화학

■ 지분율	■ 안건	■ 의결권 자문사 권고/연기금 지침
 박찬구 회장 우호지분 14.84%	 박철완 전 상무	사측 감사위원회 의원 황이석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박철완 측 감사위원회 의원 이병남 전 보스턴컨설팅 그룹 코리아오피스 대표
		ISS 황이석 찬성 글래스루이스 황이석 찬성 서스틴베스트 이병남 찬성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 황이석 찬성 국민연금 황이석 찬성

'삼촌·조카의 싸움' 금호석유화학

박찬구 회장, 우호지분 바탕으로 ESG 전문가 감사위원으로 추천 압도적 지지로 박철완에 '판정승'

한 만큼 앞으로 많은 지분을 가진 지배주주들이 측근들에게 지분을 나누는 식으로 경영권 분쟁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후보의 경력과 그에 대한 업계의 평가도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한국엔컴퍼니 조현식 부회장 측이 추천한 인물은 이한상 고려대 교수였다. 조 부회장 측은 이 교수가 회계학 분야 전문가인 점과 여러 기업의 사외이사를 역임했던 점을 내세우며 표심을 모았다. 이 교수 본인도 직접 나서 회사의 지속성장을 위해 이사회 중심이 되어 하겠다며 경영권 분쟁에 선을 그었다.

금호석유화학의 경우 박찬구 회장 측은 황이석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교수를, 박철

한국엔컴퍼니

■ 지분율	■ 안건	■ 의결권 자문사 권고/연기금 지침
 조현범 사장 42.9%	 조현식 부회장 우호지분 30.97%	조현범·사측 감사위원회 의원 김혜경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초빙교수 조현식 측 감사위원회 의원 이한상 고려대 경영대 교수
		ISS 이한상 찬성 글래스루이스 김혜경 찬성 서스틴베스트 이한상 찬성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 이한상 찬성 국민연금 이한상 찬성

'장남·차남의 싸움' 한국엔컴퍼니

'지분율 열세'였던 조현식 부회장 최대 의결권 자문업체 표심 확보 예상 뒤집고 사외이사 선임 통과

조현식 부회장과 박찬구 회장에 쏠렸다. 의결권 자문사와 연기금 등의 의견도 큰 영향력을 발휘했다.

한국엔컴퍼니의 경우 세계 최대 의결권 자문업체인 ISS와 서스틴베스트 등이 조현식 측의 후보인 이한상 교수에게 표를 던질 것을 권고했다. 그 밖에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와 국민연금이 이 교수에게 힘

을 실었다. 반면, 김혜경 교수를 지지한 곳은 글래스루이스뿐이었다.

금호석유화학도 ISS를 비롯해 글래스루이스,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와 국민연금이 박찬구 회장의 편에 섰지만, 박철완 전 상무가 추천한 이병남 전 대표에 찬성한 곳은 서스틴베스트뿐이었다. 결국, 양사 모두 제삼자의 지지를 많이 얻은 인물들이 최종 승리한 것이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의결권 자문사와 연기금의 결정은 소액주주는 물론 외국인 주주 표심에도 강력한 영향을 준다"며 "결국 힘이 세진 소액주주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게 중요하다"고 평가했다. 김베리 기자 kimstar1215@

'3%룰' 상황파악 끝낸 투기자본 여차하면 지분 쪼개 공격 나설 것

여전히 불안한 재계

올해 주주총회 시즌에서 '3%룰'의 효력이 미미했다는 평가가 나오지만, 재계는 여전히 불안하다. 외국계 투기자본이 얼마든지 3%룰 활용법을 파악한 뒤 경영권 공격에 나설 가능성이 있어서다.

6월 재계에 따르면 3%룰은 내년 이후 주총부터 본격적인 영향력을 발휘할 전망이다. 올해 주총에서는 소액주주나 헤지펀드가 3%룰을 활용할 시간적, 비용적 여건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투기자본이 경영권 공격에 나서기까지는 지분 매입부터 여론전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 3%룰이 포함된 상법 개정안은 막판까지 진통을 거듭하다 지난해 12월에야 국회를 통과했다. 정기 주총이 있는 3월까지도 소액주주나 헤지펀드 등이 실력 행사를 준비할 여유가 충분치 않았다.

재계는 투기자본이 내년 이후를 노릴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본다.

한국경제연구원 관계자는 "주가가 내려가거나 기업 실적이 악화하면 앞으로 투기자본의 영향력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며 "내년 이후가 본격적인 시작이 될 것 같다"고 분석했다.

재계는 3%룰이 투기 세력에 악용될 수 있다며 도입 당시에도 강한 우려를 표했다. 투기 자본이 '지분 쪼개기'로 여러 기관에 지분을 3%씩 분산하면 입맛에 맞는 이사를 선임해 대주주의 경영권을 뒤흔들 수 있어서다.

기업의 감사위원은 회사의 정보를 들여다보고 대주주를 통제할 수 있다. 이 자리에 대주주를 공격할 목적의 인사가 선임되면 경영에 차질이 불가피하다.

전례도 있다. 2019년 현대자동차 지분 2.9%를 확보한 뒤 경영 참여를 시도한 행동주의 펀드 엘리엇도 또 다른 사례다. 엘리엇은 현대차 주총에서 사외이사 후보 3인을 추천했는데, 이 중 한 명은 수소연료전지를 개발해 생산하는 회사 발라드파워시스템의 로버트 랜들 맥킨 회장이었다. 엘리엇이 수소 전기차와 수소연료전지를 만드는 현대차그룹과 경쟁 관계에 있는 회사 대표를 사외이사에 앉히려 한 것이다. 당시 주총에서 이사 선임안은 부결됐지만, 외국인 지분 중 45.8~53.1%가 엘리엇의 추천에 동조한 바 있다.

3%룰로 주목받은 한국엔컴퍼니와 금호석유화학은 '집안싸움'이었지만, 투기 자본이 전략적으로 3%룰을 활용한다면 제삼자에 의한 경영권 탈취와 정보 유출, 단기적 배당 요구까지도 가능하다. 지난해 말 '기업 규제 3법' 통과를 앞두고 재계가 특히나 3%룰 도입에 우려를 표한 이유다.

재계는 한국엔컴퍼니와 금호석유화학의 올해 주총 결과를 놓고 3%룰의 잠재적인 파급력을 따져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경제단체에서도 정지권을 상대로 3%룰의 위험성을 알리고 보완 입법을 촉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유창욱 기자 woogi@



내 가게가 전부인 당신에게 내 가게에서 모두 가능해지도록

i-ONE 소상공인

i-ONE 소상공인 | 오직 소상공인을 위한 전문 금융플랫폼
기업·개인 통합뱅킹부터 전문가의 사업정보까지 앱 하나로 누리세요!

기업·개인 통합뱅킹 간편 비밀번호만으로 통합 계좌 관리	대출·기간연장 최저금리특별대출 기간연장 신청 (단, 개별 SMS 통지 받은 고객에 한함)	전문적인 사업정보 소상공인 맞춤 전문 지식과 정책자금 정보 제공	경영 지원 세무, 직원 및 거래처 관리 등 효율적 경영 업무 지원
--	---	---	--

초저금리대출 기간연장하고 다양한 혜택 받기

IBK기업은행

IBK기업은행

고금리 제재에 증시로 자금 이탈... 존폐 기로에 선 P2P



온투법 앞두고 지각변동

8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온투법)의 시행을 앞두고 온라인투자연계금융(P2P금융) 산업이 지각변동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 업계 1위인 '테라펀딩'을 포함한 일부 업체가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아 존폐 기로에 놓이며 선도 업체들이 사실상 영업을 중단할 위기에 처했다. 금융당국의 심사를 받아 정식 업체로 등록을 받아야 영업을 할 수 있지만 이를 포기하는 곳도 속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P2P 업계에선 온투법 시행 이후 '적자생존'의 원칙에 따라 시장의 판도가 완전히 바뀔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테라펀딩 등 6개 업체에 대한 금융당국의 제재가 진행되고 있다. 제재 대상에 오른 업체들은 올해 1월 법정최고금리(연 24%)를 초과해 이자를 받았다는 이유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3~6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금융위원회가 금감원의 제재안을 감경 없이

업계 1위 테라펀딩 등 6곳 제재 제도권 진입 기피 영업 중단도 주식·코인 열풍에 유동성 이동 정식 등록 업체가 주도권 쥔 듯

그대로 수용할 시 해당 P2P 업체들은 향후 3년 동안 금융위에 등록할 수 없다. 그렇게 되면 8월 시행 예정인 온투법에 따라 미등록 P2P 업체는 영업을 할 수 없어 사실상 폐업을 하는 수순을 밟게 된다.

이러한 점을 감안해 금융위에서도 P2P 업체에 대한 제재안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 금융위는 법제처에 법정최고금리 이상의 이자를 받은 사유로 P2P 업체들에 중징계를 내린 제재심의 법률해석에 대해 적정 여부를 판단해 달라고 의뢰한 만큼 이 해석에 따라 징계 수위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듯 선두 업체들이 생사의 기로에 선

가운데 온투법 시행 역시 P2P 시장 재편을 압박하는 외부 요인 중 하나다. 온투법 시행에 따라 P2P 업체가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기 위해선 금융당국에 등록해야 하지만, 규제권에 들어오는 점을 기피해 아예 영업을 중단하는 곳이 나오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달 4일 기준 P2P연계대부업(구 P2P연계대부업 포함) 라이선스를 유지 중인 업체는 119곳이다. 온투법을 도입하기 직전인 지난해 8월 말(236곳)에 비해 49.6%나 급감한 것이다.

금융당국에서도 어느 정도의 P2P 업체가 정식으로 등록을 할지 예측하지 못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영업을 활발하게 하지 않는 업체가 상당수"라며 "(정식 등록을 얼마나 할지) 정확히 예측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증시 호황과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열풍까지 더해 상대적으로 자금 이탈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도 P2P 시장의 위축을 가속화하고 있다. '고수익 고위험'인 P2P에 투자하는 대신 높은 수익성과 함께 상대적으로

로 안전한 주식과 암호화폐에 투자하기 위해 유동성이 이동하고 있다는 것이 시장의 해석이다.

이 같은 위기 요인에도 P2P 업체들은 금융당국에 정식 업체로 등록하는 데 사활을 걸고 있다. 은행, 금융투자, 보험 등 금융권에서 제도권에 들어온 P2P에 대한 투자에 관심을 보이는 만큼 금융당국의 등록은 곧 신뢰 회복과 본격적인 성장을 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이다. 결국 금융기관의 투자를 받은 정식 업체가 이전 시장의 색을 지우고 새롭게 시장을 재편하는 주도권을 쥔 것으로 보인다.

현재 금융당국의 심사를 받고 있는 피플펀드는 홍콩 글로벌 금융투자기관 CLSA 캐피탈 파트너스로부터 약 280억 원(2500만 달러) 규모의 상품 투자를 추가 유치했으며, 8센트 역시 DSC인베스트먼트, SBI인베스트먼트, 캡스톤파트너스 등 다수의 자본 투자를 받은 바 있다. 이외에도 렌딧 등 P2P 기업들이 국내외 기관의 투자를 유치하고 있다. 김유진 기자 eugene@

P2P 업체 대출잔액
(단위 : 원) ※출처: P2P나우



P2P 등록업체 현황
(단위 : 개) ※출처: 미드레이트



“등록 탈락하면 원금 날릴라” 투자자들 단체소송 준비

제도권 진입 진통 잇따라

온라인투자연계금융(P2P금융)이 제도권에 들어오는 과정에서 '투자자 피해'라는 진통을 낳고 있다. 정식 등록 업체가 되지 못하면 투자 수익은커녕 원금 회수도 어려운 상황에 빠질 수 있어 투자자들의 피해가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6일 P2P 업체의 정보를 제공하는 'P2P나우(NOW)'에 따르면 116개 P2P 기업들의 대출잔액은 2조2595억 원, 평균 연체율은 15.87%로 집계됐다. 평균 부실(손실)률은 1.69%다. 특히 일부 업체의 연체율은 최고 100%에 달하는 상황이다. 연체율은 원금 또는 이자가 30일 이상 연체된 연계대출 잔액을 총연계대출 잔액으로 나눈 값이다.

116개 기업 대출 잔액 2.2조 일부 업체 연체율 100%까지 "P2P 사라진 中 전철 밟을라"

루프펀딩의 연체율이 100%에 달하며 시소펀딩과 팝펀딩, 코리아펀딩 등이 90% 넘는 연체율을 기록하고 있다. 업계 1위인 테라펀딩 역시 연체율이 35.69%다.

P2P 업체의 연체·손실 위험은 높아지는 가운데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온투법) 시행 이후 업체들의 영업 중단 가능성까지 높아지면서 투자자들은 투자금 회수가 어려울까 전전긍긍하고 있다. 일부 투자자들은 투자금 회수를 위한 소송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 P2P 업체에 투자한 A 씨는 "얼마 전부터 새로운 상품을 내놓지 않고 폐업 준비에 들어갔던 소문도 들리는 상황"이라며 "투자 피해를 본 투자자들이 투자금 회수를 위해 단체 소송도 준비 중인 걸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업체는 투자에 대한 리스크 공시는 없이 원론적인 이야기만 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투자자 B 씨는 "원금 손실이 단 한 번도 없다는 말에 투자했으나, 이자와 원금이 연체됐다는 연락을 받고 당황했다"고 전했다.

일각에선 정부의 규제로 P2P 산업이 통째로 사라진 중국의 피해 사례를 지적하며 국내 역시 전철을 밟을지 우려하기도 했다. 중국 정부가 지난해 P2P 대출 플랫폼

에 대해 규제를 강화한 뒤 회수되지 못한 투자금이 100조 원을 넘어가며 사회 불안을 야기하는 요인이 되기도 했다. 상황이 이렇지만 아직 P2P 금융이 제도권에 들어오지 않아 금융당국이 개입할 수 있는 방안은 많지 않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법적으로 투자자 보호 권한이 없는 상태라 합의나 강제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면서 "대출 사기 등의 문제가 아닌 이상 현재 조정도 어려운 상황이며, 이에 따라 최근 투자자가 직접 나서 소송을 준비하는 일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앞으로는 온투법과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으로 설명의무 위반 등의 행위에 대해선 제재가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유진 기자 eugene@

인적자원개발의 즐거운 조립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언제나 든든한 여러분의 HRD파트너로 함께하겠습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평생능력개발, 국가자격시험, 해외취업, 외국인근로자고용, 숙련기술장려, 일학습병행, 국가직무능력표준(NCS), 블라인드 채용 등 국민의 일자리를 위한 국가 인적자원개발 지원사업으로 능력중심사회를 선도해갑니다.



현대차의 도심항공 모빌리티(UAM) 콘셉트 S-A1



한화시스템이 개발 중인 UAM 버티플라이



UAM 진출을 선언한 KAI의 항공기 시뮬레이터

탄력근로제 기간 최장 6개월로

주52시간 따른 경영부담 완화 3개월 초과 댄 서면 합의해야 무노조 영세 사업장 남용 우려

주 52시간(법정근로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 근무제 도입에 따른 사용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최장 6개월로 확대한 개정 근로기준법이 6일 시행됐다.

이에 따라 사용자는 업무량이 많은 경우 탄력근로제를 통해 근로자의 근무시간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는 기간이 늘게 됐다. 다만 노동계에서는 무노조 영세 사업장에서 탄력근로제가 남용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시행된 개정 근로기준법은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탄력근로제는 일정 단위 기간 중 업무가 많은 주의 근로시간을 늘리고 업무가 적은 주의 근로시간을 줄여 평균치를 주 52시간 내로 맞추는 제도다.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이 늘수록 기업은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개정 전에는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이 3개월까지만 허용됐다. 하지만 경영계가 2018년 주 52시간제 시행에 따른 어려움을 호소하며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를 요구했고 결국 단위 기간을 최장 6개월로 늘리는 내용으로 근로기준법이 개정됐다. 개정 법에 따라 사용자가 단위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근로제를 도입하려면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를 맺어야 한다. 서면 합의에는 단위 기간 외에도 적용 대상 근로자 범위와 단위 기간 중 주별 근로시간 등이 포함된다.

이날 개정법 시행으로 사용자는 주 52시간 도입에 따른 경영 부담을 줄 수 있게 됐지만, 현행 법상 근로자 대표의 지위 등에 관한 규정이 없는 점은 한계로 지적된다. 단위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근로제 도입 시 사용자와 근로자 대표의 서면 합의가 필수인데 무노조 영세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 대표가 사실상 사용자의 지정으로 선임되는 등 근로자의 권익을 제대로 대변하기 어려워 탄력근로제가 남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세종=서병곤 기자 sbg1219@

“UAM, 제트엔진급 항공 혁신”

신재원 현대차 사장, 청사진 제시 “2028년 상용화, 2035년 변곡점” 한화·KAI 가세 ‘밸류 체인’ 확대

신재원 현대자동차 도심항공 모빌리티(UAM) 사업부 사장이 “UAM은 120년 항공역사의 혁신”이라고 강조하며 사업 전망을 낙관했다. 현대차그룹이 추진하는 UAM 사업에는 한화와 KAI 등 국내 주요 기업도 속속 뛰어들며 ‘밸류 체인’을 확대하는 중이다.

신재원 현대차 사장은 6일 ‘지멘스 디지털 인더스트리’가 주최한 ‘2021 지멘스 전 기차/자율주행차 기술 온라인 콘퍼런스’에 첫 번째 기조연설자로 나섰다. 미국 항공우주국(NASA) 출신인 신 사장은 2019년 9월 신설된 현대차그룹 UAM 사업부의 부사장으로 합류했다. 지난 1월에는 미국 연방항공청(FAA)의 드론 자문 위원으로 위촉됐다.

이날 신 사장은 “70여 년 전 제트엔진 개발이 항공기 역사에서 혁신을 일으킨 것과 같이 UAM 개발 역시 파격적”이라며 시장을 낙관했다.

UAM은 4~12개의 소형 로터를 이용해 수직으로 뜨고 내릴 수 있는 비행체로 라이트 형제의 첫 비행기, 2차 대전에 등장한 제트엔진에 이어 세 번째 혁신으로 평가받는다.

헬리콥터가 엔진 하나로 대형 프로펠러(로터)를 돌리는 것과 달리, UAM은 여러 개의 전기모터를 활용해 작은 소형 로터를 돌려 양력을 얻는다. 헬리콥터 대비

소음과 하강풍이 작아 10명 안팎의 승객을 태우고 도심 주요 지점에서 쉽게 뜨고 내릴 수 있다. 시장성이 커 현대차그룹을 포함한 글로벌 주요 기업이 다음 세대 이동 수단으로 점찍고 기체 개발을 진행 중이다. 현대차는 2028년께 수소 추진 시스템을 적용한 UAM 기체를 선보인다.

이날 신 사장은 UAM 사업 변곡점을 2035년으로 예상했다. 2028년 상용화 이후 기술 발전과 규제 완화가 이뤄지면 급격하게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는 기대다. 투자자문사 모건스탠리도 2040년 전 세계적으로 약 1조5000억 달러(약 1750조 원) 수준의 UAM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예측했다.

지난해 10월 현대차는 싱가포르 서부 ‘주룽’에 착공한 개방형 혁신기지(오픈이노베이션 랩)를 착공했다. 내년 하반기 완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인 이곳은 4만 4000㎡(약 1만3000평)에 지상 7층 규모로 들어선다. 이 혁신기지 옥상에는 현대차그룹 최초의 UAM 버티포트(터미널)가 들어선다.

국내 주요기업도 UAM 사업을 가시화하고 있다.

한화시스템은 올 상반기 미국 현지에서 UAM 상용화의 열쇠인 ‘전기추진시스템’ 테스트에 나선다. 지난해 지분을 인수한 미국 ‘오버에어(Overair)’와 공동으로 시험 비행을 추진한다. 오버에어는 UAM의 특징인 저소음 관련 특허 기술 ‘OSTR(Optimum Speed Tilt Rotor)’를 보유 중이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도 사업 진출

의지를 밝혔다. 3일 안현호 KAI 사장은 간담회를 통해 “대한민국에서 UAM을 제일 잘하는 업체가 어디냐고 묻는다면 KAI라고 말할 수 있다”고 자신했다. 안 사장은 “앞으로 여러 형태의 UAM이 나올 것인데 누가 표준을 장악하느냐가 관건”이라며 “아직 밝힐 단계는 아니지만, 국내 기업과도 협력을 도모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준형 기자 junior@

IMF, 韓 올해 성장률 0.5%P 올려 3.6% 전망

세계 성장률 0.5%P 상향 6% “하반기 경제회복 모멘텀 강화”

국제통화기금(IMF)이 우리나라의 올해 경제성장률을 3.6%로 전망했다.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6.0%였다.

IMF는 6일 세계경제전망(World Economic Outlook)을 통해 올해 한국 성장률을 3월 26일 연례협의 보고서와 같은 3.6%로 전망했다. 이는 1월 전망 대비 0.5%P 상향 조정된 것이다. 내년은 2.8%로 0.1%P 하향 조정했다. 우리나라의 올해 성장률은 중간 발표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3%, 정부(3.2%), 한국은행(3.0%) 등의 전망보다 높은 수준이고 해외 주요 투자은행(IB) 7개사 평균 전망치 3.9%보다는 다소 낮다. IMF는 주요국 경기회복에 따른 수출 증가세 등 최근 경제 흐름과 추가경정예산 편성 효과 등을 반영했다는 설명이다.

또 IMF는 이날 세계 경제 성장률은

6.0%로 전망했다. 이는 1월과 비교해 0.5%P 상향 조정된 것이다. 내년은 4.4%로 0.2%P 상향했다.

IMF는 선진국의 추가 재정 확대 및 백신 보급의 영향으로 하반기 이후 경제 회복 모멘텀이 강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IMF는 또 백신에 대한 국제공조 강화와 피해계층에 대한 지속적인 선별적 지원을 권고했다. 또 피해기업에 대한 선별 지원, 실업자 재교육 지속(단기 일자리 축소),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투자 강화, 교육·연구·인프라 투자 강화를 통한 생산성 제고, 재정정책 여력 확보, 기후변화 대응 강화 등을 주문했다.

기획재정부는 “IMF 전망에서 나타난 세계 경제의 회복세 강화는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의 회복 흐름에 긍정적인 전망”이라며 “특히 우리의 가장 큰 수출 대상국인 미·중이 견조한 성장 흐름을 보이면서 수출 회복세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세종=곽도흔 기자 soqood@

NH투자증권 이사(ISA) 가입 이벤트 (21. 02. 25 ~ 06. 30)

- 1 이벤트 기간 중 중개형 ISA 가입 시, 국내 주식 매매 수수료 완전 무료 (10만원부터 1천만원) *년 이후 수수료 약 0.084%~0.489% (연 2만 7천 원)
- 2 총 140분 연 14% (세전) 연 특판 RP 제공 (1천만원 이상 가입 시 1천만원 한도 (연 1만 7천 원))

확달라진 이사(ISA)

- 가입대상: 만 19세 이상 거주자 및 근로소득이 있는 만 15~19세 미만 거주자
- 의무보유기간: 3년
- 유형상품: 중개형 ISA 추가, 주식거래 추가
- 세제혜택: 수익의 200만원 한도 비과세 (초과 금액 9.9% 분리과세)
- 연금 전환 혜택: 최대 300만원까지 추가 세액공제

투자, 문화가 되다

NH투자증권

* 자세한 이벤트 내용은 NH투자증권 홈페이지 또는 영업점/고객지원센터를 통해 확인하세요.
 • 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내 예금보호 대상으로 운용되는 금융상품에 한해서만 예금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호공사가 최고 5천만원까지 보호합니다. • 이 계좌 내 투자성 상품은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 당사는 이 계좌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투자자는 투자에 앞서 그러한 설명을 충분히 들으시기 바랍니다. •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금융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신탁형/일임형 ISA 가입 시 별도의 신탁(일임)보수(연 0.1%~0.5%)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중개형 ISA 가입 시 별도 보수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과세기준 및 과세방법은 향후 세법개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ISA 계좌는 당사에서 특정금전신탁, 투자일임, 중개형 중 한 가지 계약 형태로만 가입이 가능하며, 형태별 차이는 가까운 영업점 등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무료수수료 적용 기간 이후 수수료는 약 0.084%~0.489%(온라인 매매 기준, 거래금액별, 재분별상)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사 홈페이지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금융투자협회 심사필 제21-이08호(2021-03-04-2022-03-03)
 * 중개형 ISA는 투자자가 운용대상상품을 직접 선택하여 운용합니다.

차 '노회찬 버스'로 텃밭 훑어 vs 뭉, 강북 돌며 2030공략

오늘 재보선 투표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 전날인 6일 박영선 더불어민주당·오세훈 국민의힘 후보는 마지막 집중유세에 임했다.

박 후보는 지지세가 높은 지역들을 주로 훑으며 역전의 발판을 마련하려 애썼고, 오 후보는 전통 지지층인 중장년층부터 지지세가 높아지고 있는 2030세대까지 전 세대에 지지를 호소했다.

1일부터 시작된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직전 마지막 여론조사까지 열세를 면치 못한 박 후보는 그 절실함에 이날 새벽 5시께부터 유세에 나섰다. 처음 발길이 닿은 곳은 필수노동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6411번 버스 정류장이다. 6411번은 새벽 노동자들이 많이 타는 노선으로 2012년 7월 고(故) 노회찬 전 정의당 의원이 당 대표 수락 연설에서

갈 그런 1년이 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후에도 민주당 의원들이 포진한 지지세가 높은 지역인 서대문구와 은평구 일대를 다니며 유세를 벌였다. 이후에는 영등포구를 향한다. 저녁에는 민주당 열세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2030 젊은이들이 모이는 마포구를 찾는다. 문재인 정부 지지층이었다가 등을 돌린 이들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1시간 반가량 홍익대 주변 일대를 돌며 집중유세를 벌인다.

이날 마지막 유세는 다시금 광화문에서 진행된다. '1천만 서울시민과 함께 합시다! 박영선'이라는 제목으로 벌어진 집중 유세는 촛불이라는 이름으로 의미가 깊은 광화문을 통해 진보·지지층에 호소하는 의미로 일한다. 박 후보는 기자회견에서 광화문을 두 차례에 걸쳐 방문하는 배경에 대해 "우리의 촛불 정신을 다시 생각해 보



“꼭 투표하세요”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하루 앞둔 6일 부산 서구 송도해수욕장에서 부산시 선관위 직원 등이 '4·7 꼬옥 투표'라는 내용의 현수막이 부착된 열기구(뜨거운 공기)를 띄우며 투표참여를 홍보하고 있다. 뉴시스

박영선, 서대문 등 강북 집중...광화문서 '촛불정신' 마침표 오세훈도 골목순회 강행군...신촌 유세서 '청년층 투표 독려'

언급해 '노회찬 버스'로 알려졌다.

박 후보는 50분가량 버스에 타 노동자들의 민원을 듣고, 노랑진 수산시장을 찾아 상인들을 만났다. 노회찬 버스는 진보층에 의미가 깊고, 노랑진 시장은 전통 지지층인 영세 상인들이 주를 이루는 곳이다.

이후 박 후보는 광화문 일대로 나섰다. 이날엔 민주당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의 국회의원 지역구이기도 한 이곳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이끈 전국적인 촛불시위가 가장 대규모로 일어난 장소다. 그런 점에서 마찬가지로 진보·지지층을 자극하려는 의도다.

마지막 지지 호소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안국동 사무실에서 연 회견에서 박 후보는 오 후보의 부적격성을 일일이 열거하며 자신이 당선돼야 하는 이유를 강조했다. 그는 "지금 서울은 안정적으로 시정을 이끌 시장이 필요하다"며 "약자 차별과 투기 조장 정책으로 서울시의회, 정부와 부딪혀 결국 서울을 정쟁의 도가니로 몰고

고 미흡했던 걸 반성하는 부분도 있다"며 "(또)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이 촛불정신이란 걸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라는 의미도 있다"고 설명했다.

오 후보는 21대 총선에 출마했던 광진구 자양사거리에서 출근 인사로 유세를 시작했다. 이어 중랑구, 노원구, 도봉구, 성북구, 종로구 등에서 골목 순회 유세를 펼쳤고, 서대문구 신촌에서 마지막 유세전을 펼친다.

여론조사 지지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지만 오 후보는 경계를 늦추지 않았다. 지지자를 향해 투표장으로 가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지지율이 조금 앞선다고 해서 방심하면 큰일 나는 선거"라고 말했다. 이어 중장년층 지지자를 향해 "젊은 분들에게 이번에는 한 번 오세훈한테 기회를 줘보자"고 말하고 투표장으로 함께 나가 주셔야 이길 수 있다고 덧붙였다. 지지율이 실제 투표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쉽지 않다는 점을 상기했다.

오 후보는 2030 젊은 층에 좋은 반응을

**4·7 재·보궐선거
코로나19 예방수칙과 투표절차**

- 마스크 착용하고 투표하기
- 투표소 입구에서 발열체크 받기
- 손소독 후 비닐장갑 착용, 투표소 입장
- 불필요한 대화 자제, 다른 선거권자 거러가기
- 본인 확인시 마스크 잠깐 내리기
-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 있다면 별도의 임시 투표소에서 투표

투표절차 오늘 오전 6시 ~ 오후 8시

- 본인 확인에 필요한 사진이 첨부된 신분증 제시. 이때 마스크를 잠깐 내린다.
- 이름을 쓰거나 손도장을 찍어 본인 확인
- 투표용지 1장 수령 (유권자 주소지에서서 · 보궐선거가 2개 실시되면 2장 받음)
- 기표소에서 비치된 용구로 기표 후 투표용지를 반으로 접어 투표함에 넣음

얻고 있다고 거론했다. 그 원인을 문재인 정부와 여당의 실정(失政)으로 규정했다. 그는 "젊은 세대가 우리 당을 지지하기 시작했다. 꿈만 같다"며 "한 청년이 '정부 여당이 형편없어서, 실망해서 그 분노의 마음으로 이번에 한 번 뽑아주려 한다'고 말하더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청년들이 꿈과 희망을 잃어버리고 스스로 '벼락거리'라고 지칭한다"며 "제가 꼭 당선돼 젊은 이들이 희망을 품을 수 있도록 반드시 서

울시를 바꿔 놓겠다"고 말했다. 이날 유세 현장에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신발을 투척해 수감 중인 정모 씨의 아들이 모습을 나타냈다. 그는 "지금 2030세대들은 희망도 안 보인다. 누가 뺏어갔느냐"고 반문하며 "적어도 자기 성찰 할 줄 알고, 자기 반성 할 줄 아는 오세훈 후보를 응원해 주고자 한다"고 지지 의사를 밝혔다. 김윤호 기자 uknow@ 흥인석 기자 mystic@

김종인, 내일 '국힘' 떠난다 주호영 비대위장 대행 체제

새지도부 선출 전당대회 준비 돌입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4·7 재보궐선거를 끝낸 직후 물러난다. 지난해 6월 취임한 지 10개월 만이다. 김 위원장은 퇴임 후 가족 여행을 즐기며 휴식을 취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들어 몇 차례 "재보궐 선거가 끝나면 정치권을 떠날 것"이라고 언급해 온 김 위원장은 6일 "8일 오전 비대위 회의를 마치고 당을 떠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이날 회의 후 기자회견을 열어 재보선 결과와 관련한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저쪽이 아무리 네거티브를 써도 결과를 인위적으로 바꿀 수는 없다"며 "선거는 우리가 무난히 이길 것"이라고 승리를 확신하고 있다.

그의 퇴임과 동시에 국민의힘은 새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 준비체제로 돌입한다. 이르면 12일 비대위 회의에서 전대 준비위원회 구성을 의결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5월 중으로 새 지도부 체제를 구성할 가능성이 크다. 그동안 잠재적 당권 주자로 거론되는 주호영 원내대표가 비대위위원장 권한을 대행한다.

당내에서 현재처럼 당 대표가 사실상 전권을 갖는 '단일 지도부'와 대표와 최고위원들이 협의하는 '집단 지도부' 중 어떤 방향으로 갈지는 아직 논의 중이다. 이를 위해 국민의힘은 8일 의원총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아울러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선거 이후 국민의힘과의 합당 가능성을 내비친 만큼 전당대회 준비 과정에서 이 문제도 함께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즉 국민의당과의 '통합 전대' 방식으로 치를지도 결정해야 한다는 의미다. 하유미 기자 jscs508@

“김영춘 깨끗해”

부산 민심은

“박형준이 낫다”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하루 앞둔 6일 시민들은 저마다 다른 이유로 김영춘 더불어민주당 후보 또는 박형준 국민의힘 후보가 시장으로 적합하다고 주장했다. 일부 시민은 어느 후보도 지지하지 않는다고 투표하지 않겠다고 토로했다.

6일 부산 동래구에서 만난 김혜경(65) 씨는 "박형준 후보를 지지한다"며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코로나 19 백신 접종이 늦어진 점과 부동산정책이 실패했다는 이유를 들어 정부·여당이 정책 시행을 잘못했다고 지적했다.

김 씨는 "정책에 대해 믿음이 없고 전혀 신뢰가 없다"며 "거대 여당만 믿고 그

힘으로 밀어붙여서 모든 게 마음에 별로 안 든다"고 비판했다. 박 후보의 의혹과 관련해선 "엘시티 아파트라는 광고비 비싼 곳에 살지만 그건 능력이 아니냐"라며 "둘 다 별로이긴 해도 1번보단 2번이 낫다"고 설명했다.

수안역에서 만난 시민 이모(56) 씨도 박 후보를 뽑을 거라고 말했다. 이 씨는 오거돈 전 부산시장을 지적하듯 "어떤 사람이 되든 국민을 위해서 해야지 왜 자기들을 위해서 그만 짓을 하고 다니냐"고 비판했다.

김 후보를 지지하는 시민도 있었다. 30년간 부산에서 택시를 몬 남 모

(62) 씨는 "(박 후보가) 까도 까도 나오는 게 계속 있다"며 "땀바닥 민심은 안 그렇다"고 말했다. 박 후보가 유리하다는 판세와 달리 김 후보에게도 희망이 있다는 의미다. 남 씨는 "엘시티 의혹이 나오니 부인과 전남편 사이 아들과 선을 긋고 자기와 상관없는 일이라고 했다"며 "그것이 가장 나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집값이 너무 올라서 그게 변수"라면서도 "박형준은 까도 까도 나오고 김영춘은 까도 까도 없다"고 강조했다.

두 후보 모두 마음에 안 든다는 시민도 있었다. 평생을 부산에서 살아온 최성식(75) 씨는 "생각하는 자체가 후보

들이 다 마음에 안 든다"며 "정치인들 자체가 싫다"고 설명했다. 최 씨는 "정치인은 국가발전을 위해 내가 배우고 얻은 경험을 통해 국민의 의식주를 걱정 안 하게 해야 한다"며 "그런 발상을 가진 사람이 없는 것 같다"고 아쉬워했다.

25년간 택시를 운행한 허 모(54) 씨는 이번에 투표권을 행사하지 않을 거라고 말했다. 허 씨는 "투표하러 가는 그 시간조차 아깝다"며 "그 시간에 후보들을 혼내주러 가고 싶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싸다 같이치워 버려야 한다"며 마땅한 후보가 없다고 토로했다.

부산=박준상 기자 jooon@

北 “도쿄올림픽 불참” 선언

‘한반도 데탕트’ 고심 깊어진 文대통령

(긴장 완화)

회의·결정하였다"고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도쿄 올림픽을 통해 남북뿐 아니라 북·미 간 대화의 동력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표해 왔다. 문 대통령은 3·1절 기념사에서 "도쿄올림픽은 한·일 간, 남북 간, 북·미 간 그리고 북·미 간

대화의 기회가 될 수 있다"며 "한국은 도쿄 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협력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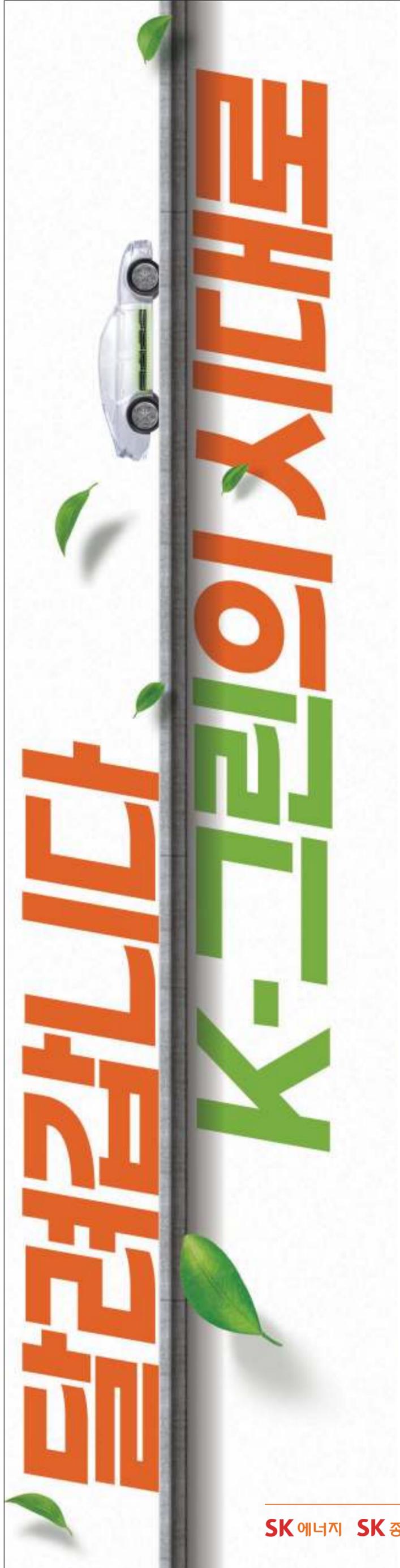
우리 정부는 도쿄 올림픽이 해외 무관중 형태로 이뤄진다고 발표한 직후에도 "정부로서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지속 추진해

나기겠다는 입장"이라면서 "주어진 여건과 상황에 맞게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진전의 계기가 될 방안을 계속 찾겠다"며 올림픽 무대를 기회로 삼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하지만 북한이 올림픽 불참을 결정하면서 남북관계는 마땅한 대화 장구를 찾지 못한 채 표류할 가능성이 커졌다. 정부는 북한의 불참 선언에 다른 배경이 있는지 파악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코로나를 표면적인 이유로 내세웠지만 '숨은 뜻'이 존재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정일환 기자 whan@

북한이 6일 도쿄 올림픽 불참을 선언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남북관계 개선 노력에도 하나의 암초를 만나게 됐다. 7월로 예정된 도쿄 올림픽을 계기로 대화의 물꼬를 틀 수 있을 것이라던 기대가 무너졌기 때문이다.

북한은 '조선체육' 홈페이지를 통해 "북한 올림픽위원회는 총회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의한 세계적인 보건 위기상황으로부터 선수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위원들의 제의에 따라 제32차 올림픽 경기대회에 참가하지 않기로



Hi 2021

극복하겠습니다

다 함께 어려움을 이겨내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힘으로

!Innovation 2021

혁신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을 행복하게 만드는

K 열풍의 주역들처럼

SK이노베이션이 **K-그린** 시대를 열겠습니다

Green Balance 로 완성하겠습니다

Hi SK 이노베이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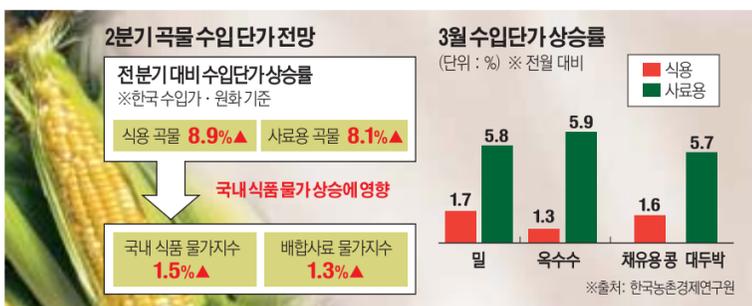
국제 곡물가 급등에 국내 '밥상물가' 비상

2분기 밀·옥수수·콩 수입단가 '썩창'
코로나 봉쇄·공급 감소 등 영향
국내 식품물가지수 전분기보다 1.5%↑

국제 곡물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수입곡물 가격도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수입가격 상승에 따라 국내 식품물가지수도 덩달아 오를 것으로 보인다.

6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본부가 발표한 '국제곡물' 4월에 따르면 2분기 곡물 수입단가는 식용 109.4포인트(한국수입가·원화 기준), 사료용 107.6포인트로 전 분기 대비 각 8.9%와 8.1%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수입곡물 가격 상승은 먼저 지난해부터 이어지고 있는 국제 곡물가격 상승 탓이다. 유엔 식량농업기구(FAO)의 세계식량가격지수는 지난해 6월부터 9개월 연속 오름세를 보이며 2014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이어가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각국의 봉쇄조치와 이에 따른 정부의 비축, 여기에 이상기후에 따른 공급 감소 등이 곡물 가격 상승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지난달 식용 곡물 수입단가는 톤당 밀 282달러, 옥수수 265달러, 채유용 콩 499달러로 전월 대비 각각 1.7%, 1.3%, 1.6% 올랐다. 같은 기간 사료용 곡물 수입단가는 톤당 밀 267달러, 옥수수 247달러, 대두박 440달러로, 각 5.8%, 5.9%,

5.7% 상승했다.

곡물가격 상승의 또 다른 요인은 물류대란이다. 올해 3월 곡물을 실어나르는 벌크선의 운임 변동을 나타내는 발틱 건화물 운임지수(BDI)는 2005포인트로 전월보다 33.7%, 평년보다 148.2% 올랐다. 코로나19가 한창이던 지난해 5월 BDI는 407포인트에 불과했다.

주요 곡물 수출국인 브라질 등 남미에 배가 묶이면서 선박 공급도 부족한 상황이다. 코로나19로 노동력 공급이 원활히 되

지 않아 수확 시기가 늦어졌기 때문이다.

국제 곡물 수입가격이 오르면서 국내 식품 물가도 상승할 전망이다. 2분기 국내 식품 물가지수는 111.7포인트로 전 분기보다 1.5%, 배합사료 물가지수는 108.2포인트로 1.3% 상승하겠다고 농업관측본부는 예측했다.

한편 올해 주요 곡물의 생산량과 소비량은 모두 대체로 지난해보다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대비 생산량과 소비량 예상 증가율은 밀 1.6%와 4.0%, 옥수수 각각 1.4%, 콩 7.2%와 4.3%, 쌀 1.4%와 1.3%다. 2분기 국제 곡물 선물가격지수는 전 분기(137.8)와 비슷한 137.3이 될 것으로 추산됐다.

농업관측본부는 달러화 강세와 겨울작물의 작황 개선은 국제 곡물 선물가격은 낮추는 요인이 되지만, 남미 기상 악화에 따른 수급 차질 우려가 하락 폭을 제한하겠다고 설명했다.

세종=이해곤 기자 pinvol1973@

“美 무역확장법 232조 개정논의 지지 환영”

허창수 전경련 회장, 美상원에 서한



특정 수입 품목에 대해 수입량 등을 규제할 수 있도록 한 미국 무역확장법을 개정하는 법안이나오자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지지한다는 뜻을 내놨다.

전경련은 6일 무역보안법을 대표 발의한 릭 포터먼·다이앤 파인스타인 상원의원 등에게 서한을 보내 환영 의사를 전했다고 밝혔다.

허창수(사진) 전경련 회장은 서한에서 “미국과 굳건한 경제동맹국들은 미 무역확장법 232조가 세계의 기업과 소비자들에게 엄청난 손실을 미치는 것을 보아 왔다”며 “이 시점에서 개정안을 마련한 미 의회의 노력이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했다.

무역보안법은 무역확장법 232조를 개정하는 내용이다.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르면 국가 안보에 위해가 된다고 판단될 경우 대통령이 수입량 제한, 관세 부과 등을 할 수 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이 조항을 근거로 철강과 알루미늄 수입제에 관해 수입 규제 행정명령을 내리기도 했다.

무역보안법은 국가 안보에 위협이 있는지를 상무부가 아닌 국방부가 판단하도록 했다. 또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할 때에는 국방부 조사 단계와 상무부 무역 규제 단계로 나눠 담당기관을 이원화한다. 원유에만 해당하는 의회의 불복 의결 품목을 전반적으로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허 회장은 “앞으로 무역보안법이 통과돼 232조의 적용에 있어 예측 가능하고 합리적인 과정이 마련되리라 기대해 본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오하이오주와 캘리포니아주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이 미국 경제 발전에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김대영 기자 kdy@

“현장 목소리 듣는다” 경제계 소통 나선 靑

상의·중기중앙회 등 릴레이 면담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이 7일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을 만나는 것을 시작으로 경영자총협회, 무역협회 등 경제단체와 연쇄 면담을 한다.

청와대 강민석 대변인은 6일 오후 브리핑을 열고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 지시에 따라 내일부터 경제계 대화·소통을 순차적으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상공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등과 환담을 하면서 “경제부처, 정책실장, 비서실장 모두 기업인들과 활발하게 만나서 대화하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고 말한 바 있다.

이어 1일 내부 참모회의에서도 “과거 밀실에서 음습하게 정경유착 수단으로 만나는 것이 잘못이지, 만남 자체를 금지시킬 필요가 없다. 밀실 말고 당당히 공개적으로 소통을 활성화해 달라”며 “이 어려운 상황에 정부 당국과 청와대 정책실장, 비서실장 등이 경제계 인사들을 만나 고충을 들어주고 해결하고 기업활동을 뒷받침하는 것은 당연한 책무”라고 당부했다.

이에 따라 이호승 정책실장은 7일 대한상의와 중소기업중앙회를 방문해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을 만난다. 이어 8일에는 경영자총협회와 중견기업연합회, 14일에는 한국무역협회를 찾아가 경제계 목소리를 들을 예정이다.

강 대변인은 “의제는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민관 협력방안이 될 것”이라며 “한국판 뉴딜이나 탄소중립 이행 문제에서부터 규제 완화까지 다양한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청와대는 관이 주도하는 행사를 지양하고 경제단체를 직접 찾아가서 생생한 현장 목소리를 듣는 소통방식을 택했다. 단일한 경제수석과 이호준 산업정책비서관도 동행한다”며 “청와대는 경제단체 간담회의 초청이 있을 때 적극적으로 참가해 소통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면담 대상에 전국경제인연합회가 포함되지 않은 데 대해 “(다른 경제단체와) 많이 중복되는 것으로 안다. 필요하다면 소통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정일환 기자 whan@



코로나 검사 기다리는 고등학생들 6일 대구 시내 한 고등학교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가운데 전교생이 코로나19 검사를 받기 위해 운동장에서 거리두기를 하며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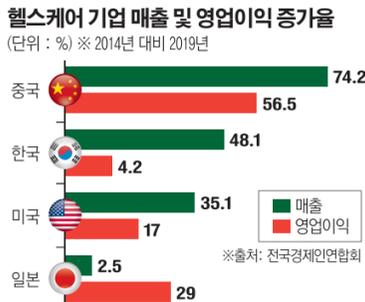
몸집 커진 韓 헬스케어 기업 ‘속빈 강정’

5년간 매출 48% 늘어날 때
영업이익 증가율 4.2% 그쳐
‘영세한 기업 규모’가 원인

헬스케어 기업들이 5년 전보다 매출이 절반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한 자릿수 증가율에 그쳤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6일 한·미·중·일 4개국 헬스케어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최근 5년간 매출액을 조사해 발표했다. 전경련에 따르면 기업 1곳당 2014년 대비 2019년 평균 매출액 증가율은 중국이 74.2%로 가장 높았다. 중국 헬스케어 기업 1개사 평균 매출액은 같은 기간 4163억 원에서 7250억9300만 원으로 올랐다.

한국은 988억8100만 원에서 1464억5000만 원으로 48.1% 늘었다. 미국은 6조8651억7400만 원에서 9조2741억5100만 원으로 35.1% 증가했다. 일본은 1조4976



억1300만 원에서 1조5347억7000만 원으로 2.5% 늘어나는 데 그쳤다.

하지만 영업이익 증가율 결과는 달랐다. 중국 헬스케어 기업 1곳당 영업이익은 이전(430억3300만 원)보다 56.5% 증가한 673억6300만 원이었다.

일본(1450억7100만 원)과 미국(8139억5000만 원)은 이전보다 각각 29.0%, 17.0%씩 늘었다.

한국은 69억8100만 원에서 72억7500만 원으로 한 자릿수인 4.2% 증가 폭을 기록했다.

한국은 순이익 증가율도 낮았다. 일본은 최근 5년 동안 기업 1곳당 평균 순이익 증가율이 56.8%로 가장 높았다. 이어 미국 28.8%, 중국과 한국이 17.7%를 각각 기록했다.

다만 한국 헬스케어 기업의 1곳당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 투자 비중 증가율은 가장 앞섰다. 한국은 연구개발 투자 비중이 2014년 5.1%에서 2019년 7.1%로 늘어났다. 중국은 0.8%포인트, 일본은 0.2%포인트 증가했고 미국은 0.5%포인트 줄었다.

전경련은 한국 헬스케어 기업 1곳당 평균 규모는 4개국 가운데 가장 영세하다고 분석했다.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 연구개발 투자액 모두 최저 수준을 보였기 때문이다.

김봉만 전경련 국제협력실장은 “헬스케어 기업들이 최근 외형을 키웠다지만 글로벌 기준에서는 한참 뒤지는 수준이며, 특히 고부가가치 제품 개발 등 수익성 제고를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대영 기자 kdy@

중견기업·이스라엘 벤처 글로벌 신사업 진출 맞손

중견기업·요즈마그룹 MOU

국내 중견기업과 이스라엘 벤처기업이 손을 잡고 신사업·신시장 진출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6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련), 이스라엘 벤처캐피탈 요즈마그룹과 함께 한-이스라엘 비즈니스 협력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성윤모 산업부 장관 임석 하에 중견련과 요즈마그룹이 ‘중견기업 신성장동력 발굴과 해외 진출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제조 역량이 우수한 국내 중견기업과 신산업 분야 원천기술을 보유한 이스라엘 벤처기업을 연결해 성장동력을 발굴하고 글로벌 시장 진출을 꾀하는 것이 이번 협약의 취지다.

협약에 따라 요즈마그룹은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해 중견기업 관심 분야의 투자 대상 기업 발굴 및 기술협력, 카이스트(KAIST)·와이즈만연구소 등 국내외 연구기관과의 협업, 투자를 위한 펀드 조성 등을 지원한다.

이날 다수 중견기업인이 출자해 요즈마코리아와 중견기업 벤처캐피탈 ATU파트너스가 공동 운영하는 ‘한-이스라엘 중견기업 성장펀드’의 결성식도 진행됐다. 성윤모 장관은 “이스라엘은 반도체, 바이오, 첨단소재, 인공지능(AI) 등 하이테크 산업을 보유한 세계가 인정하는 혁신 강국”이라며 “이번 업무협약 체결은 코로나19로 경제의 패러다임이 급변하는 시기에 미래를 위한 새로운 도전을 시도한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깊다”고 말했다.

세종=서병곤 기자 sbg1219@

(미국 재무장관)

“기업들美떠날라” 각국에 법인세 인상 압박하는 옐런

“재원확보·경제성장 촉진 위해”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 설정 촉구
민주당 내서도 ‘증세 반발’ 우려



그러나 그동안 법인세 대폭 인하 경쟁을 부추긴 것은 바로 미국이었다. 도널드 트럼프 전 정권 시절 미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낮은

35% 세율을 현 수준으로 낮췄다. 현재 OECD에서 미국 법인세율은 13번째로 높다. 한편 미국 조세재단에 따르면 주요 7개국(G7) 평균 법인세율은 24%다.

미국 내에서도 증세에 대한 반발이 강하다. 자국 다국적 기업들이 자칫 경쟁력을 잃을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공화당 뿐만 아니라 바이든 행정부의 법안 처리에 중요한 역할을 맡은 민주당 내에서도 반대의 목소리가 나온다.

이날 중도 성향의 조 맨친 민주당 상원의원은 지역구인 웨스트버지니아주의 한 라디오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법인세율은 28%보다는 25% 수준이 적당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맨친 의원은 “바이든 행정부의 법인세 계획은 너무 공격적”이라며 “세율 이외 다른 부분들도 수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본적으로 법안은 이대로 통과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이렇게 생각하는 의원이 민주당에 6~7명 정도 있다”고 덧붙였다.

옐런 장관이 G20과 협의의 중이라고 밝혔지만, 이 역시 회의적인 시각이 공존한다. CNN은 이미 OECD가 지난 몇 년 관련 사안을 논의했지만, 성과는 전혀 없었다고 지적했다. 또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 도입 시도가 다른 나라 주권을 침해할 우려도 있다고 꼬집었다.

이날 다우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373.98포인트(1.13%) 상승한 3만 3527.19에, S&P500지수는 58.04포인트(1.44%) 뛴 4077.91에 마감하며 사상 최고치 기록을 다시 썼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지수는 225.49포인트(1.67%) 오른 1만3705.59에 거래를 마쳤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2조 달러(약 2247조 원)가 넘는 초대형 인프라 계획 재원을 증세로 마련하겠다는 방침을 추진하면서 세계 각국에도 증세를 압박하고 있다. 법인세를 끌어올려 각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바닥난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는 설명이지만, 이면에는 해외로 빠져나가는 자국 기업을 막기 위한 노력이 담겼다.

5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재닛 옐런(사진) 미국 재무장관은 이날 시카고국제문제협의회(CCGA) 연설에서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 도입을 촉구했다.

옐런 장관은 “우리는 다 함께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을 도입해 수준 높은 경쟁을 기반으로 전 세계 경제의 혁신과 성장을 촉진시킬 수 있다”며 “현재 주요 20개국(G20)과 법인세율 바닥 경쟁을 멈추기 위한 협의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이는 정부가 필수 공공재에 투자하고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충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며 “모든 국민이 정부 재원 마련에 따른 부담을 공정하게 질 수 있도록 안정적인 조세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바이든 행정부는 인프라 투자 계획을 발표하면서 법인세율을 21%에서 28%로 올리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자국 기업의 해외 소득에 부과하는 세율도 기존의 10.5%에서 최소 21%로 높이는 방안도 제시했다.

이 경우 미국 기업들이 절세를 위해 줄 줄이 해외로 빠져나가면서 일자리도 줄어들 위험이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미국이 아예 전 세계적으로 법인세율 하한 기준 설정에 나선 것이다.



나이지리아판 ‘프리즌 브레이크’ 아프리카 나이지리아 오웨리에 한 교정시설이 5일(현지시간) 무장괴한의 습격을 받은 가운데 시설 밖에 주차된 차들이 폭발로 인해 불에 타고 나서 양상한 모습으로 있다. 이날 오전 소총, 기관총 등 개인화기를 비롯해 폭발물, 로켓추진수류탄(RPG)으로 무장한 괴한들이 버스와 픽업트럭을 타고 교정시설을 습격했으며 이 과정에서 수감자 1844명이 탈옥해 자취를 감췄다. 무함마두 부하리 나이지리아 대통령은 이번 사건을 ‘무정부주의 테러’로 규정하고 정부군에 괴한들과 탈옥수 체포를 명령했다. 오웨리/AP연합뉴스

美증시, 경제지표 호전에 급등 기술株 환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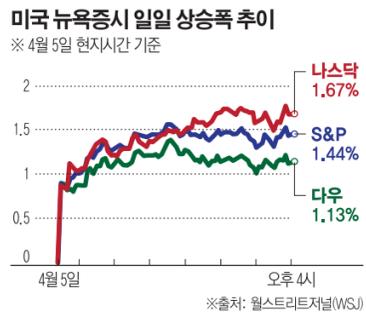
고용지표 호조·서비스업 PMI 최고치 ‘페북·MS·알파벳’ 등 대장주 신고가

부활절 연휴를 마치고 5일(현지시간) 문을 연 미국증시가 각종 신고식을 쏟아냈다. 경기 회복이 가속화하고 있다는 신호가 곳곳에서 나오면서 투자심리가 개선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이날 다우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373.98포인트(1.13%) 상승한 3만 3527.19에, S&P500지수는 58.04포인트(1.44%) 뛴 4077.91에 마감하며 사상 최고치 기록을 다시 썼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지수는 225.49포인트(1.67%) 오른 1만3705.59에 거래를 마쳤다.

그동안 미국 장기 국채금리 상승 여파에 부진했던 기술주는 이날 강세를 보이며 전체 주가 상승을 견인했다. 페이스북과 마이크로소프트(MS), 구글 모회사 알파벳 등 대형 기술주 주가가 일제히 사상 최고치 기록을 갈아치웠다. 페이스북은 지난주 이용자 5억330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는 악재에도 주가는 우상향을 그렸고, 알파벳은 구글이 자바 프로그래밍 언어의 지식재산권을 둘러싼 오라클과의 소송에서 승소한 것이 호재로 작용했다.

기술주뿐만이 아니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이날 S&P500지수의



11개 업종 중 유가 급락 영향을 받은 에너지업종을 제외한 10개 업종이 모두 상승세로 거래를 마감했다. 노르웨이항공(2.5%)과 같은 여행주도 모처럼 강세를 보였다.

이처럼 시장에 전반적인 훈풍이 분 것은 조 바이든 행정부의 경기 부양책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확대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경제지표 ‘깜짝 호조’가 더해진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부활절 연휴 직전인 2일 노동부는 지난달 비농업 신규 고용자 수가 91만6000명 급증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8월(150만 명) 이후 최대 증가폭이며 시장 전망치(66만 명 증가)도

크게 웃도는 것이다.

이날 발표된 전미공급관리협회(ISM)의 3월 비제조업(서비스업) 구매관리자지수(PMI)는 63.7로 전월(55.3)보다 큰 폭으로 오르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경기 확장 기준인 50을 훌쩍 넘는 것은 물론 블룸버그가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 59.0도 웃돌았다. 그동안 시장 불안의 중심에 있던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도 2일의 1.721%에서 이날 1.718%로 하락하며 증시 상승에 힘을 보탰다.

캐니코트제뉴이티의 토니 드위어 최고 시장전략가는 CNBC에 “V자 형태의 회복세가 나타나고 있다”며 “이를 방해할 수 있는 유일한 요소는 코로나19와 관련한 새로운 경제 재봉쇄 또는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정책 실수 정도가 될 것인데 현재 그러한 상황은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진단했다.

다만 여전히 인플레이션 우려는 시장의 변수로 남아있다. 일각에서는 예상보다 빠른 경제 회복과 정부의 대규모 부양책으로 인플레이션이 촉발돼 연준이 자산 매입의 점진적 축소(테이퍼링)에 나설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김나은 기자 better68@

구글, 오라클과의 10년 분쟁 승리 美 대법원 “자바 사용은 공정 이용”

구글이 프로그래밍 언어 ‘자바’를 둘러싼 오라클과의 10년 분쟁에서 최종 승리를 거뒀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5일(현지시간) 지식재산권 침해로 이유로 오라클이 구글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6대 2로 구글에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정치 전문매체 더힐이 보도했다.

대법원은 구글이 플랫폼 개발 과정에서 오라클의 자바 언어를 사용한 것이 ‘공정 이용(fair use)’에 속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구글은 1만1500줄 코드를 자바 언어를 통해 만들었지만, 그 사용량이 미미하며 구글 프로그래머들이 혁신적인 앱을 개발하기 위해 자바를 간접적으로 활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스티븐 브라이어 대법관은 “구글은 새롭고 혁신적인 프로그램에 자사의 축적된 재능을 녹일 수 있도록 자바의 필요한 부분만 취했다”며 “이에 구글이 자바를 활용한 것은 공정이용이라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말했다.

다만 판결 소수 의견 중에는 과거 컴퓨터 코드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해 의회가 제정한 저작권법과 구글의 행동이 상충한다는 점이 언급되기도 했다.

앞서 구글은 2008년 제공하기 시작한 모바일 운영체제(OS) 안드로이드를 개발하기 위해 자바 코드 일부를 오라클 승낙

없이 통합했다. 오라클은 2010년 자바를 개발한 선마이크로시스템스를 인수하고 나서 구글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최소 90억 달러(약 10조1100억 원)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은 크게 자바 코드가 저작권 대상인지와 라이선스 계약 없이 자바 코드를 사용한 구글이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지 등 두 가지를 놓고 진행됐다. 첫 번째 안전에 대해서 법원은 2014년 오라클의 손을 들어줬다. 뒤이어 두 번째 안전에 대해 재판이 열려 1심에서는 구글이 이겼지만 2심은 오라클이 승소했다. 결국 이날 대법원이 다시 구글 손을 들어주면서 10년 넘게 걸린 소송전이 마침내 끝나게 됐다. 구글은 이날 패배했다면 최대 300억 달러까지 늘어난 손해배상액을 물어야 했지만 극적으로 이를 피할 수 있게 됐다.

한편 구글은 이날 재판과는 별개로 다음 달부터 오라클 대신 독일 SAP 제품을 자사 재무 소프트웨어로 쓰기로 했다. 미국 CNBC방송은 “구글과 오라클이 클라우드 컴퓨팅 시장에서 점점 더 치열하게 경쟁하면서 이런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며 “클라우드 리더인 아마존닷컴도 오라클 사용을 크게 줄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고대영 기자 kodae0@

“애플 게 샀거라” 가상화폐 시총 2조 달러 돌파

가상화폐 시장의 시가총액이 비트코인 가격 상승세에 힘입어 사상 처음으로 2조 달러(2257조 원)를 돌파했다고 뉴스위크가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올해 1월 초 1조 달러를 돌파한 지 3개월 만에 시가총액이 2배가 불어난 것이다.

가상화폐 데이터업체 코인게코가 발표한 데이터에 따르면 이날 기준 한때 가상화폐 시장의 시가총액이 2조200억 달러를 기록했다. 사실상 이날 애플의 시가총액(2조1140억 달러)를 바짝 추격하고 있는 셈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가상화폐 대장주인 비트코인의 시총이 1조1000억 달러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면서 시장 성장을 견인하고 있다. 2위 가상화폐 이더리움도 시총 2440억 달러를 기록하며 그 뒤를 이었다.

비트코인의 경우 최근 개당 6만1000 달러로 신고점을 찍은 뒤 6만 달러 선을 내렸



으나, 올해 들어서만 2배 가까이 오른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올해 1월 7일 3만3000달러였던 비트코인의 가격은 이날 5만8800달러대를 나타냈다.

뉴스위크는 최근 개인 투자자는 물론 기관 투자자들이 가상화폐 시장을 주목하면서 매수에 나선 것이 가격 상승세로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전기자동차 업체 테슬라를 시작으로 모건스탠리, 마스터카드, 페이팔 등 주요기업들이 잇따라 비트

코인을 수용하기 시작했고 월가에서는 비트코인 관련 금융상품을 준비하고 있다. 미국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는 이달 14일 증시 상장을 앞두고 있다.

최근 이러한 급등세에도 시장 성장세에 낙관하는 목소리는 여전히 크다. 블룸버그는 이날 오전 트윗을 통해 “가상화폐 시총이 2조 달러를 넘었다”면서 “앞으로 곧 5조 달러 시대가 올 것”이라고 밝혔다. 코인텔레그래프는 비트코인의 변동성이 지난해 11월 이후 최저수준으로 떨어졌다고 전했다.

국내에서 ‘돈 나무 언니’로 불리는 캐시우드 아르카인베스트 최고경영자(CEO)는 이날 더타임스오브런던과의 인터뷰에서 “비트코인이 금 시총(약 10조 달러)을 무난하게 넘길 것”이라고 밝혔다.

김나은 기자 better6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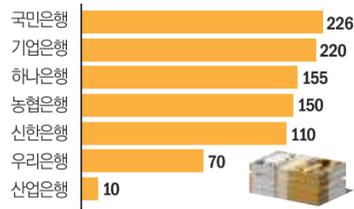
‘원금보장’ 정책형 뉴딜펀드 7일 만에 1460억어치 완판

투자손실 21.5%까지 보전 입소문
온라인 구매 10명 중 7명 ‘2030’
산은, 자펀드 결성 뉴딜기업 육성

국민 정책 참여형 뉴딜펀드가 일주일 만에 완판됐다. 이 펀드는 사실상 ‘원금보장형 상품’이라는 입소문을 타고 판매 첫날부터 여러 판매처에서 완판됐다. 한국산업은행은 펀드 운용 과정을 지켜보며 사후관리에 집중하겠다는 계획이다.

금융투자협회와 정책형 뉴딜펀드 주관 기관(산은, 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은 지난달 29일부터 판매된 국민 참여 뉴딜펀드 1460억 원어치가 모두 소진됐다고 5일 밝혔다. 영업일 기준 7일 만이다. 다만 펀드 판매 기간은 16일까지로 이 기간 안에 가입 취소 물량이 나올 경우 가입할 수 있다. 국민 참여 뉴딜펀드는 정책형 뉴딜펀드로 총 2000억 원 규모다. 사모펀드인 자펀드 10개의 수익증권에 투자해 수익을 내는 ‘사모투자 재간접공모펀드’ 방식으로 운용된다. 이 자펀드는 국내에 상장·비상장 뉴딜 관련 기업에 분산해 투자한다. 국민 참여 뉴딜펀드는 IBK기업은행, KB국민은행, KDB산업은행, NH농협은행, 신한

국민 정책 참여형 뉴딜펀드 은행별 판매 규모 (단위: 억 원)



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IBK투자증권, KB증권, 신한금융투자, 유안타증권, 하나금융투자, 한국투자증권, 한화투자증권 한국포스증권 등 총 15개의 은행과 증권사에서 판매됐다.

뉴딜펀드는 판매 첫날부터 인기를 끌었다. 지난달 29일 한국투자증권과 유안타증권, 하나금융투자는 할당받은 140억 원의 물량을 모두 소진했다. 신한금융투자 역시 첫날 70%까지 소화했다. 은행권에서는 1일 줄줄이 완판됐다. 은행별로 배정된 물량은 △국민은행 226억 원 △기업은행 220억 원 △하나은행 155억 원 △농협은행 150억 원 △신한은행 110억 원 △우리은행 70억 원 △산은 10억 원이었다.

만기 4년 폐쇄형 구조로 중도 환매가 불가능한 구조지만 사실상 원금보장형 상품

이라는 점이 투자자에게 매력적으로 작용했다. 정책형 뉴딜펀드의 일반 투자자의 모집 규모는 1370억 원으로 이는 선순위로 투자된다. 정부 재정은 선순위 200억 원과 후순위 400억 원으로 나눠 투자되고 운용사는 30억 원 후순위로 투자한다. 이때문에 투자자는 21.5%까지 손실이 나도 원금을 보장받을 수 있다. 그 이상 손실이 날 경우에만 투자자 손실로 이어진다. 수익률이 20%를 넘어서면 초과 수익분은 일반 투자자와 후순위 투자자가 4:6의 비율로 나눠 갖는다.

정책형 뉴딜펀드는 2030세대에서도 인기를 끌었다. 뉴딜펀드를 온라인으로 판매한 한국포스증권에 따르면 뉴딜펀드 가입자 800명 중 30대가 63.9%, 40대 17.48%, 20대가 8.3%인 것으로 나타났다. 통상 4050이 가입자의 주축이었던 여타 펀드와 비교하면 국민 참여 정책형 뉴딜펀드는 젊은 세대들이 많이 찾은 것이다.

산은은 국민 참여 뉴딜펀드의 자펀드를 결성해 뉴딜 기업에 대한 투자를 속도감 있게 추진할 방침이다. 자펀드 운용사는 성장 잠재력이 높은 뉴딜 분야 우수 기업의 발굴과 투자에 주력할 계획이다.

문수빈 기자 bean@



SC제일은행, 포스코 ESG 파생상품 계약 SC제일은행은 포스코건설이 체결한 1억 유로 상당의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연계 파생상품 계약의 주 계약자로 참여했다고 6일 밝혔다. ESG 연계 파생상품 계약은 포스코가 지난해 수주한 폴란드 바르샤바 소각로 프로젝트와 관련된 선물환 거래에 인센티브 부여 조건으로 포스코의 ESG 활동 목표(온실가스 절감)를 추가한 것이다. 5일 업무협약식에 참석한 박종복(오른쪽) SC제일은행장과 한성희 포스코건설 사장. 사진제공 SC제일은행

M&A로 덩치 키운 금융지주 지난해 자산 317.7조 늘어

10개 지주사 12% 증가해 2946조

금융지주사가 지난해 인수합병(M&A) 등을 통해 덩치를 키우며 300조 원 넘게 자산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KB, 신한, 농협, 하나, 우리, BNK, DGB, JB, 한투, 메리츠 등 10개 금융지주의 연결총자산은 2946조3000억 원으로 전년 말 대비 317조7000억 원(12.1%) 증가했다.

자회사 권역별로는 은행이 196조3000억 원(9.9%) 증가했고, 금융투자는 53조9000억 원(21.1%), 보험은 40조4000억 원(18.2%), 여전사 등은 28조4000억 원(19.5%) 증가했다.

자회사 권역별 자산 비중은 은행이 74.0%로 가장 높았으나, 전년 말보다 1.47%포인트(p)했다. 반면, 같은 기간 금융투자는 10.5%로 0.78%p 상승했으며, 보험은 8.9%로 0.46%p 증가했다. 여전사 등도 5.9%로 0.37%p 비중을 확대했다.

작년 말 기준 금융지주의 자회사 등 소속회사는 264개사로 전년 대비 21개 증가

했다. KB에서 푸르덴셜생명 등을 편입하며 12개가 늘었으며, 우리는 아주캐피탈 등 2개사를 편입했다. 하나는 더케이손해보험을 편입했고, 신한은 네오플렉스 등 7개사를 늘렸다.

점포수는 전년 말보다 705개 증가한 9325개로 집계됐다. KB가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등의 해외법인을 편입하며 늘어난 것으로, 8개 은행지주의 국내점포는 오히려 2019년 말 7210개에서 2020년 말 7051개로 159개 감소했다.

임직원 수도 전년 말 대비 2만1177명(13.7%) 늘어난 17만5319명이었다.

금융지주의 연결당기순이익은 15조1184억 원으로 전년 대비 1154억 원(△0.8%) 감소했다.

자회사 권역별로는 은행이 대손충당금 전입 확대, 사모펀드 관련 비용 등으로 1조2020억 원(△10.4%) 줄었다.

금융투자는 증시활황에 따른 수수료수익 증가 등으로 2325억 원(7.6%), 보험은 3555억 원(35.4%), 여전사 등은 4569억 원(23.2%) 증가했다. 김유진 기자 eugene@

금융지주 ‘인터넷은행 설립’ 하반기 결론

수요 취합 금융위 전달하기로
‘비대면 서비스’ 역량 한계 판단
전 지분 보유한 자회사안 구상

금융지주사가 직접 인터넷은행을 설립, 운영하는 방안이 올 하반기 논의된다. 비대면 서비스가 중요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분투자 형식의 간접 투자 대신 100% 지분을 보유한 형태로 직접 인터넷은행을 설립, 운영하겠다는 구상이다.

6일 금융 업계에 따르면 은행연합회는 올해 2월초~3월초 금융지주를 대상으로 인터넷은행 설립에 대한 수요조사를 진행했다.

조사결과 상당수 금융지주는 100% 지분을 보유한 인터넷은행 자회사를 설립하고 싶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은행 연은 이같은 금융지주의 의견을 취합해

조만간 금융당국에 전달할 예정이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결과보고서가 정리되는 대로 금융위에 제출한 뒤 금융지주가 독자적으로 인터넷은행을 설립하는 방안 금융위와 공식 협의에 들어갈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은행연으로부터 공식 입장을 전달받으면 하반기 중 관련 내용을 본격적으로 검토해보겠다는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7월에 진행할 은행 경쟁도 평가가 끝난 뒤 이 결과를 바탕으로 인터넷은행 추가 인가와 금융지주 회사 인터넷은행 설립 허용 문제를 논의해 보겠다”고 말했다.

또 7월 제3 인터넷은행인 토스뱅크 출범을 앞두고 있는 만큼 인허가 작업을 마무리한 뒤 살펴보겠다는 의중도 깔려있다.

이처럼 금융지주사들이 독자적인 인터넷은행 설립을 서두르는 이유는 경쟁

력 강화 때문이다. 비대면 서비스가 중요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카카오뱅크 같은 인터넷은행과의 경쟁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인터넷은행에만 관대한 이른바 ‘기술어진 운동장’에서는 전통적인 은행의 역량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현재 국내 인터넷은행에 지분을 투자한 곳은 KB국민은행(카카오뱅크), 우리은행(케이뱅크), SC제일은행(토스뱅크) 등이다.

한편, 올해 하반기부터 인터넷전문은행 시장에 토스뱅크가 영업을 시작하면서 본격적인 3파전 구도가 형성된다. 기존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는 시중은행과 차별화 전략을 앞세워 성장세를 지속할 방침이다. 올 초 기준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 가입자 수는 각각 1360만 명, 220만 명 수준이다.

김범근 기자 nova@

은성수 금융위원장 “금소법, 보험산업 성장 계기될 것”

보험사 대표와 간담회

은성수(사진) 금융위원장은 “금융소비자법 시행으로 소비자보호 강화가 단계적으로 보험회사에 부담이 될 수도 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보험산업이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함으로써 한단계 더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6일 밝혔다.

은 위원장은 이날 보험회사 대표들과 간담회를 열고 금소법의 조기안착 방안과 주요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현재 정부는 지난 3월 말부터 금소법 애로사항 신속처리 시스템을 가동 중이다. 각 금융협회 전담장구와 현장소통반을 통해 접수된 질의나 건의사항은 5일 이내 회신하고 주요질의를 온라인에 공개 예정이다.



은 위원장은 “보험은 약관이 어렵고, 민원, 보험사기 등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보험회사의 각별한 노력과 세심한 관리가 중요하다”며 “정부도 업계와 소통을 더욱 강화하여 새로운 제도들이 현장에 원활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보험산업은 늘 국민 가까이에서 평온한 일상을 돕고, 우리 자본시장과 실물경제의 성장을 뒷받침하고 있다”며 “가족마다 1~2개의 보험 상품이 가입하고 있을 만큼 친숙하며 실손보험, 자동차 보험

에서 보듯이 국민의 일상과 매우 밀접하다”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6개월간 계도기간을 운영하면서 법규준수에 애로가 없도록 구체적인 지침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업계와 함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며 “광고심의, 핵심설명서, 표준내부통제기준 등 분야별로 금융당국과 업계 공동으로 전담 TF를 꾸려 속도감 있게 마련할 예정이며 마무리 되는대로 신속하게 공유·전파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그는 “보험사는 장기 안정적인 기관투자자로 증시의 안전판 역할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 역할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곽진산 기자 jinsan@

기업銀, 휴·폐업 소상공인 초저금리 대출 만기 연장

작년 27만개 기업 7.8조 지원

IBK기업은행은 신용보증재단중앙회와 협력해 소상공인 초저금리 특별 대출의 기간을 연장한다고 5일 밝혔다.

소상공인 초저금리 특별 대출은 코로나19 피해기업 지원을 목적으로 지난해 지원된 지역 신용보증재단 보증서 담보 대출이다. 기업은행은 지난해 약 27만 개 기업에 7조8000억 원의 운전자금을 지원했다.

기간연장 대상은 정상적으로 원리금을 상환 중이고, 신용보증서와 등 불량 정보

를 보유하지 않은 개인사업자다. 지역 신보에 재창업 계획 약정서를 제출해 보증서 만기 연장 후 영업점을 방문하면 대출 기간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기업은행은 휴업 또는 폐업 중인 1만 개의 기업이 수혜를 볼 것으로 전망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초저금리 특별 대출 외 지역 신보의 보증서를 담보로 한 개인사업자 대출 모두가 지원 대상”이라며 “중기 지원 전문 국책은행으로서 코로나19 피해 기업 지원을 위한 정부 정책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문수빈 기자 bean@

김유진 기자 eugene@



KT는 AI로 교통을 제어하는 C-ITS 서비스로
 1분 1초가 위급한 상황 속에서
 골든타임을 지키고 소중한 생명을 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적의도로로 도시를 바꾸다



구급요원 아저씨, 감사합니다!

KT-C-ITS의 긴급차량우선신호서비스는 빠른 이동이 필수적인 긴급차량에 우선신호를 부여하여 혼잡시 소요시간을 줄여줍니다.
 제주도에서 구급차이동시간을 2분 3초 단축하는 데에 성공하였으며, 전국 보급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문의전화 : 1588-0114

<모바일 커뮤니케이션>

LG 계열사 'MC 사업부 인재 모시기' 후끈

휴대폰 철수 인력 재배치 돌입
실리콘웍스 등 줄이어 설명회
6지망까지 희망 회사 의견 수렴
지방 발령 등 인력 이탈 불가피

**LG MC사업본부 인력 재배치 관련
계열사 설명회 일정**

날짜	계열사명	사업분야
6일 오후 2시	실리콘웍스	반도체 설계
7일 오전 10시	LG디스플레이	OLED 디스플레이
8일 오전 10시	LG에너지솔루션	전기차 배터리

리온웍스가 LX그룹으로 계열분리된다는 점에서 이동에 부담을 느낄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LG 계열의 유일한 반도체 회사인 실리콘웍스는 최근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실적이 급상승하고 있다. 특히 LX그룹을 이끄는 구본준 고문이 실리콘웍스를 통해 시스템반도체 사업을 확대할 것이라 전망도 꾸준히 나오고 있다.

지난해 매출 1조1618억 원, 영업이익 942억 원을 기록했다. 전년보다 매출 33.9%, 영업이익은 99.4% 급증했다. 매출 1조 원 돌파는 창사 이래 처음이다.

실리콘웍스는 스마트폰과 TV 등에 들

어가는 DDI(디스플레이 구동칩)가 주력 사업이다. 2019년엔 매출 기준 DDI시장 세계 3위를 기록했다. 중장기적으로도 4차 산업혁명,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시스템반도체 수요는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실리콘웍스 설명회 다음날인 7일에는 LG디스플레이, 8일에는 LG에너지솔루션에 대한 설명회가 있을 예정이다.

LG디스플레이는 OLED(유기발광다이오드)를 중심으로 한 LG그룹의 미래 성장 동력 사업 한 축을 담당하는 회사다. 차량용 디스플레이 대형화와 함께 차량 내

OLED 적용이 늘어나면서 완성차 업체들의 수요도 늘었다.

LG화학에서 분사한 LG에너지솔루션은 미래 먹거리 중 하나인 전기차 배터리 사업을 하고 있다.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1위 기업으로 성장했으며, 급성장하는 전기차 시장에 맞춰 생산능력을 확대하고 있다. LG에너지솔루션은 2024년 매출 30조 원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LG전자 MC 사업본부 R&D 인력 250명과 사무직 350명 등 600여 명은 LG에너지솔루션으로 우선 이동할 예정이다.

LG전자는 최종적으로 5월 중순까지 직원들에게 희망 회사를 6지망까지 받고 결정되지 않은 인력에 대해선 26일 이후 LG전자 내에 배정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인력 재배치 과정에서 일부 인력이 탈은 불가피해 보인다. 내부 직원들 사이에선 창원 발령 등 지방으로 근무지를 옮길 가능성도 나오면서 가족과 떨어져야 하는 등 근무지 배치에 대한 불안감도 큰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혹은 유망 계열사 등으로 희망 근무지가 쏠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송영록 기자 syr@

백종훈 금호석화 부사장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

백종훈(사진) 금호석유화학 부사장이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됐다. 금호석유화학 이사회 내 위원회들은 사외이사를 중심으로 꾸려졌다.

금호석유화학은 6일 이사회를 열고 백종훈 부사장을 대표이사로 선임했다. 백신임 대표이사는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로 선출됐다.

백신임 대표이사는 부산대 화학공학과를 나와 서강대 MBA를 수료한 뒤 1988년 금호석유화학에 입사했다. 이후 금호피앤비화학 영업팀장과 영업담당 상무를 거쳐 금호석유화학 영업본부장(전무)을 지냈다.

앞서 금호석유화학 이사회는 백신임 대표이사가 재직할 때부터 자사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개선됐다면 사내이사로 추천한 바 있다.

이사회 내 위원회는 사외이사를 중심으로 구성된다. 주총을 통해 새롭게 설치하기로 한 내부거래위원회와 보상위원회는 위원 전원이 사외이사로 꾸려진다. ESG(환경·사회·지배구조)위원회는 위원 3분의 2 이상을 사외이사로 구성한다.

각 위원회 위원장도 사외이사가 맡는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황익석 사외이사가 감사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됐다. 이정미 사외이사는 내부거래위원회 위원장, 박순애 사외이사는 ESG위원회 위원장, 이재경 사외이사는 보상위원회 위원장을 맡는다.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회장은 "각계에서 풍부한 경험을 가진 이사진이 금호석유화학의 경영 효율성과 투명성 및 주주와 이해관계자의 권익을 높이는 데 힘써 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김대영 기자 kdy@



SK "10년 특허소 승리" vs "아전인수 해석" LG

美대통령 거부권 시한 앞두고 '배터리 설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거부권 시한(현지시간 11일)을 5일 앞두고 SK이노베이션과 LG에너지솔루션이 다시 한번 '설전'을 벌였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서 진행 중인 특허 소송에서 최근 일차적으로 유리한 고지에 오른 SK이노베이션이 6일 오전 입장문을 발표하며 "10년간의 특허 소송에서 사실상 승리했다"며 선공했다.

SK이노베이션은 "LG가 분리막 특허로 소송을 제기한 2011년과 2019년은 SK가 배터리 사업에서 고객 수주, 사업

SK이노 "발목잡기식 소송"
LG에너지 "예비결정일 뿐"

확대 등 유의미한 성과를 내던 시점"이라며 LG의 소송을 SK의 배터리 사업을 견제하기 위한 '발목잡기'로 규정했다.

이어 "LG가 승소 가능성이 가장 큰 대표 특허로 소송을 제기했음에도 한국 특허법원에 이어 ITC가 특허 무효 또는 비침해 결정을 내린 것은 SK 기술이 LG와는 구별되는 독자적인 것임을 인정한 것"이라며 "ITC가 영업비밀 침해 소송

건도 실제적인 본질에 대하여 검증하고 판단했다면 충분히 다른 결정이 나왔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소송의 본질을 통한 정상적인 대응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입증한 것으로 LG가 시작한 ITC의 모든 소송에서 끝까지 정정당당하고 엄정하게 대응해 갈 것이며 이것이 LG의 발목잡기식 소송으로부터 이해관계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최선"이라고 주장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즉각 반박문을 내고 "특허소송이 예비결정일에도 불구하고 마치 승리로 마무리된 것처럼 표현하면서 판결내용을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는 것은 물론, 2년 전부터 수차례에

걸쳐 같은 억지 주장을 펼쳐가는 SK의 이러한 행태가 오히려 발목잡기일 것"이라고 반격했다.

이어 "특히 SK이노는 판결기관인 미국국제무역위원회(ITC)에 대해서조차 투박하고 극단적인 SK이노 식 조변석개(朝變석改)를 이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LG에너지솔루션 관계자는 "특히 당사 SK이노의 사업을 방해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명백히 밝히며 합의의 문을 열어놓고 있음에도 소송 해결보다는 상대방에 대한 비방에만 몰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김베리 기자 kimstar1215@

쌍용차 토지자산 재평가 결과 4025억 → 6813억

쌍용차는 경기도 평택시 동삼로 455-12 외 165개 필지에 대한 자산 재평가 결과 2788억원의 재평가 차익이 발생했다고 6일 공시했다.

이에 따라 작년 말 연결 재무제표 기준 해당 토지의 장부가액은 4025억7000만 원(정보보조금 차감 후 금액)이었으나 이번 재평가 결과 6813억7000만원으로 늘어났다.

재평가 차익은 2019년 말 연결 기준 자산 총액(2조192억원)의 13.81%에 해당하는 규모다.

앞서 쌍용차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의거해 자산의 실질가치를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며 "자산과 자본 증대 효과를 통한 재무구조 개선 목적도 있다"고 자산재평가를 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쌍용차의 작년 말 기준 자본 잠식률은 111.8%로, 자본 총계는 -881억원이었으나 이번 재평가로 자본금은 1907억원으로 늘어나 완전 자본 잠식 상태에서 벗어나게 됐다.

쌍용차는 이를 근거로 오는 13일까지 상장 폐지 절차에 대한 이의 신청을 할 예정이다.

설경진 기자 skj78@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6일 오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탄소중립 혁신 이니셔티브를 위한 '에너지얼라이언스 출범식'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에너지얼라이언스는 초대 의장으로 유정준 SK E&S 부회장을 추대했다.

민간기업 10개사, 脫탄소 '에너지얼라이언스' 출범

현대경제연구원원을 비롯해 에너지업계와 10개 민간기업은 6일 탄소중립 혁신 이니셔티브 확보를 위해 '에너지얼라이언스(Energy Alliance)'를 출범하고 상호협력 업무협약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국내 민간 에너지 기업들이 탄소중립과 관련해 자발적인 공동체를 만드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에너지얼라이언스' 출범식에는 두산중공업 정연인 사장, DL에너지 김상우 부회장, SK E&S 유정준 부회장, E1 구자용 회장, GS에너지 허용수 사장, 포스코

에너지 정기섭 사장, 한화에너지 정인섭 사장, 현대경제연구원 허용석 원장, 현대차 김동욱 부사장, 효성중공업 송원표 부사장 등 참여 기업 최고경영자들이 자리했다. 이날 출범식에는 에너지 업계의 탄소중립 도전을 격려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성윤모 장관도 참석했다.

세계 에너지 대령으로 불리는 파티비롤(Fatih Birol) 국제에너지기구(IEA) 사무총장은 축사를 통해 "이번 에너지얼라이언스 출범이 한국의 탄소중립을 더욱 앞당기는 신호탄이 되길 기대한다"라며

"TEA도 한국의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다양하게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현대경제연구원 허용석 원장은 이날 주재발표에서 "한국도 탄소 중립이라는 국제적 흐름에 동참하는 가운데 이를 이행하기 위한 많은 도전과제에 직면해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 △민간 부문 주도, △에너지 산업계의 공진형 생태계 구축, △성장과 환경을 모두 고려한 비전 제시, △글로벌 문제해결의 능동적 참여 등의 고려한 새로운 거버넌스가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노우리 기자 we1228@

특허정보 5만건 4시간 만에 처리 LG이노텍, AI 분석 시스템 구축

LG이노텍이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특허정보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6일 밝혔다.

특허정보 시스템은 전세계 특허 정보를 수집, 분석해 신제품 및 신기술 개발 방향을 수립하는데 활용하는 시스템이다. 유사 특허는 없는지, 다른 특허를 침해하는지 등 연구결과물의 지적재산 보호와 리스크 관리를 위한 용도로 시스템을 사용했다.

LG이노텍이 이번에 새롭게 개발한 시스템은 AI 기술을 적용해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했던 수만 건의 특허 빅데이터를 단시간에 분석해 개발 방향 수립에 필요한 핵심 정보를 빠르게 제공한다.

LG이노텍의 'AI 특허정보 시스템'은 사람에 비해 900배가량 빠른 업무 처리 속도를 자랑한다. 예를 들어 특허정보 5만건을 분석할 경우 5명이 하루 8시간, 총 100일 동안 수행해야 하는 업무를 단 4시간 만에 처리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개발 후 특허를 창출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특허분석을 통한 연구·개발(R&D) 전략 수립이 가능해졌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특허 정보가 리스크 관리와 지적재산 보호 용도에서 나아가 R&D 전략 수립의 선형지표 역할을 하게 된 것이다. LG이노텍은 'AI 특허정보 시스템'을 제품·기술 개발, 연구·개발(R&D) 중장기 전략 수립 등에 적극 활용해 미래 준비를 가속화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노우리 기자 we1228@

SK '동남아판 아마존' 키운다 '베트남 1위' 유통사 지분 인수

현지 소매 점유율 50% '빈커머스' 4600억 들여 지분 16.3% 매입 온·오프라인 '옴니채널' 성장 기대

SK그룹이 베트남 마산그룹의 유통 전문 자회사 지분을 매입했다. 베트남 내 현대식 유통시장이 매년 높은 성장률을 보여 SK가 매입한 지분 가치도 더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SK는 6일 마산그룹 유통 전문 자회사 '빈커머스' 지분 16.3%를 4억1000만 달러(약 4600억 원)에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SK가 2018년 마산그룹에 투자할 때 확보한 '선별적 우선 투자권리'를 행사한 것이다.

SK는 베트남 등 동남아 지역에서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2018년 8월 SK 동남아투자법인을 설립했다. 이후 SK 동남아투자법인은 2018년 10월 마산그룹 지분 9.5%, 2019년 5월 빈그룹 지분 6.1%를 인수하는 등 본격적인 투자를 진행했다.

빈커머스는 베트남에서 편의점과 슈퍼마켓 약 2300개를 운영하고 있다. 베트남 소매시장 점유율이 50%에 달하는 유통 1위 기업이다.

베트남 최대 식음료(F&B) 기업인 마산그룹은 2019년 12월 빈그룹으로부터 빈커머스 지분 83.7%를 인수했다. 이후 기존 식음료 사업과 빈커머스와의 상승효과를 통해 각 사업 영역에서 시장지배력을 확보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빈커머스 매출은 2019년 11억 달러에서 2020년 마산그룹이 인수한 첫해에 14억 달러로 늘었다. 올해 매출은 18억 달러로 예상된다.

SK는 마산그룹이 2019년 인수했을 때와 같은 조건으로 빈커머스 지분을 매입했



박원철(오른쪽) SK동남아투자법인 대표와 권혜조 부사장이 6일 대니 레(가운데) 마산그룹 CEO와 화상으로 빈커머스 투자 계약을 체결한 뒤 포즈를 취했다. 사진제공 SK그룹

다. 마산그룹과 맺은 전략적 파트너십에 따른 것이다. SK는 마산그룹이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있는 종합 소비재 사업에 대한 추가 투자 권리도 확보했다.

SK가 매입한 빈커머스 지분 가치는 매년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베트남 내 편의점·슈퍼마켓 등 현대식 유통시장은 연 25% 이상 성장하고 있다. 나아가 빈커머스는 새로운 온·오프라인 유통망을 구축하고 있다.

SK는 이번 계약으로 베트남 투자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온·오프라인 유통뿐만 아니라 물류, 전자결제 등 주요 분야에 투자한다는 구상이다. SK 관계자는 "빈커머스가 향후 '알리바바'나 '아마존'처럼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결합한 옴니채널(Omnichannel) 사업자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번 투자는 동남아 시장에서 고성장이 예상되는 미래 유통 밸류체인(Value Chain)에 대한 투자"라고 설명했다.

박원철 SK동남아투자법인 대표는 이날 화상으로 진행된 계약식에서 "마산그룹은 베트남 시장에서 성공을 위한 최적의 파트너"라며 "SK는 새로운 성공 사례를 창출하기 위해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썬영 공 탕 빈커머스 최고경영자(CEO)는 "빈커머스는 고객 중심 경영을 통해 판매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영업 효율성을 개선하는 데 성공했다"며 "이번 SK의 투자가 베트남 시장에서 빈커머스가 또 한 번 도약하는 시작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대영 기자 kdy@

현대오일뱅크 '그린 수소' 가속페달

에어프로덕츠와 전략적 MOU

현대오일뱅크가 글로벌 수소 기업 에어프로덕츠와 수소 에너지 활용을 위해 손을 잡았다.

현대오일뱅크는 6일 에어프로덕츠와 '수소 에너지 활용을 위한 전략적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에어프로덕츠는 미국에 본사를 둔 세계 최대 수소 생산 업체다. 천연가스와 정유 부산물 등을 활용해 수소를 제조하는 원천 기술을 갖고 있다. 공장 운영 노하우와 수소 액화 등 저장·수송 기술도 보유 중이다.

현대오일뱅크는 이번 양해각서 체결로 에어프로덕츠의 기술을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에어프로덕츠 기술로 원유 부산물과 직도입 천연가스로 수소를 생산해 원가 경쟁력을 갖춘다는 구상이다. 이렇게 생산한 수소는 자동차와 발전용 연료로 공급한다. 탄소도 별도 설비를 사용해 친환경 건축자재



인 탄산칼슘과 드라이아이스, 비료 등으로 자원화한다. 양사는 '그린수소' 사업 분야에서도 힘을 모으기로 했다. 그린수소는 제조 과정에서 탄소가 배출되지 않는 수소를 말한다.

에어프로덕츠는 지난해 7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태양광과 풍력으로 암모니아를 생산하고 이를 수소로 변환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질소와 수소로 이뤄진 암모니아는 분해 과정에서 탄소 발생 없이 수소로 변환된다.

강달호 현대오일뱅크 대표는 "현재 85%인 정유 사업 매출 비중을 2030년까지 40%대로 줄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대영 기자 kdy@

삼성디스플레이-코닝 동행 '7년 더'

40여년 긴밀한 협력관계 유지 지분 전환 통해 2대 주주 올라

삼성디스플레이가 미국 특수 유리 제조 업체 코닝과 파트너십 7년 연장 계약을 체결했다. 보유 중인 전환우선주를 보통주로 전환하며 코닝 2대 주주에도 올랐다. 양사 간 향후 협력관계가 더 돈독해질 전망이다.

6일 삼성디스플레이와 코닝은 지난 7년 동안 지속된 성공적인 협업에 이어 향후 7년 동안 또 다른 파트너십을 맺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삼성디스플레이는 보유 중인 코닝 우선주 전량을 보통주 1억1500만 주(약 13%)로 전환하고, 그중 3500만 주(약 4%)를 코닝에 넘기기로 했다. 코닝의 자사주 매입에 힘을 보태며, 파트너십 확대에 나선 것이다.

2014년 삼성디스플레이가 취득한 코닝 전환 우선주는 7년 뒤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옵션이 적용됐다. 행사 비율은 우선주 1주당 보통주 5만주다.

이에 따라 삼성디스플레이는 지분 9%를 보유, 미국 자산운용사 벡타그룹에 이어 코닝 2대 주주로 올랐다. 삼성디스플레이는 2028년까지 코닝 지분을 보유할 계획이다.

삼성디스플레이는 폴더블폰용 UTG(울트라슬래스)를 비롯한 다양한 제품을 개발하고 있다. 앞으로도 폴더블 등 차세대

디스플레이 제품군 개발에 더욱 협력을 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주선 삼성디스플레이 사장은 "코닝은 훌륭한 파트너이며 약 50년에 달하는 양사의 친밀한 관계를 강화하고 확장할 기회를 얻게 돼 기쁘다"며 "새로운 파트너십 연장은 코닝의 역량, 지속적인 기술 협력 등에 대한 확신을 재확인한 것"이라고 말했다.

웬델 워스 코닝 회장은 "코닝은 액정표시장치(LCD),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쿼텀닷(QD) 디스플레이, 플렉시블 디스플레이에 이르기까지 주요 소재 혁신을 위해 삼성과 협력해왔다"며 "삼성디스플레이가 7년간 주요 주주 지위를 유지하며 코닝에 신뢰를 표한 점에 대해 영광으로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삼성디스플레이와 코닝의 관계는 40년 넘게 이어져 올 만큼 각별하다. 양사의 협력 관계는 1973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삼성과 코닝은 1973년 각각 50% 지분으로 브라운관 유리 업체인 삼성코닝(2007년 삼성코닝정밀소재에 합병)을 설립한 후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 왔다.

지난 2014년 삼성디스플레이는 삼성코닝정밀소재와의 합작 관계를 청산하면서 협력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23억 달러를 들여 코닝의 우선주 2300주를 인수했다. 2014년 삼성디스플레이가 취득한 코닝 전환우선주는 7년 뒤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옵션이 적용됐다. 송영록 기자 syr@



Our Take on a Timeless Design

블랙시(BLACK SEA) 운석 다이얼을 소개합니다.

각각의 다이얼은 스페인에 떨어진 사라고사 운석에서 잘라낸 다음 산 처리되어 여러분이 보는 독특한 패턴을 만들어냅니다.

블랙시(BLACK SEA)의 운석 다이얼은 겹치는 디자인 없이 한 분, 한 분에게 특별한 모습을 선사합니다.

블랙시(BLACK SEA) 운석은 에리스골드가 얼마나 멀리 왔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일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얼마나 더 멀리 존재하는지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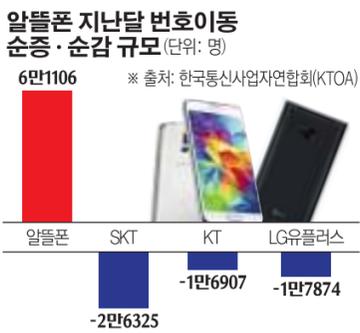
'우주의 한 조각을 내 손목 위에'



BLACK SEA G9027 S-BKT-MB

“가성비 통했다” 알뜰폰 6만명 순증 ‘역대 최대’

요금제, 3사 LTE 3분의1 수준
MZ세대 “요금 저렴·개통 편리”
5G 2년약정 만료 고객 흡수할듯



알뜰폰(MVNO)의 인기가 3월에도 계속됐다. 5G 상용화 이후 스마트폰 2년 약정이 만료되는 이달 ‘자유의 몸’이 된 가입자들이 알뜰폰으로 대거 흡수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높다.

6일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에 따르면 올해 3월 알뜰폰으로 번호이동을 한 건수는 총 16만4375건을 기록했다. 이통 3사로부터 가입자를 뺏어온 순증 규모는 6만1106건에 달했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다. 반면 통신 3사의 번호 이동은 순감했다. SK텔레콤은 2만6325건, KT는 1만6907건, LG유플러스는 1만7874건씩 가입자를 내줬다.

통상 12월 수능 이후 입학식이 있는 3월

까지 최신 스마트폰의 교체 수요가 높다. 이 때문에 이 시기에는 알뜰폰 시장도 주목하곤 했다. 지난해만 해도 3월 알뜰폰 번호 이동은 4925명 순감했었다.

올해 1월 말 삼성전자의 전략 스마트폰인 갤럭시 S21이 출시됐다는 점을 고려하면 알뜰폰의 인기는 더 주목할 만하다. 갤럭시 S21 조기 출시로 시장에서는 고공 행진하던 알뜰폰의 인기가 숨 고르기에 들어갈 것이라는 관측이 있었다. 동시에 이동

통신(MNO) 사업자들의 잇따른 5G 중저가 요금제 출시도 알뜰폰 인기에 제동을 걸 것이라는 전망을 뒷받침했다.

이 같은 우려는 보기 좋게 빗나갔다. 알뜰폰 업계는 배경을 크게 두 가지로 꼽는다. 먼저 자급제 폰의 인기다. 자급제 폰 인기는 반대로 MNO의 요금 할인과 마케팅 공세가 통하지 않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단속 강화로 불법 보조금 과열 양상도 예년 대비 눈에 띄지 않고 있다.

알뜰폰 업계 관계자는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개정 전 방통위가 시장 정화 차원에서 불법 보조금 단속을 강화하면서 자급제 구매 수요가 더 늘었다”고 말했다.

두 번째는 MZ세대(밀레니엄+Z세대)를 겨냥한 알뜰폰 업계의 전략이 통했다는 점이다. 기존에 중장년층 이상을 타깃으로 했던 알뜰폰 업체들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MZ 세대 공략을 강화했다. 유심 셀프 개

통에 거부감이 덜한 MZ 세대를 공략해 편의점 등 유통 채널을 다변화한 게 대표적이다.

SK텔레콤 관계자는 “현재 전체 가입자의 80%가 LTE 후불 무제한 요금제를 쓰고 있다”며 “최근 MZ 세대의 유입이 눈에 띈다”고 했다.

이 같은 알뜰폰의 인기는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특히 이번 달은 5G가 상용화했을 때 처음 가입한 사람들의 약정 만기가 돌아오는 달이다. 2019년 4월에만 5G 요금제에 가입한 가입자는 27만1686명이다.

지금은 5G 스마트폰을 자급제로 사면 LTE 요금제를 쓸 수 있지만, 2019년 8월까진 5G 단말기에서는 5G 요금제만 가입할 수 있었다. 당시 대부분이 2년 약정으로 가입했다고 가정하면 20만 명 이상의 가입자가 이번 달에 이통 3사의 5G 요금제 외의 선택을 할 수 있다는 의미다.

약정이 끝난 가입자가 5G 요금제를

속 쓸 수도, MNO 사업자의 LTE 요금제를 쓸 수도 있지만, 가성비를 따진다면 알뜰폰의 LTE 요금제가 가장 눈에 들어올 만하다.

예컨대 SK텔레콤의 3만3000원 LTE 요금제(월 11GB+일 2GB)는 이통사의 6만 원대 LTE 요금제와 구성이 비슷하다. 이통사의 선택약정할인(25%)을 받는다고 해도 가격 경쟁력은 훨씬 높다.

알뜰폰 사업자들은 5G 요금제 수요도 흡수하기 위해 이달부터 중저가 5G 요금제를 대거 내놓을 예정이다. 과기정통부의 ‘알뜰폰 사업자 5G 활성화 지원 방안’에 따라 월 4950~3만3000원의 데이터 소량 구간 요금제와 월 2만8443~4만4000원에 데이터 9~30GB 데이터를 제공하는 중량 구간 요금제가 출시된다. 5G 요금제 2년 약정이 만료되는 소비자 중 5G를 계속 쓰고 싶을 때 알뜰폰 요금제도 선택지에 추가할 수 있게 됐다.

이지민 기자 aaaa3469@

반갑다 프로야구! 야구게임 ‘플레이볼’



엔씨소프트 ‘프로야구 H3’ 출시 이미지. 사진제공 엔씨소프트



‘2021 게임빌프로야구 슈퍼스타즈’ 이미지. 사진제공 게임빌

국내 프로야구가 개막하면서 게임업계에서도 경쟁이 치열하다. 야구장 관중 입장이 정부의 사회적 거리 두기 기준에 따라 수도권 10%, 비수도권 30%로 제한되면서 야구팬들이 게임으로 몰리고 있어서다.

6일 엔씨소프트는 신작 모바일 야구 매니지먼트 게임 ‘프로야구 H3’의 정식 서비스를 시작했다. 이 게임의 특징은 이용자들이 직접 야구게임을 플레이하는 것이 아닌, 구단주로 변신해 야구단을 운영할 수 있다는 점이다. 엔씨소프트는 ‘프로야구 H3’ 출시를 기념해 다양한 이벤트도 진행한다. 프로야구 H3의 광고 영상을 관람하고 참여하는 이벤트로 게임 내 재화와 구글 기프트카드, KBO 구단 물품 세트, 유니폼, 모자 등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야구 시뮬레이션 경기 중 중계 영상을 통해 선수들의 움

엔씨 ‘H3’ 구단주로 참가·컴투스 ‘컴프야’ 최신 선수단 반영 게임빌·넷마블 각축전 “프로야구 직관 같증, 게임으로 해소”

직임을 직접 확인할 수 있어 몰입감을 더해준다.

오랫동안 ‘컴투스 프로야구’ 시리즈를 선보여 온 컴투스는 올해도 ‘컴프야 2021’을 서비스한다. 컴프야2021은 국내 프로야구 정규 시즌 개막을 맞아 10개 구단의 최신 로스터를 반영했다. 올해 새롭게 창단한 SSG 랜더스를 포함해 추신수 이적까지 업데이트가 완료된 상태다. 특히 지난 1일에는 만우절을 맞아 구단주인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을 선수로 깜짝 데뷔시키기도 했다.

게임빌은 ‘게임빌 프로야구 2020 슈퍼스타즈’를 통해 글로벌 실시간 대전 모드를 시작한다. 글로벌 실시간 대전은

연급 경기와 해피 워크엔드로 나눠 전세계 사용자들과 직접적인 경쟁이 가능하다. 이를 통해 실시간 보상뿐만 아니라 팀 순위, 홈런, 탈삼진 기록 등 다양한 기록도 확인할 수 있다.

넷마블 역시 ‘마구마구 2021 모바일’을 시즌 시작에 맞춰 업데이트했다. 마구마구 2021 모바일은 올해 ‘클럽 시스템’과 선수카드 ‘타이틀홀더’를 선보인다. 우선 클럽 시스템은 다양한 클럽 활동을 통해 하우스를 꾸미는 시스템이다. 이용자는 클럽에서 점령전, 협업 미션 이벤트, 상점, 출석 등에 참여할 수 있다. 신규 선수카드 ‘타이틀 홀더’는 각 년도의 홈런왕, 타점왕, 다승왕 등 타이

틀별로 최고의 활약을 펼친 선수들로 구성됐다.

게임업계에서 야구 게임을 서비스해온 것은 수년 전부터다. 올해는 코로나 19로 인해 프로야구 관중 입장이 제한되면서 더 많은 이용자가 몰릴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야구 게임은 야구팬들만을 겨냥하기 때문에 마케팅이 쉽다는 장점이 있다. 또 지난해 타이틀을 변경해 업데이트 하는 경우가 많아 개발비 부담도 적어 게임사 입장에서 매출 효과로 꼽힌다.

게임업계 한 관계자는 “야구 팬들이 코로나 19로 인해 경기장 방문에 제한이 걸리면서 게임으로 야구 같증을 해소하는 분들이 많아졌다”며 “이러한 기대를 잘 알고 있으며 다양한 혜택과 이벤트를 통해 야구경기를 대신할 수 있는 즐거움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성준 기자 tiatio@

과기정통부, AI·클라우드 등 4차산업 인재 1700명 양성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청년실업해소를 위해 올해 연말까지 청년 인재 1700명을 양성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청년구직자들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 ‘2021년도 혁신성장 청년 인재 집중 양성’ 사업에 신규과정(8개) 포함해 총 48개 교육과정을 최종 선정했다고 6일 밝혔다.

이 사업은 소프트웨어 전문 교육기관에서 만 34세 이하 청년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4차 산업혁명 8대 기술 분야에 대해 6개월(960시간)간 집중교육을 제공, 산업 현장에 즉시 투입 가능한 SW 실무인재의 양성과 취업 연계를 지원한다. 8대 분야는 인공지능, 클라우드, 빅데이터, 블록체인, 드론, AR·VR, 자율주행차, 스마트공장 등이다.

2018년 추경 사업으로 착수해 지난 3년(2018~2020년)간 청년 실무인재 4571명을 양성했으며, 올해는 총 1700여 명을 교육하는 등 4년간 총 6300명을 양성할 계획이다. 교육 수료생에 대한 취업률은 70.2%(2019년)로, 정부 구직자직업훈련 사업의 평균 취업률(49.8%) 대비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올해 수행할 교육과정(총 48개 과정)은 2020년 연차평가 결과를 통해 계속과제로 선정된 40개 교육과정과 2021년 사업공고를 통해 신규과제로 선정된 8개 교육과정으로 이뤄져 있다.

계속지원 교육과정은 멀티캠퍼스(인공지능 분야), 한국전파진흥협회(클라우드 분야), 동국대학교 산학협력단(빅데이터 분야) 등에서 제공되는 8대 기술분야 40개 교육과정(23개 교육기관)으로, 작년 사업운영 실적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올해에도 계속 지원된다. 현재 교육생 모집(1차) 중으로, 4월 말까지 기초 개발역량을 보유한 우수한 교육생을 선발할 계획이다.

신규지원 교육과정은 수강생의 수요가 특히 높았던 4개 분야(인공지능, 클라우드, 빅데이터, 블록체인)를 중심으로 선정했다. 올해는 총 27개 교육과정이 공모해 평균 3.4 대 1의 경쟁률을 보였으며, 엄정한 평가를 통해 8개 교육과정이 선정됐다. 신규과정은 4월 중순부터 교육생을 모집(2차)할 예정이며, 6월 초부터 6개월간 산업 맞춤형 실무교육이 진행될 예정이다.

조남호 기자 spdran@

공영쇼핑 사옥 건립 첫발, 추진위 발족

전문가·직원대표 등 11명 구성

공영쇼핑이 사옥 건립의 첫발을 내디뎠다. 공영쇼핑은 6일 오전 상암동 본사에서 ‘제1차 공영쇼핑 전용사옥 건립 추진위원회’를 개최했다. 공영쇼핑은 건축분야 등 외부 전문가 8명과 내부 3명 등 총 11명으로 구성된 전용사옥건립추진위원회를 발족했다.

위원의 구성은 사규 ‘전용사옥건립추진위원회 운영요령’에 따라 직원대표 1명, 이사회 추천 2명, 전문·관련 단체, 기타

등 추천 9명 이내로 했다. 외부 전문가는 대한건축학회 등 11개 학회에 공문을 발송, 추천받아 이사회를 통해 8명을 최종 선정했다.

그간 공영쇼핑의 전용사옥건립에 대해 국정감사에서의 지적과 언론의 주목을 받아왔고, 이에 더욱 투명하고 전문적인 기구의 필요성이 대두,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추진위원회를 마련하게 된 것이다.

첫 회의에서는 위원장 선출과 전용사옥 기본구상 및 대상부지 연구용역 추진계획에 대해 심의, 의결했다. 위원장은 내부 1

명, 외부 1명의 공동위원장 체제로 운영되며, 공동위원장으로 김봉안 사외이사과 김창성 협성대 건축공학과 교수가 선출되어 위원회를 꾸려나가게 되었다.

공영쇼핑 ‘전용사옥건립추진위’는 가장 전문적이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그 첫 단추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전용사옥 기본구상과 대상 부지에 대한 타당성 연구용역이다. 사옥 이전에 대한 경제성 평가, 후보 대상지 입지 및 여건 분석, 비용, 리스크 등 건립에 대한 총체적인 분석

이 필요하다. 또한, 가장 큰 쟁점이 되고 있는 건립 부지 선정에 대해서도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대상 부지를 제안받고 심사할 계획이다. 또한, 추진위원으로 직원대표 등이 참여함으로써 추진위 활동내용이 투명하게 공유되고 직원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게 했다.

공영쇼핑 박진상 대표이사 직무대행은 “전용사옥의 건립은 공영쇼핑의 미래를 설계하는 일이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농축수산인의 탄탄한 판로의 정착”이라며 “중기부 산하 공공기관 흡수함으로써 전용사옥 건립에 있어 한 치의 오류 없이 꼼꼼하게 준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다원 기자 leedw@

함께 성장하며
행복을 나누는 금융

하나금융그룹



하나뿐인 지구를 위해 하나로 힘을 모읍니다

지속가능한 미래를 향한 하나금융그룹의 첫걸음
[BIG STEP FOR TOMORROW]

지구의 미래를 걱정하는 마음과
친환경을 위한 혁신적인 아이디어
그 아이디어를 현실로 만들 기술이
하나가 되어야 지구를 지킬 수 있기에

하나금융그룹은 금융의 힘으로
지구를 지키는 모두와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금융그룹 ESG [BIG STEP FOR TOMORROW]

STEP1 탈석탄 금융, 탄소중립 추진으로 탄소 제로 이행에 동참 >> STEP2 ESG 금융 활성화로 금융의 환경 및 사회적 기여 확대 >> STEP3 투명한 ESG 정보 공개를 통한 이해관계자 신뢰도 제고

하나금융지주 · 하나은행 · 하나금융투자 · 하나카드 · 하나캐피탈 · 하나생명 · 하나손해보험 · 하나저축은행 · 하나자산신탁 ·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 · 하나에프앤아이 · 하나벤처스 · 하나펀드서비스 · 하나금융티아이 · 핀크

5조 푸는 쿠팡, 창원·김해에도 물류센터 짓는다

미국 증시 상장으로 5조 원의 실탄을 장전한 쿠팡이 물류센터 4곳에 총 4200억 원 규모를 투자하며 전국 시장 석권을 위한 포문을 열었다. 최근 마켓컬리가 수도권 이외 지역으로 진출을 선언한 데다 롯데온도 수도권과 부산 지역에서 새벽배송 서비스에 나서면서 이커머스 업계의 물류 경쟁은 전국에서 한층 더 치열해질 전망이다.

쿠팡은 6일 오후 경남도와 창원시, 김해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과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경남권에 물류센터 3곳을 건립하는 투자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협약을 통해 쿠팡은 2986억 원을 들여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창원시 진해구 두동지구에 일반 및 신선 물품을 취급하는 통합 스마트 물류센터 2곳을 신설한다. 아울러 김해시 상동면 대감리에도 190억 원을 투입해 물류센터를 짓는다. 신규 채용 규모는 관리·배송인력을 중심으로 진해구 두동지구 물류센터가 3200여 명이 며, 김해시 물류센터가 800명 등 4000명 규모다.

완주 이어 3곳 추가 건립 협약 신선식품 선점 콜드체인 강화 마켓컬리·SSG닷컴 등 경쟁사 부지 물색 등 물류 투자 나서

특히 부산 지역은 지난해 롯데쇼핑의 이커머스 사업인 롯데온이 수도권 이외 새벽배송인 '새벽에ON'으로 진출한 지역이기도 하다. 현재 부산에서 새벽배송에 나서는 업체는 쿠팡과 롯데온밖에 없다. 롯데온은 부산 롯데슈퍼 오토프레시 센터를 기반으로 부산 전 지역과 기장군까지 포함해 새벽배송을 서비스하고 있다. 김해시와 창원시는 대상 지역이 아니다.

쿠팡은 앞서 지난달에는 전라북도 완주군과 신규 물류센터 설립을 위한 투자유치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1000억 원 이상 투자하기로 했다. 부지 10만㎡, 축구장 14개 크기에 육박하는 완주 센터는 전 북 최대 규모의 물류센터가 될 예정이며

쿠팡美 증시 입성 후 투자 일정	
3월 11일	- 미국 NYSE 상장 5조 원 확보
3월 26일	- 1000억 원 규모 완주 물류센터 건립 MOU
4월 6일	- 2986억 원 규모 창원 물류센터 2개 투자 협약
	- 190억 원 규모 김해 물류센터 계획 발표



쿠팡이 대구 달성군 구지면 국가산업단지에 건립 중인 첨단물류센터.

2000여 개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보인다. 쿠팡은 완주 센터를 향후 이어질 광주 센터와 함께 서남권 물류 허브로 삼는다는 계획이다.

쿠팡은 이미 전국에 170여 개의 크고 작은 물류 거점을 확보해 전국 단위로 로켓

배송(빠른배송)과 새벽배송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콜드체인을 갖춰야하는 신선식품까지 취급하려면 아직 배송 능력이 제한적이다. 이 때문에 쿠팡은 이커머스 업계 최대 규모인 축구장 46개 넓이의 대구 국가산업단 물류센터를 비롯해 광주, 음성, 제천에도 냉장 기능을 갖춘 물류센터를 추가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신선식품의 이커머스 침투율을 20% 내외로 보고 있다. 신선식품은 아직까지 대형마트에서 주로 소비가 이뤄지고 있어 이커머스가 가져올 파이가 많다는 얘기다.

쿠팡은 2월 미국 증시(NSYE)에 상장하면서 확보된 5조 원으로 해외 진출보다는 전국의 물류센터 확대를 천명한 바 있다.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은 미국 증시 상장 이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K커머스를 수출하고 싶은 욕심은 있지만 당분간은 국내 시장에 전념하겠다"고 밝혔다. 5조 원은 국내에 최첨단 물류센터 20개 내외를 지을 수 있는 규모다.

마켓컬리는 지난달 김포 물류센터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수도권 외 지역 진출을 선포했다. 김슬아 대표는 "물류센터의 인근 인구 밀집지역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서 "조만간 확정짓고 알려드리겠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동탄 신도시까지 새벽배송이 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할때 대전과 세종을 유력한 후보 지역으로 보고 있다.

경쟁사들도 물류에 힘을 주고 있다. 네이버는 7월 '네이버 풀필먼트 얼라이언스'를 오픈한다. 여기에는 CJ대한통운과 이마트를 비롯해 다양한 풀필먼트 업체 및 물류 스타트업들이 동참한다. 아울러 신세계·이마트와 공동 물류 관련 신규 투자도 검토하고 있다. SSG닷컴도 수도권에 물류센터 부지를 물색 중이다.

롯데그룹은 2022년 완공을 목표로 충북 진천에 롯데글로벌로지스의 택배 메가허브(Mega Hub) 터미널을 짓고 있다. 여기에는 풀필먼트센터를 넣어 백화점과 마트 등과 오픈마켓 판매자들의 재고를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남주현 기자 jooh@

CU 유튜브 大戰 GS25

'씨유튜브' vs '이리오너라' 제품 홍보부터 웹예능까지 MZ 공략 바이럴 마케팅 효과

할인 행사, 신제품 홍보는 기본이다. '삼각김밥 맛있게 먹는 법'부터 '도대체 이 영상이 왜 여기에?'라는 생각이 드는 '편의점과 전혀 관계 없는' 영상이 업로드된다. 편의점 유튜브 채널 얘기다.

편의점 업계 맞수인 CU와 GS25가 최근 유튜브 채널 강화에 공을 들이고 있다. 유튜브는 CF 등 일반 광고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용이 적게 들면서도 원하는 방식으로 홍보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다. MZ세대를 중심

핏 보면 게임 광고인듯 하지만, 실상은 새롭게 출시되는 삼각김밥을 소개하는 영상이다.

CU 관계자는 "MZ세대와의 소통이 중요해지면서 단순한 상품 홍보가 아닌 젊고 재미있는 브랜드 이미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영상 콘텐츠의 중요성이 커졌다"며 "누가 구독해도 볼거리가 많은 채널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GS25도 자사 유튜브 채널 '이리오너라'에 다양한 콘텐츠를 올린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편의점과 무관해보이는 영상의 업로드 빈도가 잦다. 예컨대 지난달 말 이 채널에는 '못배운놈들' 시리즈 중 한 편인 '이용진X벋사공, 성악 배우고 왔습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 영상엔 개그맨



CU 유튜브 채널 '씨유튜브' 갈무리.



GS25 유튜브 채널 '이리오너라' 갈무리.

으로 바이럴 마케팅 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점도 빼놓을 수 없는 유튜브 마케팅의 매력 포인트다.

양사의 유튜브 채널 운영 기조는 같은 듯 다르다. 먼저 CU의 '씨유튜브'는 전방위적 영상 콘텐츠를 만든다. CU는 씨유튜브를 통해 마카롱과 삼각김밥의 제조 과정을 보여주는 심신 안정 영상부터 웹드라마, 웹예능까지 다양한 콘텐츠를 업로드한다. 이영자, 돈스파이크 등 유명 연예인은 '떡방'을 통해 CU의 신제품을 평가하고 홍보한다. 씨유튜브는 6일 기준 구독자수 50만7000여 명을 확보했는데, 이는 지난해 3월 구독자 10만 명 달성 후 약 1년 만의 성과다.

최근엔 리치리치 삼각김밥 관련 콘텐츠가 인기를 끌었다. CU는 제품 출시에 발맞춰 씨유튜브에 '마침내 시작된 위대한 업데이트'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 '차원이 다른 업그레이드'라는 문구와 함께 시작되는 영상은 얼

이용진이 성악을 배우는 과정이 재미있게 담겨 있다. 영상 어디에서도 편의점 GS25의 제품이 나오거나, 언급되지 않는다.

다만 이는 '의도된' 무관함이다. GS리테일은 지난해 9월 유튜브 채널 개편 이후 실제로 '편의점 없는 편의점 유튜브 채널'을 만들고자 하는 의도를 품었다. GS리테일 관계자는 "광고성 영상'에 고객이 반응을 보이지 않아 혁신적인 변화가 필요했다"며 "진정한 웃음과 즐거움을 주기 위한 콘텐츠를 시작하게 된 계기"라고 설명했다.

개편을 앞두고 '위험한 시도'라는 내부 의견도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GS25는 이를 통해 유튜브 채널로 잠재고객을 이끄는 데 성공했다. GS리테일에 따르면 개편 전 콘텐츠에 대한 자발적 시청률은 10% 미만이었으나, 시리즈예능을 선보인 이후 자발적 시청률은 80% 이상으로 올라왔다.

안경무 기자 noglasses@



과일 케이크 '라쁘띠' 롯데대 본점서 맛봐요

롯데백화점은 SNS 12만 팔로어를 가진 과일 케이크 전문 디저트 브랜드 '라쁘띠(LA PETIT)'의 팝업스토어를 백화점 최초로 본점 지하 1층에서 18일까지 운영하고 6일 밝혔다. 송리단길에 본점이 있는 '라쁘띠'는 100% 동물성 생크림에 딸기 등 생과일이 듬뿍 올라간 '과일 생크림 케이크'로 유명하다. 이번 팝업스토어에서는 '딸기와 망고, 블루베리 케이크'와 여러 가지 과일을 함께 올려 상큼한 맛을 자랑하는 '후르츠 케이크' 등 다양한 과일 생크림 케이크를 현장에서 직접 생산해 판매한다. 사진제공 롯데백화점

필드에서도 일상에서도... '골린이' 위한 골프 컬렉션

한섬 SJYP 캐주얼 라인 선보

현대백화점그룹 계열 패션 전문기업 한섬은 영캐주얼 브랜드 SJYP가 20~30대 젊은 여성 골퍼를 겨냥한 '골프 라인 컬렉션'을 출시한다고 6일 밝혔다.

한섬은 지난달 캐주얼한 디자인의 '타미힐피겨' 골프 라인을 선보인 바 있다. 이번에 출시되는 SJYP 골프라인 컬렉션은 브랜드 특유의 감각적인 컬러와 자체 제작한 시그니처 캐릭터인 '디노(DINO·공룡 캐릭터)'를 활용한 의류 31종과 액세서리 7종 등 총 38종으로 구성됐다.

이번 컬렉션은 운동복에 한정하지 않고 일상생활에서도 편하게 입을 수 있도록 디자인했다. 파스텔톤 컬러를 사용한 바람막



이나 프릴(잔물결) 장식의 원피스, 스커트 등이 대표적이다. 여기에 대부분의 제품이 상의와 하의를 믹스매치해 세트로 입을 수 있어 운동복 특유의 스포티한 느낌도 강조했다.

한섬 관계자는 "이제 막 골프에 입문하

는 젊은 골퍼들이 기능성뿐만 아니라 본인의 개성을 살려 평상시에도 활용할 수 있는 디자인이나 소재의 아이템을 선호하는 점을 고려했다"라며 "가격대도 10만~20만 원 초반대로 책정해 주 타겟층인 20~30대 젊은 골퍼 입문자들이 합리적인 가격에 골프 의류를 구매할 수 있도록 했다"라고 설명했다.

한섬은 이번 캐주얼 골프라인을 선보이면서 공식 온라인몰인 'H패션몰' 앱을 통해 라이브커머스 방송인 '라이브(Live)'도 진행할 계획이다. 방송은 14일과 21일 오후 8시에 각각 'SJYP 골프 컬렉션'과 '타미힐피겨 골프'가 진행되고, 방송 중 다양한 프로모션도 함께 선보인다.

김혜지 기자 heyji@

7년 만에 새 옷 입은 '클라우드'

롯데칠성음료의 '클라우드'가 새 옷을 입었다.

롯데칠성음료는 '클라우드' 출시 7주년을 맞아 고급스럽고 세련된 이미지를 전달하기 위해 패키지 디자인을 리뉴얼한다고 6일 밝혔다.

새 디자인은 100% 올몰트로 만들어 프리미엄 맥주라는 '클라우드'의 정체성과 100% 맥주 발효원액 그대로 물 타지 않는 '오리지널 그라비티 공법'을 강조하기 위

해 '오리지널' 문구를 전면에 배치했다.

골드, 화이트, 블랙 색상을 사용해 기존 '클라우드'의 이미지는 유지하면서도 맥주의 주재료인 보리를 상징하는 패턴으로 고급스러운 패키지 디자인을 완성했다. '클라우드 생 드래프트'와 패밀리룩



연출이 가능하도록 디자인한 것도 특징이다.

롯데칠성음료 관계자는 "소비자들의 관심과 성원에 힘입어 2014년 출시 후 7년동안 '클라우드'가 프리미엄 맥주의 대표주자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다"며 "이번 리뉴얼 '클라우드'와 함께 소비자들이 소중한 추억을 만들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유현희 기자 yhh1209@

4월 들어 순매수 '1조8900억' “외국인 돌아온다” 기대감 물씬

투자자별 4월 순매수 추이 ※ 출처: 한국거래소
(단위: 만 원, 4월 1~6일 기준)

	기관 합계	기타법인	개인	외국인 합계
1일	-1418억7600	-83억7200	-5610억8800	7113억3600
2일	3764억3500	-69억9700	-9209억3600	5514억9800
5일	-3857억6100	-111억5700	2186억8700	1782억3000
6일	-5982억2400	-666억6900	2533억800	4115억8500
누적 순매수	-7494억2600	-931억9500	-1조100억2900	1조8526억4900



1~3월 8.6兆 순매도 벌이다 이달 4거래일째 '사자' 행진
삼성전자 등 국내 주요 상장사 실적 개선·원화강세도 영향
“여전한 경기 불안·IT 제조업 국가 선호 낮아져 방심 금물”

‘외국인이 다시 한국 증시로 돌아올까.’ 올해 들어 외국인은 3월 말까지 코스피에 서만 무려 8조6000억 원 가까이 팔았다. 코로나19 팬데믹(전 세계적 유행)의 여진과 미국발 인플레이션(장기적 물가상승) 우려 때문이다. 외국인이 집을 나간 사이 코스피는 7.45%(1월~3월) 올랐지만, 동학개미의 ‘사자’만으로는 힘에 부치는 모양새였다.

그러나 4월 들어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 4거래일 연속 ‘사자’ 행진을 이어가면서 1조8900억 원 넘게 한국주식을 끌어 담았다. 6일 코스피는 전일 대비 0.20% 오른 3127.08로 마감했다.

이에 따라 4월 외국인 컴백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외국인이 4월이면 예년 수준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내다보는 측은 이미 외국인이 한국 주식 비중을 지나치게 많이 줄였다는 점, 기간 한국 주식 시장에 큰 영향을 주던 미·중 갈등 등 대외 약재들에 내성이 생겼다는 점, 그리고 한국이 코로나19 국면을 비교적 잘 극복해 각종 지표가 플러스로 돌아서고, 타국 대비 좋은 성과를 냈다는 점을 꼽는다.

◇외국인 돌아왔나 ‘팔자’를 지속하던 외국인이 이달부터 본격적인 ‘사자’로 돌

아서자 수급 유입에 따라 코스피 상승장에 물꼬를 튼 게 아니냐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우선 외인 유입 요소로는 국내 주요 상장사들의 실적 개선 기대감이 꼽힌다. 코스피 대장주 삼성전자의 경우, 1분기 영업이익이 9조 원을 넘어설 것이라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날 금융정보분석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1분기 매출액, 영업이익 전망치는 60조8058억 원, 8조8344억 원으로 집계됐다. 전년 동기 대비 각각 9.91%, 37% 증가한 수치다. 하이투자증권, 삼성증권, 신한금융투자 등은 삼성전자의 1분기 영업이익이 9조 원 이상으로 점치고 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시가총액 상위 기업 실적이 성장하면서 상장사 전체 이익 규모도 증가할 전망이다. 코스피 상장사 106개사의 1분기 연결기준 영업이익 총합은 36조20억 원으로 추정됐는데, 전년 동기와 비교하면 76% 증가한 수치다.

1분기 기준으로 LG화학(273.9%), 삼성SDI(194.1%), 기아(140.5%), 카카오(76.8%), 현대차(76.3%), SK하이닉스(60.7%) 등 대형주 중심으로 전체 영업이익 예상치를 끌어 올리고 있다.

김용구 삼성증권 연구원은 “2021년은 역사적 고점에 따르는 코스피 영업이익 190조 원대 안착과 2022년 전연미담의 230조 원 돌파 가능성을 상정하고 있다”며 “최근 가파른 실적 눈높이 상향 조정을 고려할 경우, 실적 펀더멘탈 ‘기대증가 시대’에 도달하기까지 별다른 굴곡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원·달러 환율도 외국인에게 투자 변수다. 원화 강세가 이어진다면, 우호적 투자 환경이 조성될 수 있어서다. 전날 원·달러 환율은 전일 대비 0.20원 오른 1127.70원에 마감했다. 지난 10일 최고 1142원까지 올랐다가 소폭 하락하며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회복된 것으로 해석된다. 원화 강세가 이어진다면, 외국인 순매수 강도가 높아질 수 있다. 이재만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외국인 순매수 여력이 큰 업종을 꼽아 보면 자동차, IT가전, 반도체 등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며 “국내 산업체 섹터 중에는 현재 수준에서 원화 강세 시 건설, 소재 섹터 중에서는 정유 업종에서 외국인 순매수 여력이 가장 크다”고 분석했다.

◇곳곳에 복병=그러나 지나친 낙관론은 금물이라는 의견도 팽팽하다. 글로벌 경기 기대만큼 살아나지 않는다면 주가가 빠지지 않을 수 없고, 현재 상황의 원인인 코로나19 우려가 여전한 점, 글로벌 증시가 인플레이션 우려에 급등락을 계속하고 있다는 점 등이 이유로 꼽힌다.

증권가 전문가들은 “외국인 러브콜이 다시 오려면 건전한 형태의 인플레이션이 나타나야 하는데, 경기 불안과 실적 등 많은 요인을 놓고 볼 때 그렇다고 단언하기엔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화투자증권 박승영 연구원은 “대형 성장주들의 주가가 오르기 위해서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참여가 필요한데, 외국인은 올해 들어 한국과 대만 주식시장에서 팔자를 지속하고 있다”면서 “이는 IT 중심의 제조업 국가에 대한 선호가 지난해와 같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이인아 기자 jih@

금감원, 옵티머스 투자원금 전액 반환 권고

옵티머스 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최대 판매사 NH투자증권이 투자원금 전액을 반환하라는 금융당국의 결정이 나왔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5일 금융분쟁조정위(분조위)를 열어 NH투자자가 판매한 옵티머스 펀드 관련 분쟁조정 신청 2건에 대해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는 민법에서 애초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만큼 중요한 사항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을 경우 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다.

금융투자상품 분쟁조정에 이 같은 법리가 적용된 것은 라임 일부 펀드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투자자와 NH투자 양측 모두가 조정안 접수 후 20일 이내에 수락해야 조정이 성립된다. 추가 분쟁조정에 해당하는 나머지 일반투자자에 대해서는 분조위 결정내용에 따라 자율조정 등의 방식으로 처리할

방침이다. 조정이 성립될 경우 3000억원 규모의 투자원금이 반환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감원은 설명했다.

NH증권이 2019년 6월~2020년 5월 판매한 옵티머스 펀드 54개(6974억원) 중 35개(4327억원)이 환매 연기됐는데, 이중 일반투자자가 자금이 약 3000억원에 달한다. 전문투자자들에 대한 펀드 판매분(1249억원)은 NH투자의 자율조정에 맡기기로 했다.

조정이 결렬되면 투자자들은 NH투자 등을 상대로 민사 소송을 벌여야 한다.

한편 지난달 26일까지 NH투자증권 관련 분쟁조정 신청은 총 326건으로 집계됐다. NH투자증권이 판매한 옵티머스자산운용 사모펀드 57개 중 35개에서 환매가 연기됐다. 개인 884좌, 법인 168좌에서 피해가 발생했고, 금액으로 따지면 4237억 원 규모의 환매가 지연됐다. 이인아 기자 jih@

“기업 장밋빛 등급 전망 잇따라”

재무구조 개선·수익성 향상 반영
대우건설·풍산 등 등급전망 올려

“앞으로 1년 동안 신용등급의 하향 조정이 상당 조정보다 더 많을 것이다”

글로벌 신용평가사 무디스의 충격적인 경고가 무색해졌다. 기업 신용등급 전망이 잇따라 장밋빛으로 바뀌고 있다. 추락천사(신용등급이 ‘투자등급’에서 ‘투기등급’으로 떨어진 회사)들까지 백조로 다시 태어나고 있다. 차입금 감축 등 재무구조 개선과 수익성 향상 등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6일 나이스신용평가 한국신용평가 한국기업평가 등 국내 신용평가 3사에 따르면 대우건설, LG디스플레이, 풍산, GS건설 등의 등급전망이 상향됐다.

LG디스플레이는 신용등급 전망이 반년 만에 ‘안정적’으로 복귀했다. 신용등급은 A+를 유지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비대면 관련 수요 증가와 원재료 부족으로 액정표시장치(LCD) 부품의 수급이 개선된 영향이 컸다.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부문도 대형 부문의 증설 효과가 가시화되고 중소형 부문의 출하 물량이 늘면서 고정비 부담이 완화됐다.

대우건설은 안정적에서 긍정적으로 등급전망이 좋아졌다. 한국기업평가는 대우건설의 해외 현장 손실위험이 줄어들었다. 채산성이 좋은 주택현장을 다수 확보해 우수한 영업수익성을 유지할 것으로 판단했다.

GS건설의 등급전망도 ‘안정적’에서 ‘긍정적’으로 상향됐다. 나이스신용평가 흥세진 연구원은 등급전망 상향의 근거로 ‘해외 프로젝트 원가율 조정위험이 축소되고 있다’면서 ‘채산성이 양호한 주택현장을 다수 확보해 우수한 수준의 영업수익성이 중기적으로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현대차증권, 유안타증권, 한화투자증권 등 증권사들도 등급이 오르거나 장밋빛 전망으로 바뀌었다.

A+인 현대차증권은 AA-상향 조정됐다. 현대차증권은 한신평, 나신평, 한기평 모두에서 AA- 등급을 보유하고 있다. 유안타증권도 A+에서 AA-으로 올랐다. 교보증권은 나신평으로부터 신용등급을 AA-으로 평가받았고, 한신평에서도 AA-로 상향조정됐다.

BNK투자증권은 최근 기업신용등급을 A+으로 신규 평가받았다. 한화투자증권은 안정적에서 긍정적으로 등급전망이 바뀌었다. 신용도에 부담을 줬던 파생결합증권 운용기조가 자체헤지에서 백투백헤지로 빠르게 바뀌었고, 수익 증가추세가 지속된 결과다.

그러나 최근 신용등급 전망이 상향 조정된 기업들이 대기업 계열사라는 점을 고려하면 국내기업 전체를 반영한 결과로 보기에는 어렵다는 의견도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의 영향권에 있는 기업은 여전히 재무구조가 취약하고, 미·중 무역갈등, 인플레이션 우려 등 대내외 변수가 산재했기 때문이다. 손엄지 기자 eom@

“韓증시, 주요국 대비 여전히 저평가”

한국 주가수익비율 13.8배 ‘코리아 디스카운트’
“선진국과 비교 무리” vs “자산가치 대접 못 받아”

코스피가 3000선에 올라선 이후에도 한국 증시는 여전히 선진국뿐 아니라 신흥국에 비해서도 저평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향후 12개월 예상실적 기준 코스피지수의 주가수익비율(PER)은 현재 13.8배다.

한국 증시의 PER은 미국(22.7배), 일본(17.8배)과 같은 선진국은 물론, 인도(23.1배) 대만(18.6배) 등 다른 이머징 증시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영국 13.4배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국가보다 저평가 상태다.

통상 PER이 낮을수록 기업이 벌어들이는 이익에 비해 주가가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때문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현대자동차 등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미국의 같은 업종 기업에 비해 낮은 PER을 기록하면서 이른바 ‘코리아디

스카운트’ 현상을 심화시켰다는 분석이 나온다.

1주당 청산가치를 판별하는 주가순자산비율(PBR)도 여전히 1.32배 수준에 머문다. 12개월 선행 PBR 기준으로 홍콩(1.28배) 등을 제외하면 대부분 국가보다 낮다. 지난 99년 만 해도 한국증시의 PBR은 1.44배였다.

주당순이익(EPS) 증가율을 보면 한국증시가 푸대접을 받는 것이 드러난다. MSCI 지수 기준으로 1년 후 추정 이익을 고려한 한국의 EPS 증감률(35.6%)은 아시아권에서 일본(14.3%), 중국(22.6%), 대만(19.7%), 인도(21.6%) 보다 높다.

또한 선진시장 15.8%, 유럽 9.4%, 신흥시장 22.3% 등 보다 월등히 높다. 비관론자들은 한국 증시가 선진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기에는 아직 2% 부족하다는 평가다. 바로 한국경제와 자본

국가별 PER 밸류에이션



시장의 취약한 구조 때문이다.

한국은 소규모 개방경제인 데다, 자본시장이 거의 100% 개방돼 글로벌 경기, 미국의 금리 등 외부 변수에 쉽게 흔들릴 수밖에 없다. 시가총액의 약 30% 이상을 보유한 외국인 투자자들의 영향력도 절대적이다.

반면 한국증시를 재평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크다. 기업의 이익 성장성이나 자산가치 등에 비해 한국증시가 대접을 못 받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메리츠증권 강봉주 연구원은 현재 이익 전망이 유지된다는 가정 하 PER 13배, 14배 수준에서 연말 코스피를 각각 3570포인트, 3840포인트로 예상했다.

유희림 기자 wiseforest@



빗썸 지수 (2021년 4월 6일 17:00, KST)

코인명	가격(원)	전일대비 등락(원)	코인명	가격(원)	전일대비 등락(원)
비트코인	50,643,321	92,000 (12.4%▲)	이오스	8,695	755 (9.5%▲)
이더리움	2,778,000	2,013,161	트론	176	2 (1.1%▲)
리플	1,853,393	283 (31.3%▲)	스텔라루멘	670	83 (14.1%▲)
라이트코인	290,400	28,100 (10.7%▲)	비트코인에스비	321,200	18,400 (6.1%▲)
에이다	1,590	57 (3.7%▲)			

전 세계 1등 가상화폐 거래소

압구정 현대도 3.3㎡당 1억 거세진 ‘똥똥한 한 채’ 쏠림

압구정 현대7차 ‘80억’ 신고가 대형 평균 매매가격 22억 돌파 정부 다주택자 규제 ‘반사효과’ 선거發 ‘재건축 활성화’ 기대도

정부가 고가 주택을 겨냥한 고강도 규제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서울 중대형 아파트 선호현상은 더 두드러지고 있다.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규제를 피해 ‘똥똥한 한 채’를 찾는 수요가 오히려 늘어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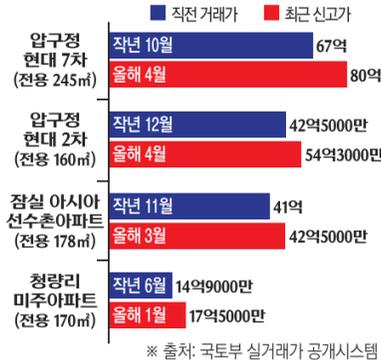
업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주춤하는 상태이지만, 일부 강남 고가 아파트에서는 ‘신고가’ 거래가 속출하고 있다. 특히 4·7 재보궐 선거에 출마한 주요 서울시장 후보들이 재건축 규제 완화를 공언하면서 강남권을 중심으로 한 재건축 시장이 들쭉날쭉한 모양새다.

KB국민은행 월간 주택가격 동향 자료를 보면 3월 서울 대형(전용면적 135㎡ 초과)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22억1786만 원으로, 처음으로 22억 원을 넘어섰다. 관련 통계를 작성한 2016년 1월 이후 최고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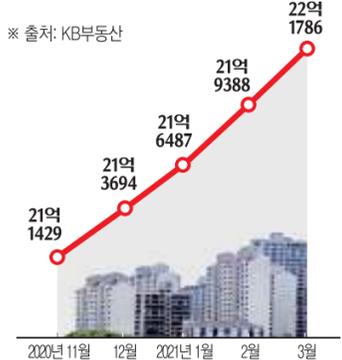
서울 대형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올해 들어 상승세가 뚜렷하다. 지난해 11월 21억1429만 원으로 21억 원을 넘어선 이후 올해 1월 21억6487만 원, 2월 21억9388만 원에 이어 3월 22억 원을 돌파했다.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의 대형 아파트가 가격 상승을 견인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실제로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7차 전용 245㎡형은 5일 80억 원에 거래됐다. 역대 최고가다. 이 아파트의 직전 신고가는 지난해 10월 67억 원이었다. 6개월 여만에 13억 원이 오른 셈이다. 이는 전국에서 올해 거래된 아파트 가운데 가장 높은 가격과 동일한 매매가다. 앞서 서울 용산구 한남동 ‘한남더힐’ 전용 243㎡형이

서울 주요 대형 아파트 신고가 및 직전 거래가 (단위: 원)



서울 대형 아파트 월별 평균 매매가 (단위: 만 원, 전용면적 135㎡ 이상)



올해 2월 80억 원에 거래된 바 있다.

인근 한 공인중개사는 “압구정동 일대 대형 아파트는 가격이 워낙 비싸 대출이 나오지 않는 데도 매물을 잡으려는 수요가 적지 않다”며 “대기 수요는 늘고 있는 데 매물이 많지 않다 보니 부르는 게 값일 정도”라고 말했다.

압구정 현대2차 아파트 전용 160㎡형도 같은날 54억3000만 원에 팔렸는데, 역시 신고가 거래다. 이 아파트의 경우 직전 신고가가 지난해 12월 기록한 42억5000만 원으로, 4개월 만에 11억8000만 원이 올랐다.

서초구에서는 반포동 래미안 퍼스티지 전용 198㎡형이 지난달 4일 48억5000만 원에 팔리며 신고가 기록을 새로 썼다.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와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 모두 재건축 규제 완화를 약속했다. 특히 각종 여론조사에서 높은 지지율을 보이는 오 후보가 언론 인터뷰를 통해 한강변 35층 층수 규제 등을 시장 직권으로 폐지하겠다고 밝히면서 한강변 단지를 중심으로 재건축 기대감이 커진 상황이다.

재건축 입주권을 확보하려는 수요가 늘

고 있는 것도 이 일대 아파트값을 끌어올리는 원인이다.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아파트를 조합 설립 인가 이후에 매수하면 입주권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조합 설립 직전에 매수하려는 수요가 많아졌다는 게 현지 부동산 중개업소들의 설명이다. 이번에 신고가를 기록한 압구정동 일대 아파트들 역시 조합 설립 인가를 앞두고 있다.

서울 대형 아파트값이 앞으로 더 오를지는 미지수다. 정부의 다주택자 규제에 따른 반사효과로 ‘똥똥한 한 채’에 집중하려는 수요가 여전한 데다 서울시장 선거 뒤 재건축 추진에 속도가 붙으면 대형 고가 아파트의 몸값은 더 치솟을 것이라는 시각이 많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보유세(재산세+중부세) 강화 등에 부담을 느낀 다주택자들이 ‘똥똥한 한 채’로 갈아타는 현상이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반론도 만만찮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공시가격이 크게 오르고 보유세 부담 증가가 예고된 상황에서 세금 과세 기준일인 6월이 다가오면서 매물이 하나씩씩 나오면서 가격도 조정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재영 기자 lry0403@

1차 투기사태 매듭도 못 지었는데 2차 신규택지 강행하는 정부

정부가 2·4 공급대책 후속 조치로 조만간 2차 신규 택지를 공개할 방침이다. 하지만 1차 신규 택지로 선정됐던 경기 광명·시흥신도시 땅 투기 의혹의 실제 규명이 이뤄지지 못한 상황에서 정부가 2차 택지 발표 일정을 강행할 경우 시장의 혼란만 가중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총 14만9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2차 신규 택지를 이달 발표한다.

앞서 정부는 2·4 대책을 통해 신규 공공택지 개발로 주택 25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 이후 한 달도 되지 않은 같은달 24일 10만1000가

촌지구 역시 3기 신도시 발표 당시 유력 후보지였다. 이들 지역은 서울 접근성이 좋고, 택지지구 개발의 기반 조사를 마친 곳여서 공급 속도나 서울 수요 분산 효과는 기대할 수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역으로 보면 투기 의혹 가능성도 그만큼 높은 곳들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2차 신규 택지 발표 전·후로 토지거래내역 분석 등을 통해 투기 세력을 색출하겠다”고 강행의지를 밝혔다.

시장에선 투기 방지책으로 내놓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이

이달 중 15만 가구 택지 발표 고양 원흥·김포 고촌 등 물망 ‘유력 후보지로 많이 거론된 곳 투기사태 또 터지면 민심 폭발’

구 규모의 1차 신규택지 3곳을 발표했다. 여의도 4배 규모의 경기광명·시흥신도시에서 7만 가구, 부산 대저지구

와 광주 산정지구에서 각각 1만8000가구, 1만3000가구를 공급기로 했다. 이달 나올 물량은 1차 신규 택지 공급량을 제외한 나머지 15만 가구다.

2차 신규 택지로는 서울 접근성과 수요 분산 효과를 고려할 때 서울 도심의 경계지역에 있거나 추가적인 교통 개선 사업이 필요하지 않은 곳이 지정될 가능성이 크다. 고양 원흥지구와 고양 화전지구, 김포 고촌지구, 하남 감북 지구 등이 유력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다.

현재 거론되는 부지 대부분은 과거 택지지구로 지정되거나 택지지구 지정 때마다 술하게 물망에 오르던 곳들이다. 하남 감북지구(감북동·감일동·광암동·초이동)는 2010년 보급자리 주택지구로 지정되기도 했다. 김포고

단기 거래량 급증 등 단순 거래만 들여다볼 뿐 자금 출처를 현미경처럼 들여다보긴 사실상 어렵다는 지적이 많다. 투기 거래가 포착돼 수사를 의뢰한다고 해도 부당이익을 환수하는 과정에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것이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경인여대 교수)는 “깜짝 택지가 등장할 가능성도 있지만 그간 수없이 입에 오르내리던 택지들에는 투기 거래가 적지 않았을 것”이라며 “여론에 밀리면 안 된다는 우려에 발표를 서두를 수 있지만 후보지 발표 뒤 투기 거래가 더 포착되면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은 겹잡을 수 없이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정부가 신규 택지 발표를 강행해도 투기 여부 조사에 하세월이 걸리고, 부당이익 환수도 순항하기 쉽지 않아 주택 공급이 상당 기간 지연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김동호 기자 sorahosi@

경매도 ‘불장’ ... 3월 낙찰가율 82.6% 역대 최고

서울 아파트 낙찰가율 112.6%... 부산·인천·대구·대전도 100% 넘어

지난 3월 전국 경매 낙찰가율(감정가 대비 낙찰가 비율)이 82.6%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매 진행 건수는 1만1850건으로 4개월만에 1만 건을 넘어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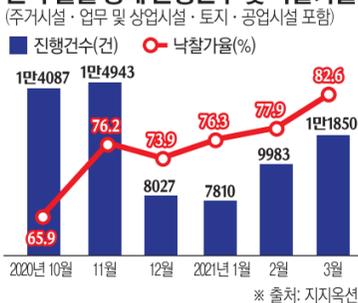
지난달 서울 아파트 낙찰가율은 112.2%로 직전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최근 여러 지표상 서울 집값 상승세가 한풀 꺾이는 등 잠잠한 모습이지만 시세보다 싼 값에 내 집마련을 하려는 실수요자들이 경매시장에 몰리면서 낙찰가율을 끌어올리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서울 집값이 상승할 것이라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감정가보다 비싸게 낙찰받는 사례도 늘고 있다.

6일 법원경매 전문기업 지지옥션에 따르면 3월 전국 주거·업무 및 상업·토지·공업용을 모두 포함한 경매 진행 건수는 1만1850건으로 이중 4926건이 낙찰됐다. 평균 41.6%의 낙찰률(경매 진행 건수 대비 낙찰 건수 비율)을 기록한 것이다. 평균 응찰자 수는 경매 물건당 4.2명이었다.

낙찰가율은 82.6%로 2003년 7월(79.1%) 이후 17년 8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전국 모든 용도 부동산의 월별

전국 월별 경매 진행건수 및 낙찰가율 (주거·업무 및 상업·토지·공업용 포함)



경매 낙찰가율이 80%를 넘긴 건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지난달 서울 아파트 낙찰가율은 112.2%로 작년 10월 기록한 최고치(111.8%)를 넘어섰다. 서울·수도권 전체(109%)와 대구(122.8%) 아파트 낙찰가율도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6개 광역시 중 부산·인천·대구·대전 등 4곳의 아파트 낙찰가율은 100%를 넘었다.

지난해 집값이 급등한 게 경매 낙찰가율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법원 경매의 경우 통상 경매 시정보다 6개월 이전에 감정이 이뤄진다. 따라서 감정가격과 현재 시세 간에 격차가 발생,

가격이 싸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경매로 내집 마련 수요가 몰렸다는 것이다. 서울 아파트의 경우 코로나 사태 이전보다 경매 물량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참여자가 몰린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장근석 지지옥션 팀장은 “올 들어 경매에 대한 관심이 부쩍 늘어난 데다 따뜻한 날씨와 본격화한 코로나 백신 접종 등이 경매 낙찰가율을 밀어 올리는 데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특히 아파트 경매가 감정을 넘겨 낙찰되는 현상이 지역을 가리지 않고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최근 경매 진행된 경기 평택시 이충동 주공4단지 아파트는 51명이 치열한 입찰 경쟁을 벌인 끝에 감정가보다 훨씬 비싼 2억1288만원에 새 주인을 찾았다. 낙찰가율은 무려 168%에 달했다. 경기 용인시 기흥구 구갈동 강남마을 코오롱하늘채 아파트도 40명이 입찰에 나서 감정가(3억1500만 원)보다 2억 원 넘게 비싼 5억4000만원(낙찰가율 171%)에 낙찰됐다.

장 팀장은 “집값이 결국엔 더 오를 것이라 기대감에 감정이 이상으로 낙찰을 받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김동호 기자 sorahosi@

서울 오피스텔 월세 1위는 ‘성북구’

105만원, 작년보다 12% 올라 ‘강남’ 92만원 ‘송파’ 88만원 ‘은평’ 41만원으로 가장 낮아

서울에서 오피스텔 월세가 가장 비싼 지역은 성북구로 조사됐다.

부동산 플랫폼 업체 다방이 자사 애플리케이션(앱)에 등록된 오피스텔 월세 물건을 조사한 결과, 3월 기준 서울에서 오피스텔 월세가 가장 비싼 지역은 성북구였다. 지난달 성북구 오피스텔 평균 월세는 105만 원으로 지난해 같은 달(81만 원)보다 12.2% 올랐다.

다방 측은 “성북구는 고가 오피스텔 중심으로 매물이 늘고 있는 추세”라며 “기업이 많은 종로 및 동대문과 인접한데다 산과 공원 등 정주 환경도 우수하다는 점에서 신규 오피스텔이 늘고 있다”고 풀이했다.

성북구 다음으로 강남구(92만 원)와 송파구(88만 원), 용산구(84만 원) 순으로 오피스텔 월세가 비쌌다.

지난달 오피스텔 월세가 가장 낮았던 지역은 은평구였다. 지난해 3월 49만 원이던 은평구 오피스텔 평균 월세는 지난달엔

41만 원으로 4.7% 하락했다. 중랑구(47만 원)와 노원구(49만 원), 금천구(50만 원), 구로구(52만 원) 등이 그 뒤를 이었다.

다방에서 오피스텔 매물이 가장 많은 서울 지역은 동대문구였다. 다방에 등록된 오피스텔 매물 열 건 중 한 건(12.5%)은 동대문구에 있었다. 회기동과 청량리동을 중심으로 신축 오피스텔이 늘고 있어서다. 이어 강서구(10%), 송파구(8.3%), 마포구(6.5%), 강남구(6.1%) 순으로 오피스텔 매물이 많았다.

박성민 스테이33 다방 총괄이사는 “최근 서울 주택 가격이 전체적으로 상승하는 데다 부동산 규제에서 비교적 부담이 적은 오피스텔이 대체 주거지로 주목받으면서 월세 가격이 상승한 것으로 풀이된다”고 말했다.

그는 “기존에는 소득 대비 부동산에 대한 지출에 다소 소극적이었던 대학생이나 사회초년생들이 최근 코로나 19 장기화에 따른 사회적 제약 등으로 소비 패턴이 변화함에 따라 부동산 지출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고 있다”며 “1인 가구의 비중이 점점 늘어남과 동시에 고가 오피스텔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박종화 기자 pbell@

‘이성윤 특혜’ 논란에 검찰총장 인선 안갯속

관용차 의혹 등으로 입지 흔들 공수처 공정성 시비로 비화

후보추천위 재보선 후 열릴 듯 봉옥·김오수·조남관 등 하마평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면담 특혜 논란으로 차기 검찰총장 구도가 흔들리고 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후임 후보군을 추려낼 법무부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회의가 7일 재보궐선거 이후 열릴 전망이다.

차기 검찰총장은 이 지검장이 유력하게 거론돼 왔다. 그러나 최근 잇단 의혹과 논란에 휩싸이면서 불투명한 상황이다.

호남 출신인 이 지검장은 문재인 대통령과 경희대 동문으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법무부 검찰국장 등 요직을 거쳤다. 윤 전 총장과 법무부 장관의 갈등 구도에서는 서울중앙지검장으로서 여론 인사로 분류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가는 시점에서 차기 검찰총장 1순위로 점쳐졌다.

하지만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

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 관련 수사 외압 의혹이 불거지면서 분위기가 바뀌었다. 수사 대상에 오른 이 지검장은 수사 중단 압박을 넣은 적이 없다며 검찰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사건이 검찰과 공수처를 오가는 과정에서 특혜 조사 논란도 불거졌다. 김 처장은 사건을 수원지검으로 재이첩하기 직전 이 지검장을 면담하면서 조서 등 기록을 남기지 않아 공정성 논란이 제기됐다.

특히 김 처장이 이 지검장을 정부과천청사 인근에서 관용차에 태워 청사에 들어오게 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특혜 조사 의혹을 두고 폐쇄회로(CC)TV 기록 제출 등 검찰과 공수처의 공방도 이어지고 있다. 공수처는 이날 이 지검장을 비공개 면담한 당일 청사 내 조사실 복도 CCTV 영상을 수원지검에 제출하기로 했다.

일각에서는 이 지검장을 둘러싼 각종 의혹과 논란으로 차기 검찰총장 후보 추천에 부담이 따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정권 말기에 여권과 관련한 여러 사건의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이 지검장의 임명을 강행할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 지검장 외에 봉옥 전 대검 차장, 김오수·이금로 전 법무부 차

관, 양부남 전 부산고검장 등이 후보로 거론된다.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 차장), 구본선 광주고검장 등도 차기 검찰총장 후보군이다. 비검사 출신인 한동수 대검 검찰부장이 파격 임명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차기 검찰총장 후보는 다음 주 초에 발표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법무부는 지난달 11일 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22일 까지 국민 선거를 받아 심사대상자를 선별 중이다. 윤 전 총장 임명 당시에는 2019년 5월 10일 추천위원회가 구성돼 총장 후보 추천까지 35일 걸린 바 있다.

정수천 기자 int1000@



“의료진 여러분 감사합니다”

보건부의 날을 하루 앞둔 6일 오후 경기도 용인 에버랜드 포시즌 가든에서 활짝 핀 튤립 너머로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힘쓰는 의료진의 노고에 감사하는 메시지가 상영되고 있다. 뉴시스

자회사에 물품 저가공급 공정위, 롯데칠성 고발

롯데그룹 계열사인 롯데칠성음료가 자회사인 MJA와인의 시장 퇴출을 막기 위해 저가로 제품을 공급하는 등 부당 지원한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계열사 부당 지원 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롯데칠성(지원주체)과 MJA와인(지원객체)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11억8500만 원(각각 7억700만 원·4억7800만 원)을 부과하고, 롯데칠성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롯데칠성은 백화점에 와인을 판매해온 MJA와인이 2009년과 2013년에 완전 자본삭식에 빠지자 자신의 와인 공급가격에 대해 할인율을 높게 적용하는 방식으로 MJA와인에 저가로 와인을 공급했다.

또 2009년 9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MJA와인의 와인 판매에 드는 판촉사원 비용을 대신 부담하기도 했다.

세종=서병근 기자 sbg1219@

대법 “하도급 작업자 사망, 원청업체도 책임”

“구체적 작업행위 통제 인정” 두산건설에 벌금형 원심 확정

하도급 작업자가 사망한 사고에 대해 현장을 전반적으로 관리한 사업주(원청업체)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약 대법관)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두산건설의 상고심에서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두산건설은 2012년 한국철도시설공단 이 발주한 수도권고속철도 일부 구간 사업을 수주했다. 공사 진행 중 2015년 하도급

업체 소속 작업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잇따라 발생했다. 당시 안전장비 없이 배관 해체작업을 하던 외국인 근로자는 30m 높이에서 추락해 사망했고, 또 다른 작업자는 낙하한 건설 구조물에 맞아 숨졌다.

두산건설은 사업주로서 하도급업체가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도록 해 함께 기소됐다.

재판에서는 두산건설 등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 29조 3항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취할 의무 부담의 주체가 불지

가 쟁점이 됐다.

두산건설 측은 “법에 따라 사업주에게 작업현장의 안전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과하려면 도급인과 수급인 작업의 혼재성이 있어야 한다”며 “당시 함께 작업하지 않았으므로 책임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 2심은 “전체적인 공사를 관리하기 위해 상당수의 현장관리인력을 투입, 각 공정의 진행 상황을 구체적으로 보고받고 이를 지시했으며 위험성 평가 등 구체적인 작업행위를 통제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정수천 기자 int1000@

한국타이어家 경영권 분쟁 21일 조양래 성년후견 심문

조양래 한국엔컴퍼니 회장의 성년후견 심문이 2주일 후에 열린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은 조 회장에 대한 성년후견 심문 기일을 이달 21일로 정하고 출석을 요구했다.

조 회장의 건강 상태에 대한 법원 조사는 지난달 10일 이뤄졌다. 당시 조사관은 조 회장이 고령인 점을 고려해 방문조사를 했다.

조 회장에 대한 신체 감정 이후 추가 소명자료 등을 거쳐 법원이 후견 개시 여부를 결정하게 되기까지 3~4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장녀 조희경 한국타이어나눔재단 이사장은 지난해 7월 30일 조 회장에 대한 성년후견 심판을 청구해 경영권 분쟁에 불을 지폈다.

당시 조 이사장은 조 회장이 평소 신념과 다른 결정들이 갑작스럽게 이뤄진 만큼 자발적 의사에 의한 것인지 객관적인 판단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청구 사유를 밝혔

다. 같은 해 10월 5일에는 장남 조현식 한국엔컴퍼니 부회장이 청구인과 같은 자격을 갖는 참가인 신청서를 내며 성년 후견 심판 청구에 적극적인 참여 의사를 표명했다. 차녀 조희원씨도 최근 참가인으로 입장을 바꿨다. 나경연 기자 contest@

Gary Armstrong
Philip Kotler
Marc Oliver Opresnik 지음
정연승·박철·이형재·조성도 옮김
600쪽 | 값 38,000원

마케팅의 아버지, 코틀러 교수의 최고의 마케팅 솔루션!

“돈 버는 기업들은 마케팅 계획이 다 있구나!”

★★★★★
세계적인
마케팅 입문서
Marketing: An Introduction
14판
번역서 출간

디지털 시대, 글로벌 마케팅 트렌드 읽기
: 고객가치와 고객참여를 통한 관계 구축

고객감동을 실현한 기업에는
장기적인 성장과 수익이 자연스럽게 뒤따를 것이다!

목차
 PART 1 마케팅 정의 및 마케팅 프로세스 1 마케팅: 고객가치와 고객참여의 창출 | 2 기업전략과 마케팅전략: 고객참여, 가치, 관계를 위한 파트너십 구축
 PART 2 시장과 소비자에 대한 이해 3 마케팅환경의 분석 | 4 마케팅정보의 관리: 고객통찰력 얻기 | 5 소비자와 기업구매자 행동의 이해
 PART 3 고객가치창출 전략과 믹스의 설계 6 고객가치창출 마케팅전략: 표적고객을 위한 가치창출 | 7 제품, 서비스, 브랜딩 전략: 고객가치 구축 | 8 신제품 개발: 그리고 PLC의 관리
 9 가격결정: 고객가치의 이해와 포착 | 10 마케팅 경로: 소비자 가치 전달 | 11 소매업과 도매업 | 12 고객참여와 고객가치 커뮤니케이션: 광고와 PR
 13 인적판매와 판매촉진 | 14 다이렉트, 온라인, 소셜 미디어, 그리고 모바일 마케팅
 PART 4 마케팅 영역의 확대 15 글로벌 마켓 | 16 지속가능한 마케팅: 사회적 책임과 윤리

교문사 경기도 파주시 문발로 116 | 전화 031-955-6111~4 | 팩스 031-955-0955 | genie@gyomoon.com

BIG BANG® Class가 다른 상위 0.1%를 위한 브랜드 - 뱅

고반발 클럽 설계 기술과 경량화 기술은 이미 타사와 **초격차의 기술 우위** 에서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1st Shot 세계 최고 고반발 드라이버 + 2nd Shot 세계 최고 고반발 우드 + 3rd Shot 세계 유일한 고반발 아이언 = **100** yd 증가

PAR 5 3rd shot 까지 합계

뱅크골프클럽으로 **100** yd 더 나가도록 세계적인 프로들이 도와드립니다!

클럽구매 선택에서부터 클럽스펙수정, 필드 레슨까지

최대의 비거리를 나가게 하기 위해서는 그 골퍼에게 **최적화된 스펙의 클럽**이 필요합니다
레슨실력과 첨단 과학적 프로그램으로 스윙분석을 잘하는 능력뿐만 아니라
골프 클럽 지식까지 겸비한 **세계 BEST 100**프로가 클럽을 만들어 드립니다

김주미 (LPGA 1승, KLPGA 3승, KLPGA대상/최우수선수상/신인상/최저타수상 4관왕, JTBC골프, SBS골프 방송), 박소영 (KLPGA 3승, 국가대표 코치)
송보배 (LPGA 1승, JLPGA 2승, KLPGA 5승, LET 1승, KLPGA대상/상금왕/신인상/최저타수상 4관왕, JTBC골프 방송), 이지영 (LPGA 1승, KLPGA 2승)
이병윤 (JTBC골프 라이브레슨, 수원여대 골프교수), 송경서 (JTBC골프 해설위원/라이브레슨 방송), 이현 (JTBC골프 라이브레슨, 경찰대/경성대 골프교수)
염동훈 (KPGA 최우수지도자상, 주니어선수/투어프로 코치 선호도1위), 장활영 (SBS골프/JTBC골프 중계, 한국골프대/가천대 골프교수), 조영란 (KLPGA 2승)
최우리 (KLPGA 1승, KLPGA 최우수선수상, SBS골프/MBC 방송), 허석호 (KPGA 2승, JGTO 8승, KPGA대상, 골프다이제스트 선정 베스트 교습가 1위, SBS골프아카데미 방송)
문현희 (KLPGA 2승, 인하대 스포츠심리학 박사수로, SBS골프 및 JTBC레슨 방송), 신준 (미 PGA Certified Professional, JTBC 골프 레슨 방송, JTBC 골프 해설위원)
이정연 (KLPGA 1승, KLPGA 신인상, 우수선수상, 한국골프대학 교수, SBS골프 레슨방송, LPGA 9H 최저타수 28타), 이승호 (KPGA 6승, JGTO 신인상)



세계 어느 기업도 도전하지 않고 따라 하기도 힘든
최적화 기술을 실현 시키고 있습니다

- 드라이버를 100m밖에 못 보내는 분도 쉽게 스윙 할 수 있는 타사 대비 30% 더 가벼운 무게의 클럽부터 400m정타자가 사용하는 무거운 클럽까지
- 아주 부드러운 R6강도의 샤프트로 된 클럽부터 3X강도의 강한 샤프트로 된 클럽까지

999,000가지 스펙중에서 사용자에게 최적화된 클럽을
PGA 정상급 프로가 사용하는 클럽을 제작해주는 시스템 그 이상으로 VIP 고객의 클럽을 만들어 드립니다

최적화된 뱅골프 클럽으로 100대 프로의 필드 레슨 신청 접수중 | 국내 최고 수준의 실력있는 프로,피터, 골프 클럽 전문가 모집중

BIG BANG®

(주)뱅크골프코리아

대표전화 1544-8070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로 26 한국골프회관 1층

www.banggolf.co.kr



‘삼성호암상’ 봉준호 감독 등 6명 선정

과학상에 허준이·강봉균 교수
공학 조경현·의학 이대열 교수
사회봉사상은 이석로 병원장

과학상 2개로 분리 후 첫 선정
국제 인지도 제고 위해 명칭도

‘호암상 → 삼성호암상’ 바뀐

호암재단은 6일 삼성그룹 창업자인 이병철 전 회장을 기려 제정된 2021 삼성호암상 수상자를 발표했다. 지난해 삼성호암상 제정 30주년을 맞아 국가 기초과학 육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과학상을 물리·수학, 화학·생명과학 2개 부문으로 확대한 이후 첫 번째 수상자 선정이다.

올해 수상자로는 △허준이(38) 미국 스탠퍼드대 교수(과학상 물리·수학부문) △강봉균(60) 서울대 교수(과학상 화학·생명과학부문) △조경현(36) 뉴욕대 교수(공학상) △이대열(54) 존스홉킨스대 특훈교수(의학상) △봉준호(52) 영화감독(예술상) △이석로(57) 방글라데시 꼬람플라병원장(사회봉사상)이 선정됐다.

호암재단은 1991년 제1회 시상 이래 분야별로 탁월한 업적의 한국계 연구자들을 발굴, 시상하고 글로벌 무대에 적극적으로 소개하는 등 국내 기초과학 육성을 지원해 왔다. 호암재단은 지난해 상 제정 30주년을 맞아 국가 과학기술 역량 육성에 더 많



삼성호암상 수상자들. 왼쪽부터 과학상 물리·수학부문 허준이 미국 스탠퍼드대 교수, 과학상 화학·생명과학부문 강봉균 서울대 교수, 공학상 조경현 뉴욕대 교수, 의학상 이대열 존스홉킨스대 특훈교수, 예술상 봉준호 영화감독, 사회봉사상 이석로 방글라데시 꼬람플라병원장.

은 지원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구와 국내외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라 호암과학상을 물리·수학 및 화학·생명과학 2개 부문으로 확대 개편했다.

또 상의 장기적 발전과 국제적인 인지도 제고를 위해 올해부터 상 명칭을 ‘삼성호암상(SAMSUNG HO-AM PRIZE)’으로 변경했다. ‘글로벌 기업’ 삼성이 단독 후원하는 상임을 더욱 명확히 표방하기 위해서다. 삼성호암상 부문별 수상자에게는 상장과 메달, 상금 3억 원씩 총 18억 원이 수여된다. 시상식은 6월 1일에 개최된다.

물리 부문 과학상을 받은 허준이 교수는 현대 수학계의 오랜 난제였던 ‘리드 추측’과 ‘로타 추측’을 획기적인 대수기하학적 방법론으로 해결한 젊은 수학자다. 화학·생명과학부문 과학상을 수상한 강봉균 교수는 뇌에서 기억이 저장되는 장소를 분자 세포 수준에서 최초로 보여주고, 기억 저장과 조절의 원리를 규명했다. 공학상 수상자 조경현 교수는 문장의 전후 맥락까지 파악하여 고품질의 번역을 할 수 있는 ‘신경망 기계번역 알고리즘’을 개발해 인공지

능 번역 및 관련 산업계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 의학상을 받은 이대열 교수는 영장류의 뇌 기능 실험 연구에 경제학적 이론을 접목해 뇌의 의사결정 메커니즘을 규명했다.

봉준호 영화감독은 영화 ‘기생충’ 등 예술성과 대중성을 함께 갖춘 작품으로 세계 무대에서 한국 영화는 물론 한국 문화의 우수성을 드높여 온 점을 인정받아 수상자로 선정됐다. 이석로 원장은 방글라데시 꼬람플라 빈민 지역 주민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27년간 연 8만 명을 치료해 온 ‘한국인 슈바이처’다.

특히 올해엔 허준이 교수와 조경현 교수까지 30대 젊은 과학자 2명이 수상 명단에 포함됐다. 호암재단 관계자는 “세계 유수의 상들과 견주어 손색없는 수준을 인정받는 삼성호암상에 30대의 젊은 수상자가 2명이나 선정된 것은 학계의 큰 소득으로 평가된다”고 말했다.

삼성호암상은 올해 시상까지 총 158명의 수상자에게 289억 원의 상금이 수여됐다. 노우리 기자 we1228@

‘용진이형 賞’까지 만든 정용진 SSG 구단주

개막전 승리 맹활약한 두 선수 첫 선정해 한우 선물

이번엔 ‘용진이형 賞’이다. 구단 인수 후 전면에 나서 팬들과 소통하며 연일 화제를 이끌고 있는 SSG 구단주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이 이번엔 자신의 이름을 딴 상을 만들었다.

정용진 구단주는 개막전에서 홈런 2개씩 터뜨린 내야수 최주환과 최정을 1호 수상자로 선정하고 상장(사진)과 한우를 선물했다. 상장에는 “위 선수는 2021년 개막전에서 눈부신 활약으로 SSG 랜더스 창단 첫 승리를 견인하였기에 ‘용진이형 賞’을 수여하고 매우 매우 칭찬합니다”라는 설명이 적혔다.

최주환과 최정은 4일 롯데와의 홈 개막전에서 나란히 홈런 2개씩을 터트리며 팀의 창단 첫 승을 이끌었다. 최주환은 자신의 SNS에 정용진 구단



주가 보내온 한우와 상장을 공개한 뒤 “생각지 못했던 정용진 구단주님 감사 서프라이즈, ‘용진이형 賞’ 너무 감사합니다”라고 기쁜 마음을 드러냈다.

정 구단주는 구단 인수 직후부터 적극적인 ‘구단주 마케팅’을 벌이고 있다. 구단 인수 본격화를 체결한 뒤 음성 기반 소셜미디어 클럽하우스를 통해 야구단 인수 배경을 팬들에게 직접 설명하고 구단의 명칭, 상징색 등의 힌트도 줬다. 문선영 기자 moon@

팀 쿡의 애플카 힌트 “자율주행차는 사실상 로봇”

머스크 “테슬라 매각 접촉” 발언엔 “대화 나눈 적 없다” 부인

팀 쿡(사진) 애플 최고경영자(CEO)가 현재 관심이 집중되는 애플카에 대한 힌트를 제시했다. 애플과 현대·기아차와의 애플카 협이 중단된 후 이렇다 할 소식이 없던 가운데 다시 한번 시장의 관심을 끌어내고 있다.

5일(현지시간) CNBC방송에 따르면 쿡 CEO는 뉴욕타임스(NYT) 스웨이 팟캐스트에 출연해 애플이 현재 자율주행차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밝혔다. 쿡 CEO는 “내 생각에는 자율주행 자체가 핵심 기술이다. 넓게 보면 차도 결국은 로봇”이라며 “자율주행 기술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많고, 우리도 앞으로 애플이 무엇을 할지 지



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내부적으로 많은 것을 조사하는 중”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애플카 전체를 개발하는지, 혹은 차에 들어가는 기술을 개발하는지에 관한 물음에는 답하지 않았다. 다만 이번 인터뷰는 최소한 애플이 자율주행차 기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대목을 암시한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앞서 머스크 CEO는 자신이 지난해 애플에 회사 매각을 추진했지만, 쿡 CEO가 응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쿡 CEO는 “그가 일군 사업에 대해 큰 존경심을 갖고 있지만, 그와 대화를 나눈 적은 없다”며 “테슬라는 오랜 기간 전기차 시장에서 선두를 지키며 믿을 수 없는 일을 해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고대영 기자 kodae0@

JW중외박애상에 이송 서울성심병원장

JW중외제약은 제29회 JW중외박애상 수상자로 이송(사진) 서울성심병원장을 선정했다고 6일 밝혔다. JW중외박애상은 사회에서 박애정신을 구현하고 있는 의료인을 발굴하기 위해 JW중외제약과 대한병원협회가 공동 제정한 상으로 올해 29회를 맞는다.

이송 병원장은 ‘진료 현장에서 미래의 의료인을 육성해야 한다’는 신념을 바탕으로

로 도심형 거점병원이자 교육수련병원으로서 서울성심병원을 건립하고 후학 양성과 지역 의료에 헌신해온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자로 선정됐다.

이송 병원장은 1991년부터 현재까지 서울성심병원장으로 역임하며 병원경영에 충실하면서도 정형외과 전문의로서 1700여 건에 이르는 수지재접합수술과 2만 건이 넘는 인공슬관절 수술을 성공적으로 집

도, 많은 환자들을 치료했다.

JW중외박애상과 함께 수여되는 JW중외봉사상은 조재연 해민병원 호흡기·알레르기내과부장과 광주기독병원이 선정됐다.

시상식은 9일 오후 3시 30분 서울 드래곤시티호텔에서 방역 수칙 준수하에 최소한의 인원으로 개최된다.

유혜은 기자 euna@



‘한국 그래픽디자인 선구자’ 권명광 前 홍익대 총장 별세

한국 그래픽디자인 분야의 선구자로 꼽히는 권명광 전 홍익대 총장이 6일 별세했다. 향년 79세.

권 전 총장은 1965년 홍익대 미대 도안과를 졸업한 후 1974년 동 대학원을 나왔다. 고인은 1973년부터 12년간 홍익대 미술대학 전임강사 등으로 활동했고, 1985년부터 2007년까지 이 대학 시각디자인과 교수로 학생들을 가르쳤다. 그는 이후 1981년 시각디자인협회 회



장을 비롯해 그래픽디자이너협회장 등 여러 디자인 관련 협회 임원을 지냈다. 1988년 서울올림픽 개폐회식 디자인전문위원을 맡기도 했다. 고인은 2006년부터 2009년까지 홍익대 총장을 지냈고, 이후 상명대 디자인대학 석좌교수로 재임했다.

유족으로는 부인 김경진 씨와 자녀 권혁준 홍익대 교수·권혁진 제일기획 팀장이 있다. 발인은 8일 오전 7시, 장지는 분당 메모리얼파크, 빈소는 연세대학교 신촌장례식장 특2호실에 마련된다. 02-2227-7580. 연합뉴스

부음

▲류근영 씨 별세, 류영준(카카오페이 대표)·경진 씨 부친상, 한송희 씨 시부상, 윤장한 씨 장인상 = 5일, 강동경희대학교 병원 장례식장 22호, 발인 7일 오전 10시, 02-440-8800

▲김정희 씨 별세, 박재정(충남대학교 사회과학대학 교수)·채성(순천향대학교 의과대학 교수)·채필(법무법인 바른 대표 변호사)·혜련(명지대학교 명예교수) 씨 모친상, 최병선(서울대학교 명예교수) 씨 장모상, 조정신·박신원·배계순 씨 시모상 = 6일,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 11호, 발인 8일 오전 8시, 02-2258-5940

▲양정숙 씨 별세, 이인천(동화운수 사장)·명천(중앙대 광고홍보학과 교수)·수천(동화운수 전무) 씨 모친상, 이성도(원광대 외상센터 교수)·성화(전 광주보훈병원 응급의학과 교수)·성의(광주은누리 약국 대표약사)·성재(육군 중위) 씨 조모상 = 6일, 광주 수안센터병원 장례식장 2층 VIP실, 발인 8일 오전 8시 30분, 062-959-4444

▲이근배 씨 별세, 경미숙·수현(연합뉴스 국제경제부 부장) 씨 모친상, 남광우(라이온미싱 대표) 씨 장모상, 유정옥(환경정의 집행위원) 씨 시모상 = 6일, 분당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발인 8일 오전 8시, 031-787-1503

‘오싱’ 작가 하시다 스가코 별세

‘오싱’ 등 일본의 수많은 인기 TV 드라마 작가로 유명한 하시다 스가코(95)가 4일 오전 9시 14분 시즈오카현 아타미시 자택에서 급성 림프종으로 사망했다. 본인 뜻에 따라 장례는 치르지 않으며, 작별 모임도 열지 않는다.

6일 일본 지지통신에 따르면 서울에서 태어나 사카이시에서 자란 그는 일본여자대학교와 와세다대학에서 국문학(일본어)을 공부한 뒤 프리랜서 드라마 작가로 일했다. 일본 공영방송 NHK 대하드라마 여자 태합기(1981), 생명(1986), 가스 가노쓰보네(1989), 오싱(1983-1984),



TBS 계열 드라마 세상살이 원수 천지(1990) 등 여성의 관점에 입각한 화제작을 잇달아 내놨다.

특히 아미가타의 가난한 농가에서 태어나 자란 여성의 생애를 그린 NHK 드라마 ‘오싱’은 평균 시청률 52.6%, 최고시청률 62.9%를 기록하며 뜨거운 열풍을 일으켰다. 이 작품은 일본 내에서뿐만 아니라 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등 60여 개 국가와 지역에서 방영되면서 큰 인기몰이를 했다. 한국에서는 1985년 김민희 주연의 영화로 만들어졌다.

변효선 기자 hsbun@

서태종 전 금감원 수석부원장 한국금융연수원장에 선임

한국금융연수원은 6일 사원총회를 열어 서태종 전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을 선임 원장으로 선임했다.

서 원장은 전남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 행정대학원에서 행정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1985년 제29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재무부에서 공직을 시작한 뒤 금융감독위원회 은행감독과장·감독정책과장, 금융위원회 기획조정관·자본시장국장·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4년부터 2017까지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도 역임했다. 서 원장의 임기는 11일부터 3년이다.



연합뉴스

‘폴리스’ 서영우 前 퍼플엠 대표 티맵모빌리티 사외이사로 합류

서영우 전 퍼플엠 대표가 티맵모빌리티에 사외이사로 합류했다. 티맵모빌리티는 지난달 29일 제 1차 정기주주총회·이사회를 열고 서영우 전 퍼플엠 대표를 사외이사로 선임했다고 6일 밝혔다.

서 사외이사는 카풀 서비스 스타트업 ‘폴리스’ 대표로 일찍이 카풀 시장을 이끈 경험이 있다.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이사로 활동했다. 또 기아자동차의 모빌리티 전문기업 ‘퍼플엠(Purple M)’ 대표를 지내는 등 대표적인 모빌리티 전문가로 꼽힌다.



이지민 기자 aaaa3469@

인사

◆교육부 ◇부이사관 승진 △국제교육협력담당관 최수진 △전문대학지원과장 김석 ◇서기관 승진 △기획조정실 김나현 △고등교육정책실 박소하 신민규 △학교혁신지원실 이용욱 최지웅 △교육복지정책국 이장선 △학생지원국 남궁현 △평생미래교육국 김성희 △경북대 이흥근 △군산대 정근목 △금오공과대 김용섭 △목포대 황선환 ◇기술서기관 승진 △학생지원국 정책기획관 △교육안전정보국 유성석

◆문화체육관광부 ◇고위공무원 승진 △국민소통실장 김현기 ◇고위공무원 전보 △대변인 최보근 △관광정책국장 김장호 ◆산업통상자원부 ◇과장급 전보 △동아시아자유무역협정협상담당관 전동욱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 노인정책관 은성호 ◆통계청 ◇과장급 전보 △사회조사과장 신명철 ◆한국산업인력공단 ◇별정직 임용 △국제인력본부장 김성재 △국가직무능력표준위원장 김진실 ◆신영증권 ◇상무 △대체투자본부 글로벌마켓부 고성원

미국은 지금



김수동 산업연구원 통상정책실장

디지털세 도입 놓고 미-EU 간 고조되는 긴장감

바이든 행정부가 디지털세 문제는 국제기구를 통한 글로벌 합의를 추구하겠다는 입장을 천명하고 있어 각국의 디지털세 부과 방침에 대해 미국이 관세 보복으로 대응할지는 미지수이다. 미국의 전략은 OECD 협상틀에서 벗어나 301조 조사를 통한 관세 부과 긴장감을 조성한 후 나중에 OECD 협상 테이블로 돌아오거나, 관세 부과 위협을 통해 개별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다.

글로벌 경제의 디지털화가 확대됨에 따라 다수의 국가가 디지털 서비스에 대한 세금 부과 방법을 제안하고 이를 실행하기 시작하였다. 디지털 서비스에는 온라인 광고, 데이터 전송 서비스 및 온라인 마켓 플레이스 등이 포함된다. 현재의 세금 시스템이 영토 범위에 전적으로 의존하다 보니 디지털 서비스의 국경 간 거래 증가를 적절하게 포착하지 못한다는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 디지털세는 디지털 무역 확대에 따른 국경 간 서비스 거래에 적절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지난달 26일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오스트리아, 영국, 인도, 이탈리아, 스페인, 터키의 디지털세 부과에 대한 보복 조치로 무역법 섹션 301조 조사를 개시한다고 발표하였다. 여기엔 이들 국가의 디지털세가 미국에 기반을 둔 대규모 기술 회사를 대상으로 할 가능성이 있는지와 미국 회사를 부당하게 차별하는지 여부를 조사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인터넷 회사와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대상으로 한 다른 나라의 세금 부과에 대응하는 수단으로 시작한 섹션 301조 조사의 연장선상이다.

앞서 2020년 7월에 미국은 프랑스의 디

지털세 도입에 대한 보복으로 프랑스산 삼페인, 화장품, 핸드백 등 수입품 13억 달러에 대해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프랑스는 미국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협의에 계속 참여하는 조건으로 디지털세 징수를 중단하는 것에 동의하였고, 미국의 관세 부과에 잠정적으로 연기되었다. 그러나 같은 해 11월 말 프랑스 정부는 인터넷 회사에 디지털세 징수를 통보하였고, 이에 반발한 미국은 올해 1월부터 프랑스산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한편 영국 정부는 글로벌 기술 기업이 공정한 세금을 내야 한다며 검색 엔진, 소셜 미디어 서비스 및 온라인 마켓플레이스의 수익에 2%의 디지털세를 부과할 방침이다. 이에 맞서 미국은 영국의 디지털세가 자국 기술 회사를 차별하고, 국제 조세 규범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반발하였다. 미 당국은 상응하는 조치로 영국의 대미 수출품에 25%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디지털세 관련 글로벌 논의를 더욱 어렵고 복잡하게 만든 이유 중 하나는 미국의 전 정부가 OECD 협상에서 탈퇴하기로 한 결정이다. 2020년 6월 미국은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및 영국 재무장관에게 글

로별 디지털 세금 관련 OECD 협상에서 탈퇴한다는 편지를 보냈다. 당시 스티브 므누신 재무장관은 협상이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과 같은 미국 디지털 기업을 주요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이들에게 새로운 세금을 부과하는 계획을 수립한다면 보복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OECD는 디지털 무역 확대에 따른 세금 문제를 해결하는 합의안을 작년 말까지 마련할 계획이었다. 그리고 같은 해 10월 디지털 세금을 포함한 국제 조세제도 개혁에 대한 세부 제안을 발표했다. 가까운 시일 안에 국제적 합의가 이뤄지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왜냐하면 미국 정부가 자국에 본사를 둔 기술 대기업의 세수를 시장 관할권, 특히 유럽으로 이동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이유로 제안의 일부 내용에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USTR는 유럽 국가들의 일방적 디지털세 부과 조치는 OECD 협상의 진전을 방해하고 디지털 과세에 대한 다자간 접근 방식을 훼손한다고 우려한다.

한편 바이든 행정부가 디지털세 문제는 국제기구를 통한 글로벌 합의를 추구하겠다는 입장을 천명하고 있어 각국의 디지털세 부과 방침에 대해 미국이 관세 보복으

로 대응할지는 미지수이다. 미국의 전략은 OECD 협상틀에서 벗어나 301조 조사를 통한 관세 부과 긴장감을 조성한 후 나중에 OECD 협상 테이블로 돌아오거나, 관세 부과 위협을 통해 개별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다. 두 전략 모두 경제적 위험을 수반하며 실패로 인한 비용은 미국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무역 전쟁과 디지털 세금의 확산이 될 수 있다.

우리 정부는 글로벌 기술 대기업 및 다국적 기업에 디지털세를 부과하려는 세계적인 움직임에 원칙적으로 동의하고 있다. 그리고 해외에서 상당한 매출을 올리는 일부 한국기업도 글로벌 IT 거물처럼 디지털세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 현 단계에서 기업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관할 구역에서 세금이 언제 어떻게 부과될 것인지 분명하게 파악해야 한다. 왜냐하면 디지털세 부과는 디지털 무역의 범위와 유형에 대한 국가 간 합의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디지털세 또는 관세 부과 조치에 대비하여 비용 측면의 유연성을 제공하는 단기 및 중장기 관리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디지털세와 흑시 있을 관세 인상에 대한 적절한 대응 계획은 기업이 비용을 통제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대방로

한경록 광주전남연구원 융복합산업연구실장



지역 주도의 국가균형발전

이투데이, 말투데이

최근 지방대학의 정원 미달 소식은 비관 끝으로 내몰리고 있는 지방소멸의 위기를 체감하게 해 주었다. 국민의 절반이 수도권에 살고 있다는 말은 이제 진부하게까지 들린다. 역대 정부는 4대 초광역권, 5+2 광역경제권, 지역행복생활권 등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다양한 추진 전략을 펼쳐 왔다. 과거에는 정부가 주도하고 지역이 참여하는 형태였다면 이제는 지역이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형태로 변화하고 있다.

과거 전략이 중앙정부에 의한 하향식의 획일적인 광역화 전략이라면 최근의 유연한 광역권 전략은 상향식, 지역 주도의 전략이다. 중앙정부는 지역 주도의 광역화 전략이 만들어질 때 제도화와 입법을 통해 적극적으로 지원하면서 조정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초광역 협력 프로젝트 지원을 위해 균형발전특별회계에 지역협력계정을 신설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것은 바람

직하다. 작년부터 초광역화, 초광역 발전전략이 화두로 등장했다. 그러면서 그 대안으로 3+2+3 전략을 내세웠다. 그랜드 메가시티(수도권, 동남권, 충청권), 행정통합형 메가시티(대구경북, 광주전남), 강소형 메가시티(전북권, 강원권, 제주권)를 의미한다. 부산·울산·경남을 하나의 생활·산업·경제권으로 묶는 '부울경 메가시티' 조성이 속도를 내고 있다. 동남권 메가시티는 부산, 울산, 창원 등 3개 대도시권을 중심으로 4개의 광역권과 연계하여 수도권에 대응하는 거대한 생활·경제·문화·행정공동체를 구현해 보자는 것이다. 인구 800만의 부·울·경은 제2의 국가 성장축으로, 2040년 동북아 8대 광역경제권 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대구와 경북까지 포괄하는 영남권 그랜드 메가시티를 위한 연구도 시작되었다.

하지만 행정통합 이슈에서 대구와 경북은 동력이 점차 줄어들고, 광주와 전남도 지지부진하다. 행정통합, 메가시티, 특별

연합 등 다양한 용어가 등장하지만 이런 내용을 이해하면서 찬반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지역 주민이 얼마나 될까 싶다. 유형과 명칭의 차이는 있지만 모두 지역발전을 위해 논의하는 과정일 것이다. 따라서 지역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많은 시간을 쏟아야 하고 충분한 숙의, 토론 절차가 필요하다.

지역에서는 각자도생이 아닌 상생발전을 목표로 하여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지역 간에 어떤 방식으로든 손을 맞잡으면 정부 공모사업 대응이나 기업 투자유치, 공공기관 이전 등 여러모로 출혈경쟁은 줄어들게 될 것이다. 수도권의 자원 집중화에 대응하고 경쟁하기 위한 규모의 경제가 기본 논리다.

지역이 주도하여 초광역화 이슈를 부각시키고 있으니 정부가 귀를 기울이고 정책적인 지원을 준비해야 한다. 문제는 기술 여건 운동장인데, 갈수록 기술기가 심해지니 지역이 참다 못해 움직이는 것이다. 비

수도권의 한 광역지방자치단체의 힘으로 수도권 블랙홀 현상을 이겨내기 어렵기 때문에 이런 논의들이 등장한 것이다. 국가균형발전은 지역의 시각에서 바라보는 것이 맞다.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의 면적은 우리나라 전체 면적의 약 12%를 차지한다. 인구는 50% 이상이 집중되어 있다. 수도권에 인구와 기능이 집중되면서 지역 간 격차가 점점 더 심해진다. 국가균형발전을 계속 부르짖고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지방에 문제가 있어서 지방이 소멸되는 것이 아니다. 문제는 수도권에 있다. 인구, 교육, 기업, 문화 등 사실상 모든 것들이 집중되어 있으니 지방에서 뭘 해볼 수가 있겠나? 과감한 수도권 기능 분산이 필요하다. 너무했다는 말이 나올 정도의 파격적인 수도권 역차별까지 고민해야 한다. 보다 실용적인 정책 패러다임 전환과 유연한 추진 방식이 필요하다. 언제까지 국가균형발전을 미완의 꿈으로만 남아 있게 할 것인가?

☆ 헨리 포드 명언
"당신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할 수 있고, 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 할 수 없다."
'자동차왕'으로 불리는 미국 자동차 회사 포드의 창설자. 조립 라인 방식에 의한 양산 체제인 포드 시스템으로 그동안 소수에게만 허락되던 개인용 탈것을 만민의 것으로 대중화시켜 마야카 시대를 개척한 인물. 그는 오늘 세상을 하직했다. 1863-1947.

☆ 고사성어 / 불파불립(不破不立)
낡은 것을 부수지 않으면 새것을 세울 수 없다는 말. 당(唐)나라 사상계의 지형도를 다시 짜려는 꿈을 가진 한유(韓愈)가 유교의 전통을 재조명하려고 쓴 산문 '원도(原道)'에서 처음 소개한 말에서 유래했다. '깨뜨리지 않으면 설 수 없고, 막지 않으면 흐르지 않고, 멈추게 하지 않으면 실행되지 않는다[不破不立 不塞不流 不止不行]' 훗날 마오쩌둥이 '신민주주의론'에서 인용하면서 널리 알려졌다.

"캠프 내 17대, 18대 등 전 국회의원 등 울드보이가 많아 나오는 전략 또한 울드하다", "업무분장이 공개되었다가 비공개되어 '비밀결사조직' 같다", "기자들을 만나지 않고 정부적 감각이 떨어지는 논쟁만 쓰고 있다", "지역은 열심히 하는데 캠프는 이에 미치지 못한다", "현역 의원이 주도해야 하는데 아이디어가 없다", "진용의 윤곽이 드러나지 않아 유기적 소통이 안 된다" ...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고 한다. 반면 의사소통 구조가 일원화하면 독재에 가깝다고 한다. 4·7 서울·부산시장 선거가 치러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 각 캠프에서 흘러나오는 불만들이다.
애당초 '선거 캠프'란 이해관계가 제각

기자수첩



이꽃들 정치경제부/flowerslee@

'탓'하지 말자

각 다른 정치인들이 모여 선거 캠페인 기간 내에 이합집산하는 까닭에 효율을 내기가 쉽지 않다. 단기간 내 화학적 결합도 어려울뿐더러, 각 지역에서 유세차량을 누가 끌 것인지 이권과 지역 조직의 헤게모니 싸움인 측면도 있다. 다만 선거 결과에 따라

이러한 균열을 얼마만큼 밖으로 드러내느냐의 차이가 있다. 이번 선거는 내년 대선을 1년 앞두고 전초전으로서 각 당이 사활을 건다는 것을 물론 전제로 한다. 그러나 대선 잠룡들이 저마다 속속 갈라치는 상황에서 걸으면 '원팀'을 앞세우지만 내년 대

선·지방선거, 2024년 22대 총선까지 바라보면서 이해득실을 따지는 백가쟁명식 속셈과 해법이 난무하기 쉽다. 심지어 조직력만을 바라보고 '체리 피킹'(Cherry picking)과 다를 바 없이 '자기정치'만을 '이때살'(이때다 싫어)하려는 문제도 있다. 과연 어느 쪽이건 '오합지졸'이고 '아사리판'일 수 있는 상황인 건 마찬가지다.

실패가 진할수록 공공의 적이나 희생양을 삼기도 쉽다. 그러나 질 거라면 깔끔하게 지자. 쇠신하되 책임론에 매몰되지만은 말자. 누군가는 점령군이 될 것이고 누군가는 패잔병으로 남을 것이다. 책임을 '옴팡' 뒤집어쓸 인물만을 찾느라 소신하지 말자. 탓하지 말자.

☆ 시사상식 / 웨비나(Webinar)
웹(Web)과 세미나(seminar)의 합성어. 우리말로 '화상 토론회'라 한다. 인터넷으로 웹에서 진행되는 세미나를 말한다. 인터넷에 연결된 컴퓨터와 전화를 이용해 참석자 간에 실시간, 양방향으로 진행된다. 자기 자리에 있는 컴퓨터를 통해 쉽게 참여하기 때문에 비용을 줄일 수 있고 시간공간의 제약도 피할 수 있어 인기가.

☆ 고운 우리말 / 실팍하다
'똥똥하다'라는 제주도 사투리. 사람이나 물건 따위가 보기에 실하다는 뜻이다.

☆ 유머 / 현명한 환자
의사가 전신마취를 준비하자 수술대에 누워 있던 환자가 일어나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 돈을 세기 시작했다. "이봐요, 수술비는 나중에 내도 괜찮아요." 의사가 말하자 환자의 대답. "알아요. 마취당하기 전에 내 돈이 얼마인지 확인해 두려고요."
채집/정리: 조성권 국민대 경영대학원 객원교수, 맛있는 삶 연구소장

지금은 직원 채용이 미래 투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이어 코로나19 사태까지 겹치면서 국내 산업구조의 체질이 바뀌고 있다. 지난해 코로나 감염증을 겪은 후 코스피 시장에서 시가총액 상위종목은 바이오·배터리·인터넷·게임(BBIG) 위주로 재편됐다. BBIG 업종은 정보기술(IT)·반도체 산업과 함께 한국의 미래를 먹여 살릴 산업으로 자리잡았다.

산업구조의 개편은 일자리 시장 개편으로 이어지기 마련이다. 이들 미래산업은 IT 분야를 전공한 우수 인재의 절대 숫자가 부족하다고 아우성이다. 최근 IT·게임 업계에서 벌어진 '연봉 배틀'이 대표적인 사례다. 디지털테크 기업들은 프로그램 개발 분야의 인력난이 현실화하자 야드투 대졸 초봉을 6000만 원 이상으로 끌어올릴 정도로 인재 영업 경쟁이 가열되고 있다. IT 대기업들이 야드투 고액 연봉을 제시하면서 인력 모시기에 나서자 중소기업, 스타트업에서는 인재가 빠져나갈까 전전긍긍이다. 사회 전체적으로는 청년 실업률 10%를 돌파하며 사상 최악의 청년 구직난이 심각한 상황인데 또 다른 한쪽에선 이렇듯 구인난이 벌어진다는 것은 인재 양성 시스템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미래형 산업구조가 필요로 하는 일자리는 대체로 이과형 인재다. 오래전부터 대졸 취업준비생들 사이에서 문과여서 죄송하다는 '문송' 현상이 나타났는데도 여전히 이과 인재 부족은 교육 현상이 산업구조 변화에 발맞춰 빠르게 바뀌지 못한 탓이다. 기업이 대졸 입사자를 재교육시켜야 한다며 대학의 직업훈련 교육 강화를 요구해온 지도 오래지만 이런 목소리 역

데스크칼럼

이효영

부국장 겸 유통바이오부장



시 현장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실제로 소프트웨어정책연구원은 내년까지 국내 인공지능(AI) 소프트웨어 분야에서만 1만 명 가까운 인력이 부족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글로벌 반도체 수급 대란이 일면서 인력난은 반도체 업계로 번질 가능성도 높다. 반도체 업계에서는 앞으로 3년 내에 최소 7000명의 인력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올해 반도체 공학과에 처음 신입생을 받은 연세대와 고려대도 3~4년은 지나야 졸업생이 나온다.

잘못된 인재양성 시스템을 바로잡으려면 궁극적으로는 교육을 바꿔야 한다. 최근 한국과학기술한림원이 개최한 'AI 시대 인재 양성' 토론회에서는 세계 각국의 AI 인재 확보 경쟁에서 한국이 뒤처지고 있다며 초·중·고 교육부터 대학까지 교육제도가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 자리에서 서정연 서강대 컴퓨터공학과 교수는 '디지털 문명 퇴치'를 위한 교육 개혁을 주장했다. 서 교수는 "초·중·고 교사들부터 빨리 디지털 문명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교대와 사대의 모든 전공에 SW교육을 필수로 확대, 실시해야 한다"

고 말했다.

하지만 교육과정을 바꾸고 적절한 전공자를 적절한 직무에 쓸 수 있는 인재 매칭이 현실화하기까지는 너무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창의융합형 인재를 키운다는 '문과와 통합형' 교육과정이 2022년 수능에 맞춰 제야 시작됐다.

그러는 사이 신산업 분야를 선점하려는 글로벌 기업들의 전쟁은 한층 격화되고 있다. 세계 반도체 공급망을 자국 중심으로 바꾸려는 미·중 간 기술 패권 전쟁은 반도체 강국인 한국에 불리할 수밖에 없다. 코로나19 백신 주도권 전쟁에서도 미국·유럽뿐 아니라 중국·러시아까지 가세하며 선진국들의 산업 자국 중심주의가 갈수록 노골화하고 있다. 국내에서 개발자 확보 경쟁이 문제가 아니라, 글로벌 인재들과 경쟁할 국내 신산업 인재 육성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예상치 못한 코로나 시대 불확실성 속에서도 서두에 언급한 미래산업들은 선방하고 있다. 그럼에도 효율성을 이유로 삼성을 제외한 5대 그룹은 모두 대졸 공채를 폐지했다. 기업들이 공채 대신 수시 채용을 하겠다는 건 추가 투자가 필요 없는 경력직, 꼭 필요한 맞춤 전공자만 뽑겠다는 수세적인 자세다. 반면 네이버는 '비전 공자 공채 신설'과 '정기적 경력 공채'라는 인재 확보 공세에 나섰다. 일회성이 아닌, 지속가능한 전략이어야겠지만 일단 환영할 만한 일이다. ESG경영이 대세라는 요즘, 기업이 직원을 한 명이라도 더 뽑는 것이 미래를 위한 투자이고 사회에 환원하는 길이 아닐까.

hylee@

사설

최악 재정적자에 눈덩이 나랏빚, 출구전략 급하다

작년 나라살림이 역대 최대의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사태로 네 차례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고 막대한 재난지원금을 뿌리는 등 확장재정으로 치달으면서 나랏빚이 크게 늘어난 탓이다.

정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2020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심의·의결했다. 국가부채가 1985조3000억 원으로 한 해 전보다 241조6000억 원 늘었다. 세금 수입은 줄었는데 지출이 급증했다. 여기서 연금충당부채를 빼고 중앙·지방정부가 반드시 갚아야 할 국가채무(D1)가 846조9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123조7000억 원(17.1%)이나 증가했다. 이에 따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채무비율이 2019년 37.7%에서 지난해 44.0%로 급격히 높아졌다.

정부의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71조2000억 원 적자였고, 4대 보장성 기금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가 112조 원 적자로 2019년(54조4000억 원)보다 갑절 이상 늘었다. 실질적인 나라살림을 보여주는 지표인데, 1990년 집계 이후 최악의 재정운용이다.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비율은 5.8%로 전년 2.8%에서 급증했다. 이 비율이 0.5% 이내여야 균형재정으로 본다.

그럼에도 정부는 여전히 우리 국가채무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낮고,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도 선진국들에 비해 매우 양호한 수준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앞으로

적자와 나랏빚 증가 속도가 갈수록 빨라지는 구조라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코로나19 사태의 지속적인 확산으로 경제 피해가 가중되면서 대응 예산을 얼마나 더 투입해야 할지 가능하기 어렵다.

정치권은 또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말하고, 손실보상의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다. 막대한 규모의 빚을 추가로 내야 한다. 저출산·고령화의 가속으로 복지예산 지출 수요 또한 급증하는데 세금 수입 기반은 계속 나빠지고 있다. 정부는 올해에도 국가채무가 119조 원, 내년 125조3000억 원, 2023년 125조9000억 원, 2024년 130조7000억 원 늘어날 것으로 전망한다.

문제는 재정건전성 악화가 심각한데 이를 개선하려는 대책이나 전략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선진국들은 이미 코로나 이후를 대비해 지출과 채무를 줄이기 위한 출구전략을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정치권을 중심으로 줄곧 무리한 확장재정과 돈을 더 풀자는 주장만 난무할 뿐이다. 전문가들은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비율 4~5%, 국가채무비율 50%를 넘어서면 위험한 상황이라고 지적한다. 늘어나는 빚 부담은 미래 세대에 걸쳐 갈 것 없이 곧 우리 모두가 세금으로 갚아야 할 짐이다. 경기를 살리고 버랑에 몰린 민생을 구제하기 위해 우선 재정역학의 확대와 나랏빚을 늘리는 것이 불가피해 재정건전성은 우리가 지켜야 할 마지막 보루다.

노트북을 열며

구성현

자본시장부 차장



증시 호황 가로막는 증권사 시스템

지난해부터 새내기 공모주에 대한 관심이 크게 확산되고 있다. 청약일에는 포털 사이트 인기 검색어에 오를 정도인데 이는 증시에 대한 일반 투자자들의 저변이 넓어지고 있다는 방증으로도 볼 수 있다.

하지만 그때마다 반복되는 일도 있다. 바로 증권사들의 주식거래시스템인 HTS·MTS 먹통 사태다. 지난달 19일 상반기 최대어로 꼽히는 SK바이오사이언스가 상장 첫날 상한가로 거래를 마치자 많은 투자자들이 들쭉날쭉 차익실현에 나섰다. 하지만 미래에셋증권의 MTS가 접속 지연되는 현상이 발생했다. 당시 적시에 거래를 하지 못한 투자자들을 중심으로 불만이 터져 나오면서 미래에셋증권은 보상 조치에 들어갔지만 어느 정도 보상이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이 같은 일은 처음이 아니다. 3월 코로나 팬데믹으로 국내외 증시 유행성이 급격하게 늘자 당시 국내 주요 증권사의 HTS와 MTS가 여러 차례 장애가 발생하고 해결되기를 반복했다.

공모주 청약 열풍으로 주식투자 고객뿐

만 아니라 공모주 청약 고객까지 물리자 접속 장애가 더욱 빈번해졌다. 지난해 9월 초 진행됐던 카카오게임즈 공모주 청약 당시 삼성증권과 한국투자증권 MTS가 일시 먹통되면서 투자자들이 불편을 겪어야 했다. 그때마다 나오는 증권사들의 해명도 '일시적인 현상일 뿐 지금은 해결됐다'며 똑같은 대답을 내놓을 뿐이다.

그럼에도 일반 투자자들이 보상을 받기는 쉽지 않다. 증권사 고객 센터 전화 기록이나 로그인 오류 화면을 이미지로 남기고, 비상주문을 시도한 흔적이 있어야 한다. 보통 반복적인 접속을 시도할 뿐이지 보상을 받자고 증거를 남기는 투자자들이 얼마나 될지 의문이다.

처음에는 단순 거래에만 발생하던 사고가 유가 해외선물옵션 오류, 테슬라 주식 자동 매도 사고 등 다양한 방면으로 오히려 확산되는 모양새다. 그때마다 증권사들은 '시스템을 개선하겠다'고 공언했지만 말 그대로 공염불에 불과한 형편이다.

지난해 동학개미들의 대거 증시 입성으로 IB 등의 부진에도 증권사들은 사상 최대 실적을 올렸다고 자랑을 늘어놨지만 시스템 개선은 뒷전인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실제 증권사 전산시스템을 맡고 있

는 한 담당자는 기자에게 "매일매일 시스템 한계의 마지노선을 넘나드는 형편이지만 투자는 미비하고 지금부터 개선에 나선다고 해도 최소 수개월이 걸리는 작업이 이뤄지는 동안은 또 언제 멈춰설지 모른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그나마 대형증권사들을 중심으로 시스템 확장 개선에 나서고 있지만 이르면 하반기에나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그 사이 일어나는 사고는 고스란히 개인 투자자들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 실제로 이달에도 예상 기업 가치가 최대 7조5000억 원에 달하는 SK아이이테크놀로지(SKIET)의 일반 공모 청약이 예정돼 있다.

국내 증시는 개인 투자자들의 비중이 70%를 넘는다. 오랜만에 온 증시 성황기를 놓치고 개인 투자자들이 떠나버린다면 또다시 증시는 답보상태에 머물 수밖에 없다. 금융투자업계의 사소한 사안마다 '배 나라 감 나라' 단속에 나서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유독 이런 사고에는 뒷집지고 남의 집 불구경하는 모양새다.

증권업계는 지금이라도 근본적인 인프라 투자를 단행해야 증시 호황을 이어갈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실수가 반복되면 그것은 실수가 아니다. carlove@

진료실 풍경

우월한 유전자

'연예인 A 양 가족 사진 공개, 우월한 유전자 입증되다!'

요즘 '우월한 유전자'란 유행어가 미디어에서 종종 눈에 띈다. 나는 이 단어를 볼 때마다 매우 비과학적인 오류가 내포되어 있다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다.

초등학교에 갓 입학한 아이를 둔 어머니가 진료실에 찾아왔다. 수업시간에 집중을 영 못하고 산만하여 담임 선생님이 아무래도 '주의력결핍 과잉행동 증후군, 즉 ADHD'인 것 같다고 치료를 받아 보라고 권했다는 것이다. 곱게 키운 외동아들에게 그런 불경한 말을 하더니. 어머니는 선생님에 대한 원망과 후사나 하는 걱정이 뒤섞인 표정이었다.

일단 검사를 진행한 뒤, "어머니, ADHD에 해당되는 점수가 나오긴 했는데요" 하며 최대한 조용하고 조심스러운 어조로 말을 꺼내자마자, 그녀는 눈물을 쏟으며 대성통곡한다. "제 아이한테 어쩌다 이런 일이..."

"어머니, 남자들이 수업 생활을 하던 수십만 년 동안은 산과 들을 신나게 질주하던 상남자들이 마을에서 일등 신랑감이었

지요. 그런데 불과 수천 년 전에 문명이 발전하면서 글을 배우고 숫자를 익혀야 되는 환경이 오자 이런 남아들에게 좀 힘들게 된 것이지요. 또, 긴긴 빙하기를 거치면서 지방 저장 능력이 뛰어난 여성들이 미인이었는데, 아주아주 최근 식량이 지나치게 남아돌면서 오히려 불리하게 된 것처림요."

"ADHD가 병이나 정상이나는 과학적으로 정의할 수 없는 가치판단의 영역입니다. 가치는 시대와 문화에 따라 계속 변하는 것이지요."

"과학적으로 아이의 집중력을 높여 줄 수 있는 방법은 있지만, 그 방법을 사용할 것인지는 형이상학적 영역이고 부모의 교육 철학에 달려 있습니다."

"우월한 유전자도 열등한 유전자도 없습니다. 단지 그 당시의 환경에 유리한 유전자는 있겠지요."

내가 녹음기처럼 반복해서 환자들에게 들려주는 이 말은, 그들을 피상적으로 위로해 주기 위한 현실 도피적인 수사가 아니다. 이것은 과학적 진리다.

최영훈 닥터최의원세미음상담의원 원장

이투데이



뉴스를 풀어줍니다,
경제가 쉬워집니다.

SAMSUNG

#비스포크 오너들의 이야기

보여지는 것이 취향의 전부일까

보이는 모습에 신경 쓰다 해서
내면을 꾸꾸는 일을 소홀히 하진 않아요.
겉으로는 보이지 않는 디테일이
나란히 사람을 완성하니까요.
비스포크를 선택한 이유도 똑같아요.



깨끗한 물이 편리하게 즐기는 베버리지센터



언제든 프리미엄을 더하는 블랙 클래식

*상기 기능은 일부 모델 및 컬러 적용됨

JOIN THE BESPOKE

